고민을 지우다
믿음을 채우다

교육가족이 미래에 대한 고민을 지울 수 있도록
신뢰받는 금융·복지 서비스로 믿음을 채울 수 있도록
The-K한국교직원공제회가 혁신과 전문성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다짐합니다.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The·K호텔앤리조트 The·K제주호텔 The·K저축은행 The·K교직원나라 The·K소피아그린 The·K예다함상조

ccm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소비자원

The·K

MONTHLY MAGAZINE

「오늘의 학교」
'가면'을 벗고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컬럼비아대학교 버나드칼리지 심리학과 리사 손 교수

「인생 이모작」
뷰파인더에 담긴 세상은
언제나 아름답다
재능 기부 사진작가 정창완 회원

「꿈 너머 꿈」
목재의 감수성으로
'참교육'을 꿈꾸다
연천 대광중학교 최창민 기술교사

2022 **02**
vol.54

생각 나누기	역사 속 숨은 영웅	한국 근대 수학 교육의 아버지,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특사, 이상설 선생
배움 더하기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인공지능(AI) 교육이 가져야 할 '인간다움의 순간'
행복 곱하기	방방곡곡 숨은 명소	따스한 남녘 바닷가에서 봄을 기다리다, 낭만의 해양 도시 여수
언제나 더케이	The-K Focus	Q&A로 만나는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 퇴직생활급여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The-K

FEBRUARY. 2022 | vol. 54

04 **여는 글**
아름다운 마무리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생각 나누기
삶의 깨우침을 주는 멘토,
추억과 공감을 나누는 회원들의 이야기

06 **이달의 도움 회원**

08 **The-K 예술가**
누군가에게는 시작이 또, 어떤 이에게는 끝이
다, 그렇게 다를 수 있다는
아주 단순한 삶의 무게가 부끄러워진다

10 **좋은 사람 좋은 생각**
서로의 마음을 보듬는 슬기로운 언어생활
_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

14 **역사 속 숨은 영웅**
한국 근대 수학 교육의 아버지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특사, 이상설 선생

18 **우리 어렸을 적에**
눈물과 뜨거운 박수,
그 시절 졸업식

배움 더하기
변화하는 교육 현장을 함께 고민하고 배워보는
교육 이야기 & 세대별 맞춤 콘텐츠

20 **이렇게 바꿔요**
바른 올림말로 인사 나누기

22 **오늘의 학교**
'가면'을 벗고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_컬럼비아대학교 버나드칼리지 심리학과 리사 손 교수

26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인공지능(AI) 교육이 가져야 할 '인간다움의 순간'

30 **미래 잡(job)자**
잊고 싶은 온라인상 기억을 지워드립니다!
디지털 장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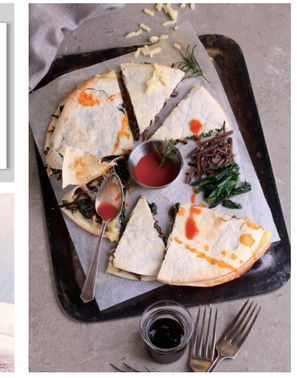
32 **꿈 너머 꿈**
목재의 감수성으로 '참교육'을 꿈꾸다
_연천 대광중학교 최창민 기술교사

36 **고민 상담소**
퇴직증후군, 나를 알면 나아갈 길이 보인다

38 **인생 이모작**
뷰파인더에 담긴 세상은 언제나 아름답다
_재능 기부 사진작가 정창완 회원

- **발행일** 2022년 2월 1일
- **발행처** 한국교직원공제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홈페이지** www.ktcu.or.kr
- **발행인** 김상곤
- **기획** 홍보소통부 미디어소통팀
  장영호, 이정우, 김경희, 황수현, 오수민
- **편집** 수석기자 이은정 / 객원기자 이성미, 정라희 / 교열 박혜경
- **디자인** 아트 디렉터 이윤정 / 디자이너 이진희
- **사진** 포토그래퍼 이용기
-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제작** 하나로애드컴 02-3443-8005

* 「The-K 매거진」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행복 곱하기
힐링을 전하고 행복한 삶의 방식을 제안하는
라이프 스타일 정보

42 **방방곡곡 숨은 명소**
따스한 남녘 바닷가에서 봄을 기다리다
낭만의 해양 도시 여수

48 **똑똑! 트렌드 경제**
뛰는 장바구니 물가,
'스크루플레이션 리스크'

50 **마음쉼**
새학기를 앞둔 나의 마음 살피기

52 **The-K 예방의학**
감기 몸살로 오해하기 쉬운 대상포진

54 **건강한 집밥**
명절 음식의 대변신!
남은 설음식으로 만드는 별미 요리

58 **DIY 리사이클링**
'힙(Hip)한 친환경' 쓰레기에 담긴 철학
폐플라스틱, 옥수수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패션
_입지 않는 옷, 필요한 소품으로 재활용하기

언제나 더케이
회원들의 일상과 함께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최신 정보와 주요 소식 & 이벤트

62 **The-K Focus**
Q&A로 만나는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퇴직생활급여

66 **The-K 크리에이터**
"교육 가족을 위해 우리가 간다!"
The-K 크리에이터의 새로운 시작과 빛나는 도전,
지난 2년 동안의 특별했던 이야기

68 **The-K 매거진**
교육 가족을 연결하는 공제회 대표 소식지
회원님과 함께 만든 「The-K 매거진」

72 **커피 트럭 이벤트**

73 **2월호 초성 퀴즈**

74 **The-K News** 공제회 주요 소식 & 이벤트

78 **회원 의견**

82 **온라인에서 만나는 「The-K 매거진」 이벤트**

83 **즉석 당첨 이벤트**

웹진 안드로이드앱 아이폰앱

The-K Magazine을 스마트폰에서 보는 법
「The-K 매거진」은 한정된 부수만 발간하여 학교나 기관 등으로 발송해 드리며,
웹진과 모바일 앱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thekmagazine.co.kr

한국교직원공제회 • 회원콜센터 1577-3400 • 보험콜센터 1577-3993

아름다운 마무리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지나간 모든 순간과 기꺼이 작별하고
아직 오지 않은 순간들에 대해서는 미지 그대로 열어 둔 채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인다.'
법정 스님의 이야기처럼 정돈된 끝맺음은 순탄한 시작과 미래를 이끕니다.
후배들의 송가에 눈물을 흘리고 가족들이 가져온 꽃다발을 안고 학교 곳곳에서 사진을 찍으며
마음으로 모든 것을 기억하려 했던 그 시절의 졸업식을 떠올려봅니다.
비대면으로 졸업식이 이뤄지는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추억할만한
'마무리'의 경험을 주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듭니다.
출근과 퇴근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하루의 끝과 시작이 모호해지는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마무리, 소중한 시작을 놓친 채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도 돌아볼 일입니다.
디지털 시대, 비대면으로의 변화가 요구되는 일상에 떠밀리지 않고
마음을 내려놓을 틈, 끝을 인정할 수 있는 쉼, 시작을 준비하는 짬을 내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The-K 매거진」 2월호에서는 졸업식 사진을 통해 잠시나마 학창 시절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어렸을 적에」 코너를 시작으로
불안을 만드는 '가면 증후군'에 대해 경고하고 극복 방법을 소개하는 리사 손 교수의 인터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보듬는 '언어 감수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언어학자 신지영 교수의 '슬기로운 언어생활'을 통해
우리의 언어습관을 돌아보고, 「이렇게 바꿔요」 코너에서 바른 올림말로 인사를 나누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1,2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전국창의목공교사모임을 만든 최창민 교사의 목공을 향한 열정과
모임을 통해 학생들과 함께 행복한 힐링의 시간을 갖게 된 회원 교사들의 이야기,
사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찾아가 무료로 재능기부 활동을 해온 정창완 회원님의 따뜻한 감동 사연도 전해드립니다.

2월 퇴직을 앞둔 회원님을 깊이 응원하는 마음으로 자주 질문하신 내용들을 모아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과 퇴직생활급여 Q&A 기사도 담았습니다.
지난 1년간 「The-K 매거진」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회원님들께 가장 많은 호응을 얻었던 기사와 코너, 이벤트는 무엇이었는지,
가장 많은 분이 펼쳐보시고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호는 몇월이었는지도 분석해보았습니다.
「DIY 리사이클링」 코너에서는 친환경을 '힙한 문화'로 받아들이는 MZ세대들의 성향에 부합해 지속가능한 패션을 추구하는
패션 산업의 트렌드를 소개하고 입지 않는 옷으로 일상에 필요한 소품을 함께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끝맺음이 필요한 것들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펼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달의 도움 회원

「The-K 매거진」에서는 매월 매거진 제작에 도움을 주신 회원 여러분과 스태프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계획으로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신 인터뷰이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 나은 매거진 제작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시는 도움 회원과 스태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전하며 이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청주 대성중학교 **윤성복 회원**

“ 목공 수업으로 밝아지는
아이들의 모습에 행복합니다 ”

전국창의목공교사모임은 「꿈 너머 꿈」의 주인공 최창민 회원이 전국기술교사모임에서 만나 친분을 쌓아온 윤성복 회원과의 만남에서 비롯됐습니다. 이후 이대석 교사가 합류하며 2015년 전국 규모의 교사 모임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윤성복 회원은 모임의 부회장이자 홍보 담당입니다. 회장으로 있는 최창민 회원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죠.

윤성복 회원과 최창민 회원은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목공을 학교 수업에 적용한 뒤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수없이 봐왔어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던 아이들이 목공이라는 노작 활동을 통해, 학교 현장으로 돌아오거나 학교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목공 수업이 전국의 모든 학교로 확대되어, 더 많은 학생이 아름다운 변화를 맞게 되길 바랍니다.” 이들의 희망이 다른 많은 교사에게도 새로운 교육의 기회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전국창의목공교사모임 회원들

“ 목공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단비 같은 힐링의 시간 ”

전국창의목공교사모임은 학교 교육 과정 내에서 목재 교육을 통해 디자인, 설계, 창의적인 문제해결력 등을 키워보고자 희망하는 교사들의 뜻이 모여 시작됐습니다.

편집실에서 모임의 실체를 처음 마주한 곳은 1,200여 명이 활동하는 네이버 밴드였는데요. 이곳에서는 선생님들의 목재 교육 과정과 사례를 공개하고 제품 완성의 보람찬 순간을 공유하며 목공 전문가들 못지않은 고난도의 목공 기술을 친절하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을 위해 목재문화진흥회, 산림청, 대한우든펜협회 등 전문 기관들과 연계한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들을 꾸준히 운영한다는 점은 모임이 힘을 얻고 활성화하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모임에서 얻은 노하우로 아이들에게 단비 같은 힐링의 시간을 만들어 준다는 점은 가장 큰 보람일 텐데요. 목공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21세기북스 **이지혜 편집자**

“ ‘가면’과 ‘불안’에 대한 이야기,
독자들께 전하고 싶어요 ”

올 2월 출간된 리사 손 교수의 신간 『임포스터』의 편집 기획을 진행하고, 홍보·마케팅을 관리하는 이지혜 편집자는 「The-K 매거진」과 리사 손 교수를 이어주는 징검다리가 되어주었습니다. 독자들에게 리사 손 교수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편집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인터뷰 진행을 추진해주셨는데요. 예비 독자들에게도 추천을 잊지 않았습니다.

“리사 손 교수는 교포로서, 교수로서 ‘가면 증후군’을 겪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글이 뒤섞인 초고를 읽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가 쓴 ‘가면’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시작돼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가면’과 ‘불안’, 이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The-K 매거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공감하고 싶습니다.”

두디스 코칭 **강일수 대표**

“ 본질적인 삶의 문제를
고민하고 나눕니다 ”

회원들의 고민을 콕 집어 밝히고 위로하는 코너 「고민 상담소」는 2019년부터 「The-K 매거진」과 인연을 맺어온 ‘두디스 코칭’ 강일수 대표의 자상하면서 용기를 주는 글로 운영됩니다.

강 대표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직장인·기업인들이 더 나은 성과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카운슬러입니다. 『이기는 사장은 무엇이 다른가』, 『늦기 전에 나에게 던져야 할 7가지 질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법, 안목』 등의 저서를 출간하고 길을 찾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사람과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코칭을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삶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상담가가 되고자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달의 도움 스태프

“ 단 한 건의 회원 의견도 놓치지 않는 「The-K 매거진」 웹진 서비스를 이어가겠습니다 ”

강인호 팀장

「The-K 매거진」의 웹 개발 및 운영 업무를 맡은 강인호 팀장은 20년 차 온라인 시스템 개발자입니다. 지난 9월부터 공제회의 웹진과 앱진 리뉴얼을 주도하고 매월 발행되는 디지털 「The-K 매거진」의 안정적인 운영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강의도 했던 이력 덕분에 개발자임에도 웹페이지의 디자인 감성을 놓치지 않습니다. 실시간으로 접수되는 회원들의 이벤트 시스템 오류는 없는지, 서비스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고 해결하는 것은 그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일정과 시스템의 한계로 모든 콘텐츠를 매거진 인쇄 책자 형식으로 완벽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갖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다양한 콘텐츠들을 온라인상에서 구현해본 그는 「The-K 매거진」은 정말 특별하다고 말합니다. “놀랄 만큼 적극적인 회원들의 수많은 의견을 매월 접하면서 단 한 건의 의견도 놓치지 않기 위해 안정적인 개발과 운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회원들의 관심과 칭찬에 부합하는 「The-K 매거진」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The-K 예술가」는 그림·조각·서예·시 등 회원님들의 예술 작품을 선보이는 지상 갤러리입니다.
회원님들의 아름다운 재능과 꿈을 지면에 담아 더 많은 회원님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시작이 또, 어떤 이에게는 끝이
다, 그렇게 다를 수 있다는 아주 단순한 삶의 무게가 부끄러워진다

기다림 | 최국환 (가톨릭대학교)

유화 90.9 x 65.1cm 2017

작가 노트 :
기다림은 다양한 색채로 표상될 수 있다. 봄을 기다리는 마음은 초록의 계절이 온다는 것을 알려줌과 동시에 한 해의 태동을 의미한다.
차갑고 다사다난했던 겨울을 보내면서 물밀 듯 조용한 봄의 평안이 태동하기를 염원하는, 구상의 색채로 표현하고 싶었다.

지는 것들에 대하여

박여범

거미줄 너머에 가지런히
고개 숙인 지는 연잎을 바라본다

누군가에게는 시작이
또, 어떤 이에게는 끝이

다, 그렇게 다를 수 있다는
아주 단순한 삶의 무게가 부끄러워진다

약속이나 한 듯 가지런히
고개 숙인 연꽃 어르신과 가느다란 눈이 마주친다

첫발을 내딛던 지팡이는 살포시 웃음 지으며
어서 가라 손짓하는 흰머리 연꽃 어르신의 잔잔한 미소다

– 이 정도면 잘 살아온 거야
– 부디 아름다운 청춘을 헛되이 보내지 말길
– 우리 잘 살아온 거 맞는 거지

전해오는 세 문장에
핑 돌아내리는 눈물을 참아내기 어렵다

먼 산 바라보며 떠오르는 태양을 그림자 삼아
손수건만 축축하게 멍든다

WRITER

박여범 시인은 충북 옥천 출생으로 문학박사이자 문학평론가, 수필가이기도 하다. 계간 『문학고을』 2019년 신인상, 월간 『문학세계』 2000년 신인상, 시인투데이 작품상(2021)을 받았고 하여(何如), 시산맥 특별회원, 전북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시詩가 꽃피華는 木나무』, 『시골학교, 최고의 아이들』, 『글쓰기의 이론과 실제』(공저), 『한국민속과 전통예술』, 『독서로 행복해지는 한 권의 책』 외 다수가 있다. 현재 전북 남원의 용북중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이다.

※「The-K 예술가」 코너는 예술, 문학적인 역량을 갖춘 회원 여러분의 사진·그림 등으로 채워집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를 희망하시는 회원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thekmagazine@ktcu.or.kr)

「좋은 사람 좋은 생각」은 급격히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삶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제시하는 멘토들에게 귀 기울이고 교육 철학과 인생의 가치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코너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보듬는 슬기로운 언어생활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

사람은 살아가며 매일 다양한 방식으로 누군가와 소통한다. 그러나 자신의 말이 매번 의도대로 전해지지는 않는다. 가끔은 미묘한 표현 차이로 듣는 이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한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옛말은 어쩌면 '언어 감수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아닐까. 칼처럼 날카롭게 상처 주는 말이 아닌 서로 공감하며 이해하는 언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지영 교수는 일상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언어를 민감하게 살펴본다.

글 정라희 / 사진 이용기

※ 모든 인터뷰 및 사진 촬영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진행했습니다.

> 인문학자로서 꿈과 현실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 사람들의 언어 능력을 높이는 일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상 속 언어생활을 탐구하는 '언어 탐험가'

어떤 이들은 마치 운명처럼 꿈을 만난다. 신지영 교수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 고등학교 국어 시간, 훈민정음 창제 원리를 배우면서 언어의 세계를 더 깊이 탐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솟았다.

"어릴 때는 수학과 과학을 더 좋아했어요. 그런데 언어를 공부해보니 그 원리가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그때부터 국어국문학과에 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진학을 결심했지요. 학창 시절에 만난 선생님 덕분에 좀 더 일찍 저만의 세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익히 알다시피 국어국문학과는 크게 '국어학'과 '국문학'을 연구한다. 시·소설·희곡 등 한국어로 된 문화예술을 연구하는 분야가 국문학이라면, 국어학은 한국어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소리·의미·문법을 탐구한다. 언어는 소리와 의미가 자의적으로 연결된 기호 체계다. '자의적'이라는 것은 소리와 의미 사이에 필연적 연관성이 없다는 뜻. 그래서 언어 사용자들은 언어 공동체의 사회적 약속을 습득하며 언어로 소통하는 법을 익힌다. 한국어 사용 공동체가 어떠한 사회적 약속을 만들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국어학자가 하는 일이다.

"대다수 사람은 습관적으로 언어를 사용합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언어를 객관적으로 살필 기회가 드물지요. 저는 우리가 쓰는 언어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보니 평소 제가 쓰는 말을 성찰하게 되더라고요."

언어의 원리가 과학적이라고 해도 결국 인문학의 본질이 닿은 곳은 '인간'이다. 그렇게 자신에게서 세상으로 시야를 넓히면 평소 쓰는 언어 표현들이 다르게 다가온다. 그래서 신지영 교수는 책 속의 학문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음성공학과 언어병리학 등으로 연구 영역을 확장한 것도 그런 마음가짐이 반영된 결과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언어학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 학계의 테두리 안에서는 언어학자로 불리지만, 그는 자신을 '언어 탐험가'로 여긴다. 그리고 언어를 탐험하는 즐거움을 더 많은 이가 알아주기를 기대한다.

❶ CBS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모습 [출처: CBS 공식유튜브]

❷ 세바시 '안전한 콘서트 : Sustainable Safety' 강연하는 신지영 교수 [출처: 세바시 공식블로그]

언어를 통해 일상을 여행으로 만들다

실제로 신지영 교수는 다양한 기획을 통해 사람들을 언어 탐험의 세계로 초대해왔다. 현재 몸담은 고려대학교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고다운 스피치 아카데미'를 진행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손잡고 '중학생 꿈나무 말하기 대회'를 열기도 했다. 서울시와도 '다다다 발표대회'를

기획하고 실행하며 시민들이 자유롭게 발언하고 소통하는 장을 만들었다.

"응용 학문이 산삼을 찾는 학문이라면, 인문학은 '아무도 모르는 보물'을 찾는 학문입니다. 산삼을 찾는 일에는 사람들이 바로 가치를 느끼지만, '아무도 모르는 보물'을 찾는 일은 종종 헛수고로 여기기도 하지요. 하지만 현실에만 발이 닿아 있으면 미래를 바라보며 꿈을 꾸기가 어려워요. 인문학자로서 꿈과 현실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 사람들의 언어 능력을 높이는 일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같은 마음가짐은 실제 대회 운영 방식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대회' 하면 한쪽이 이기고 지는 '경쟁'을 떠올리지만, 그가 기획한 대회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성장'이다. 그래서 예선에 앞서 신청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를 공유하고, 예선과 결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참가자들에게 교육을 제공한다.

"한국인들은 자기 의사를 표현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수직 문화가 강해 나이에 따른 권력 관계도 공고하고요. 그러다 보니 나이가 어리거나 권력이 약한 사람은 말할 기회를 얻기 어려워요. 그런데 중학생 말하기 대회를 해보면 생각보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무척 높아요. 그 또래만의 남다른 통찰력이 있는데, 어른들이 귀 기울이지 않은 것뿐이지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여러 프로젝트가 지금은 잠시 쉬어가는 중이지만, 그는 대중이 언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길을 끊임없이 개척하고 있다. 2019년에 시작한 팟캐스트 '신지영, 조수진, 조민하의 언어 탐험대' 역시 그러한 시도 중 하나. 이와 함께 「언어의 줄다리기」, 「언어의 높이뛰기」 등의 대중 교양서를 통해 생활 속 언어 감수성을 높이는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

> "언어 감수성의 기준이 높아질수록 말에 배인 편견과 혐오, 고정관념이 점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과거의 관념에 갇히지 않도록

언어 감수성은 우리가 몸담은 사회문화와 맥락을 함께한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과거에 자주 사용하던 언어 표현들이 현재의 가치관과 부딪히는 일도 잦아졌다. 기존 언어 공동체에서 반복해 사용하던 언어 표현들이 더는 자기 생각을 오롯이 담아내지 못한다는 의문이 들 때, 우리의 언어 감수성은 높아질 수 있다.

"오늘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은 어제까지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결혼함'을 뜻하는 '기혼'과 '아직 결혼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미혼'은 '결혼은 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반영된 언어 표현인데요, 그렇다면 이혼하거나 사별하거나 결혼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과거의 결혼 경험이 왜 지금 자신의 상태를 논하는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언어 표현에 이데올로기가 담겨 있는 거지요."

어제까지 괜찮던 표현도 오늘은 마음에 걸릴 수 있다. 그 표현이 담고 있는 과거의 생각에 더는 동의할 수 없는 까닭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언어 표현이 낡은 가치관을 담고 있다면, 과감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언어 표현을 공유해야 한다. 어떤 이들은 기존의 언어 표현을 바꾸려는 노력을 '프로 불편러'로 몰고 가며 폄하하기도 한다. 하지만 무심코 사용하는 언어 표현이 누군가를 차별하고 억압한다면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새로운 언어 표현을 고민해야 한다.

"언어 감수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언어 표현에 민감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 표현이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될 일이지요. 언어 감수성의 기준이 높아질수록 말에 배인 편견과 혐오, 고정관념이 점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 약속인 언어 표현이 바뀌려면 언어 감수성의 기준이 높은 이들이 늘어나야 한다. 어쩌면 변화는 생각보다 금세 찾아올 수 있다.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하루아침에 바뀌었듯이.*

문제를 자각했다면 언어의 높이뛰기를 하기 위해 언어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언어 표현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까닭이다. 그래서 신지영 교수는 조금 어렵고 번거롭더라도 용기 내 낡은 언어 표현에 문제를 제기한다.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고 미디어에 원고를 기고하거나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은 이를 알리고 전파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대중과 소통하기 위한 그의 다양한 시도들이 언어 감수성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우리 말을 아름답게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

* 국민학교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한국의 소학교를 강제로 바꿔 부르던 이름으로, 황국신민학교의 준말이었다. 광복 이후에도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 초등학교로 개칭했다.

「역사 속 숨은 영웅」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큰 의미를 남긴 교육자들의 흔적을 찾아서 그들의 헌신을 기리고 되새기는 코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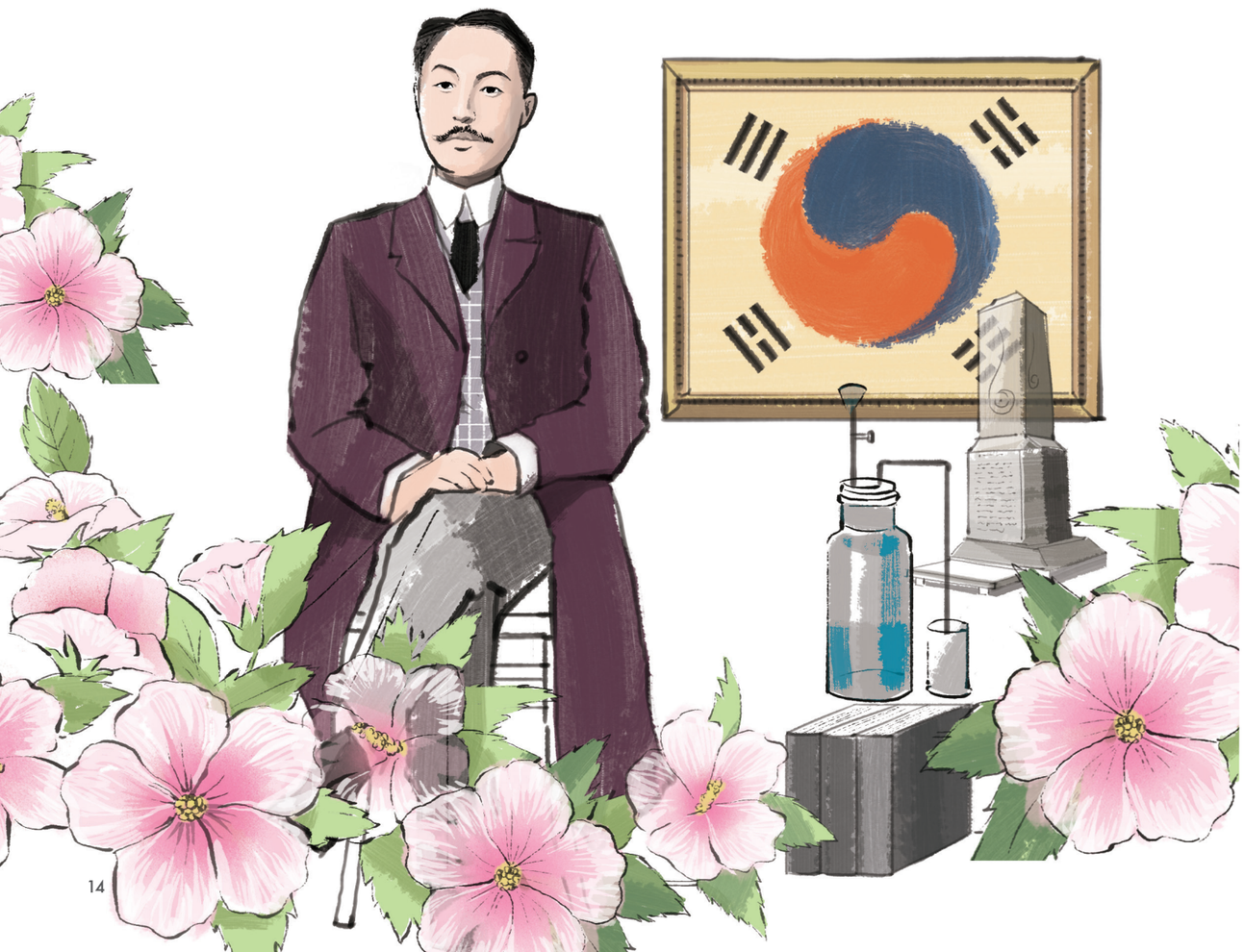
한국 근대 수학 교육의 아버지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특사, 이상설 선생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서양 수학의 방법론을 소개한 이들은 조선의 산학자들이다. 그중에서도 이상설 선생은 전통 산학과 서양 수학을 연결하고, 수학 과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선 정부의 첫 번째 수학 교과서라 할 수 있는 『산술신서』를 집필한 이가 바로 이상설 선생이다. 『산술신서』는 당시로서는 가장 근대적인 수학 교재로 평가 받고 있다. 흔히 이상설 선생은 독립운동가라고만 알고 있지만, 한국 근대 수학과 과학 교육을 개척한 진정한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 역시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글 이경훈 보라고등학교 역사 교사

이경훈 역사 교사는 보라고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한일 간 역사 갈등과 화해를 연구하면서 「쟁점 한일사」, 「마주 보는 한일사」(공저) 등을 출간했다.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체험캠프 지원교사, 한·중·일 3국 공동역사편찬위원회 위원 등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조선의 마지막 과거 급제자, 이상설 선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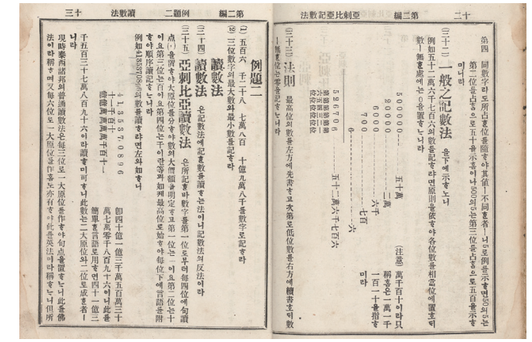
이상설 선생은 1870년 충북 진천 덕산에서 시골 선비 이행우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신동 소리를 들을 정도로 총명했기 때문에 7세 때 자식이 없던 친척 동부승지 이용우의 양자가 되어 서울로 상경하였다. 당시 함께 공부했던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 이시영은 그를 이렇게 회고했다. "이상설의 총명 탁월한 두뇌와 이해력에는 같은 학우들이 경탄을 금치 못했다. 그는 모든 분야의 학문을 거의 독학으로 득달하였는데, 하루는 논리학에 관한 어떤 문제를 반나절이나 풀려다가 (못 풀어서) 낮잠을 자게 되었는데, 꿈속에서 풀었다고 잠에 깨어서 기뻐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으로 전국이 어수선하던 때 조선의 마지막 과거(갑오문과)에 응시한 선생은 25세에 병과 2등으로 급제했고, 세자의 선생님인 세자시독관을 잠시 역임하였다. 이후 갑오개혁으로 중앙 관제가 개편되자 27세의 나이로 성균관 교수 겸 관장을 지내다가 한성사범학교 교관, 탁지부 재무관 등을 역임하였다.

근대 수학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다

이시영의 회고담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이상설 선생은 과거 급제 이전부터 당시 서울의 수재로 알려진 인물들과 함께 신학문을 공부하였다. 또 육영공원(1886년, 고종23년에 설립된 한국 최초의 근대적 명문귀족 공립 학교) 교사로 초빙되어 온 미국인 선교사 헐버트(H. B. Hulbert)와도 친분을 쌓으면서 영어·수학·물리·화학·국제법 등 근대 학문에 대한 깊은 식견을 갖게 되었다.

『수리(數理)』 표지
[출처 : 박영민 외 '수학자 이상설이 소개한 근대자연과학:「식물학」' 수학교육 제25집 제2호, 2011.]



『산술신서(算術新書)』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검색(공공누리)]

이상설 선생이 근대적 학문을 본격적으로 익히기 시작한 시기는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열기가 고조되고 민권사상이 널리 보급되던 무렵으로 보인다. 특히 선생은 수학과 법률에 큰 관심을 갖고 공부에 매진하였다. 이때 「수리(數理)」라는 수학책을 집필하였다. 「수리」는 청나라로부터 들어온 「수리정온(數理精蘊)」을 연구하여 전통 수학 개념에 서양 수학 내용을 더해 정리한 책이다. 이 밖에도 다양한 분야의 서양 자연과학 서적을 접하면서 독학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책을 남겼다. 서양 자연과학 서적의 중국어 번역본을 공부하고 일부를 정리한 「식물학(植物學)」, 「화학계몽초(化學啓夢抄)」, 일본 도쿄대학에서 번역한 물리학 서적을 참고하여 정리한 「백승호초(百勝胡艸)」 등은 이상설 선생이 자연과학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식견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훗날의 기록이지만 영국인 베델(E. T. Bethell)이 책임을 맡고 있던 「대한매일신보」 1905년 11월 24일 '찬(讚) 이참찬 기사'에서는 선생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이상설 씨는 대한에서 학문으로 최정상급이니, 일찍이 학문적 소양이 비길 바 없이 뛰어나서 동서 학문을 독파했는데, 성리 문장 외에 특히 정치·법률·수학 등의 학문이 부강의 발판이 되는 학문임을 일찍이 깨달았다."

1895년 고종은 「교육입국조서」를 발표하고 한성사범학교 관제, 외국어학교 관제, 성균관 관제, 소학교령을 공표하였다. 이상설 선생은 27세의 나이임에도 비상한 능력을 인정받아 새롭게 직제가 개편된 성균관의 교수 겸 관장에 임명되었다. 그는 그동안 관심을 갖고 공부해온 신학문의 식견을

바탕으로 성균관의 교육과정에 국내에서는 최초로 중등 과정에 서양 수학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였다.
당시 학부 편집국장 이규환은 그의 신학문과 수학에 대한 식견을 알아보고 「산술신서(算術新書)」 편찬을 부탁하였다. 「산술신서」는 일본에서 서양 수학책을 편집해 발행한 「근세산술(近世算術)」 상·중·하권을 이상설 선생이 한글로 번역하며 설명을 붙이고 새롭게 편집해 발간한 것이다. 이 책은 소학교용이 아니라 교사를 배출하는 한성사범학교에서 예비 교사 교육용으로 개발된 사범학교 및 중학교용 수학 교과서다. 당시 기준으로 적지 않은 1,000부를 발행하였고, 1908년에 수정판도 출간하였다. 이 책은 국한문 혼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해법 과정에서 가로쓰기를 지향하는 등 당시로써는 가장 근대적인 수학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제 침략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다

러·일전쟁이 한창이던 1904년 5월 일제는 조선 정부를 압박하여 '대한시설강령(對韓施設綱領)'을 체결하였다. 대한시설강령은 한국을 일본의 식량과 원료 공급지로 개편하고 일본인의 이민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으로 조선의 농업과 황무지 개간권 장악을 명시하고 있었다. 이상설 선생은 유생, 전직 관료들과 함께 황무지 개척권 요구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고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의 상소 이후 일제의 황무지 약탈을 저지하기 위한 단체로 '보안회'가 활동하였고,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등 언론도 대대적으로 일제의 불법행위를 규탄하는 여론을 형성하였다. 결국, 일제는 황무지 개척권 요구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고종은 이상설 선생의 활동을 눈여겨보고 1905년 11월 의정부 참찬(정2품 관직)에 발탁하였다. 러·일전쟁 후 을사늑약 체결을 위해 일제가 공작을 벌이던 때로, 선생은 조약 체결 저지에 온 힘을 쏟았다. 그러나 일본군이 가로막아 회의에 참석조차 할 수 없었기에 비통한 마음에 땅에 머리를 부딪혀 자결을 시도했으나 그를 에워싼 시민들에게 구원되었다. 을사늑약 체결 이후 그는 관직을 버리고 조약 파기를 위한 거국 항쟁을 전개하던 중 이회영, 이동녕 등과 논의 끝에 국외 망명을 결정하였다. 국외에서 신학문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으로 국권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서전서숙 옛터기념비
[출처 : KBS 다큐멘터리 '이상설 불꽃의 시간']

이상설 선생은 북간도 중에서도 조선인이 많이 거주하던 연길현 용정촌에 들어가 1906년 8월 항일 근대 민족교육의 요람인 '서전서숙'을 설립하였다. 학교 부지와 건물 매입은 충북 진천의 자기 소유 전답과 서울의 재산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충당하였다. 서전서숙은 중학교와 소학교 과정의 신학문을 교육하면서 학생들에게 근대 의식과 민족 독립사상을 가르쳤다. 선생은 서전서숙의 숙장(교장)을 맡아 직접 수학을 가르쳤다.
고종은 1907년 4월 비밀리에 이상설 선생에게 특사 파견 밀지를 내렸다. 선생이 특사의 정사(正使)였고, 이준*과 이위종은 부사(副使)였다. 1907년 6월 세 특사는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만국평화회의 의장인 러시아 수석 대표 넬리도프 백작을 비롯하여 미국과 프랑스, 독일 위원 등을 만나 회의 참석을 위한 협조를 구하고 일제 침략의 부당성을 밝히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때 이상설 선생은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고사(控告詞)」를 작성하여 각국 위원에게 발송하였다.
"만국평화회의의 대표 자격으로 ··· 우리나라의 독립이 여러 나라에 의해 보장되고 승인되었음을 각국 대표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저는 의정부 참찬으로 국제법을 무시하고 외교 관계를 강제로 단절하고자 한 일본의 음모를 목도하였습니다. ··· 대한제국과 우방국과의 단절은 결단코 대한제국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대표 여러분의 호의적 중재를 간청하면서 여러분에게 공고하는 바입니다."
특사들의 회의 참석은 이미 강대국으로 성장한 일제의 방해 공작과 열강의 외교적 외면으로 좌절되었다. 그러나 만국평화회의 기간 특사들의 활동은 각국 대표의 수행원들과 이름난 언론인, 기자단들이 모두 참여하는 신문기자단 국제협회에 조선의 현실과 일제의 부당한 침략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 「The-K 매거진」 2020년 7월호 '교과서에 없는 역사 이야기' 수록

눈 감는 날까지 조국의 독립을 갈망하던 애국지사의 삶

이상설 선생은 1909년 4월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갔다. 선생이 이곳으로 온 것은 중국과 조선, 러시아의 접경지대이면서 북간도와 함께 의병 활동이 활발하여 독립운동 기지의 최적지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상설 선생은 이곳을 중심으로 의병 조직인 '십삼도의군', 항일단체인 '성명회'를 조직하여 본격적인 독립운동에 나섰다. 이후 일제의 방해로 조직이 해산되자 1911년 '권업회' 창설을 주도하였다. 권업회는 표면적으로 상공업 등의 실업 활동을 권장하면서 민족교육과 한인 사회의 정치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활동을 내세웠지만, 독립전쟁을 전개하기 위한 광복군 양성을 목적에 둔 단체였다.
1914년 러시아가 일제와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자 연해주의 독립운동가들은 권업회를 중심으로 한인들의 민족의식을 높이고 광복군의 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광복군 정부'를 수립하였다. 대한광복군 정부는 연해주를 비롯한 북간도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국외에서 최초로 수립한 망명정부였다. 이상설 선생은 망명정부의 정도령(正都領)으로 선출되어 대한광복군 정부를 운영하는 실질적 책임자로 활동하였다.
1914년 7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러시아는 일본과 동맹을 맺고 연해주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던 조선인 주요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추방하였다. 이로써 대한광복군 정부는 치명적 타격을 입고 사실상 해체되고 말았다. 선생은 1915년 중국 상하이로 이동하여 '신한혁명당'을 창설, 고종의 망명을 통한 망명 정부 수립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연이은 독립운동으로 병석에 눕게 되고, 1916년 초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동지들은 합세하여 조국광복을 기필코 이룩하라. 나는 조국광복을 이루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니 어찌 고혼인들 조국에 돌아갈 수 있으랴. 내 몸과 유품은 모두 불태우고 그 재도 바다에 날린 후 제사도 지내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고 순국하였다.

근대 교육과 국외 독립운동의 선구자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 의거 이전 연해주 조선인들과 만나 자신의 국권 회복 활동과 동양 평화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때 이상설 선생을 여러 차례 만나기도 하였다. 의거 이후 안중근 의사의 재판 기록을 보면 그가 이상설 선생을 평가한 기록이 여러 번 등장한다.
"이상설은 재사(才士)이며 법률에 밝고 수학에 통달하며 영어·프랑스어·일어에 능통하다. 세계 대세에 능통해 동양의 시국을 간파하고 있었다. 애국심이 강해 교육 발달을 도모하고 국가 백년대계를 세우는 자는 이 사람일 것이다. 또 동양 평화주의를 가지는 데 이 사람과 같은 친절한 마음을 가진 자는 드물다."
헤이그 특사로서의 이상설, 대한광복군 정부의 대표 이상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이상설 선생은 조선 말부터 일제강점기 초기까지 한반도와 연해주, 중국을 넘나들며 전방위적으로 국권 회복을 위해 활동한 독립운동가로서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신학문을 수용하고, 근대 수학 교육을 정착시킨 교육자이기도 했다.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정부는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상을 추서했다. 이제 이상설을 진정한 독립운동가로 평가할 때 세계 대세를 간파하고 국가 백년대계를 염두에 둔 뒤 근대 수학 교육을 도입한 개척자로서의 모습도 새롭게 조명해야 할 것이다. ⓚ

이상설 선생 유허비
(러시아 우수리스크)
[출처 :
세계한민족문화대전
홈페이지]

교사 출신 김완기 사진작가가 소장한 1960~1970년대 전후 추억의 학교 사진을 만나보는 「우리 어렸을 적에」 코너를 통해 향수 어린 그 시절 학교로 함께 세대공감 여행을 떠나 보아요.

눈물과 뜨거운 박수, 그 시절 졸업식

2월이면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졸업식 노래를 들으며 눈물 글썽거리던 초등학교 졸업식의 추억이 떠오른다. 졸업생과 재학생, 꽃다발을 든 학부모가 운동장에 모여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진지하게 축하해주었다. 재학생과 졸업생 대표가 며칠간 준비한 송사와 답사를 읽어 내려가면 뜨거운 박수와 아쉬운 눈물로 졸업식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곤 했다.

교실이나 실내 강당에서 모니터를 보며 졸업식을 진행하고, 학생들이 직접 만든 졸업 영상을 함께 감상하는 요즈음의 졸업식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학생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계기이자 하나의 축제였던 그 시절 졸업식이 그리워지는 졸업의 계절이다. ⓚ

글 / 사진 김완기 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작가(前 성북교육청 교육장)

졸업식장 (1972)
졸업생과 재학생, 학부모와 내빈을 모시고 정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초등학교 졸업식 현장.

졸업장 수여 (1972)
졸업생 대표가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졸업장을 받고 있다.

특별상(표창장) 수상 (1971)
한 학생이 모범이 되거나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주는 표창장을 받고 자리에 앉아 있다.

재학생 송사 (1972)
5학년 재학생 대표가 선배들의 졸업과 진학을 축하하는 송사를 하고 있다.

졸업생 답사 (1972)
전교 어린이회장이 졸업생을 대표해 후배들에게 답사를 하고 있다.

회원 여러분의 '어렸을 적 추억'을 담아드립니다.

「The-K 매거진」은 회원 여러분의 학창 시절 추억을 모두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초·중·고등학교 또는 대학 시절의 즐거웠던 순간이 담긴 사진을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해서 메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진도 「우리 어렸을 적에」 지면에 담아 많은 회원님과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thekmagazine@ktcu.or.kr)

소중한 회원 의견을 바탕으로 기획된 「이렇게 바꿔요」는 일상생활에서 잘못 쓰는 우리말을 살펴보고 올바른 우리말로 바로잡고자 연재하는 코너입니다.

바른 올림말로 인사 나누기

"사람은 인사성이 밝아야 한다." 어릴 때 많이 들었던 말이다. 인사성은 '예의 바르게 인사를 차리는 성질이나 품성'을 뜻한다. 주로 '인사성이 밝다', '인사성이 없다', '인사성이 바르다'로 쓰여 사람을 판단하곤 한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친절과 인사만 잘해도 세계 최고가 된다」는 책도 있을 만큼 인사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언어 예절에서 기본이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고 있는 "수고하세요", "건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같은 인사말에 대해 살펴본다.

글 이승훈 동아일보 어문연구팀 부장

윗사람에겐 삼가야 할 말 "수고하세요"

직장에서 선배나 동료보다 먼저 퇴근할 때 무심코 "수고하세요"라고 한 적이 더러 있다. "수고하세요"라고 한 뒤 뒤돌아 나올 때면 '아차, 또 실수했네'라는 생각에 미안스러웠다. '수고'란 '일을 하느라고 힘을 들이고 애를 씀'을 이르는 말이어서 자기보다 윗사람에게 "수고하세요", "수고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계속 일하는 데 힘쓰세요"라고 명령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윗사람에게 "수고했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평가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에 삼가야 할 말이다. "고생하세요", "고생 많습니다"처럼 쓰는 '고생'도 마찬가지다. 윗사람에게 부탁할 땐 "잘 부탁드립니다", 윗사람이 한 일을 축하드릴 땐 "역시 ○○님이십니다", "○○님, 멋지십니다(대단하십니다)"로 하면 적절할 듯싶다. 직장에서 윗사람보다 먼저 퇴근할 땐 "(저) 먼저 가겠습니다",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보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라고 하면 된다. 남은 사람들은 먼저 퇴근하는 동기나 아랫사람에겐 "잘 들어가", "수고했어(수고 많았어)"를, 윗사람에겐 "안녕히 가세요(가십시오)", "잘 들어가세요(들어가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사말이다.

"건강하세요"보다 "건강하시길 빕니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나 세배나 큰절을 드릴 때, 집안 어른이나 직장 상사, 윗사람이나 선배에게 인사할 때 "건강하세요(건강하십시오)"나 "행복하세요(행복하십시오)"라는 말을 많이 한다. '건강하다'와 '행복하다'는 형용사여서 명령형이나 청유형 어미와 결합할 수 없으므로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라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시는 분도 많다. '예쁘다'라는 형용사를 "예쁘거라", "예쁘자"처럼 쓰면 어색한 표현이 되듯 '건강하다'와 '행복하다'도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립국어원은 "명령이나 권유를 나타내는 '-(으)세요', '-(으)십시오'는 동사와만 결합한다고 보지만 '행복하다', '건강하다' 등의 형용사와 예외적으로 쓸 수 있다고 답했다. 사람들이 바람을 나타내는 인사말로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를 많이 쓰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인 듯하다. 하지만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라고 인사하기보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길 빕니다(바랍니다/기원합니다)"나 "(날마다/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공손하고 자연스러운 인사말이다.

'식사' 말고 '진지'나 '아침·점심·저녁'

세종대왕은 "밥은 백성의 하늘이다"라고 하셨고, 시인 김지하도 "밥은 하늘이다"라고 읊었다. 소설가 김훈은 「밥벌이의 지겨움」에서 "우리들의 목표는 끝끝내 밥벌이가 아님을 잊지 말고, 거리로 나가서 꾸역꾸역 밥을 벌자"라고 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의 가짓수는 맨밥·밥·메밥·찰밥·고봉밥·감투밥 등 수백 가지에 이른다. 밥의 높임말은 '진지'이고, '아침·점심·저녁'에도 끼니라는 뜻이 들어 있다. 요즈음 젊은이들은 '맛점', '맛저'라는 준말을 많이 쓰며, 기성세대는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식사하세요"처럼 '식사(食事)'라는 말을 흔히 쓴다. 그런데 이 식사라는 말은 '쇼쿠지(しょくじ)'로 읽는 일본식 한자어다. 광복 후 일본군 출신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널리 퍼뜨린 말인데 요즘은 일식집 이름에도 '쇼쿠지 이자카야', '우마이 쇼쿠지', '쇼쿠지 ○○점'처럼 심심찮게 보인다. '식사'의 국어사전 뜻풀이를 보면 '끼니로 음식을 먹음. 또는 그 음식'이라고 나온다. 높임말이 아니다. 한자를 풀이해도 식사는 '먹는 일', "식사하세요"는 "먹는 일 하세요"가 돼 영 어색하다. 그래서 끼니때 직장 상사나 어른들에게 "식사 맛있게 하세요" 같은 말 대신 우리 선조들이 대대로 써온 '진지'나 '아침·점심·저녁'에 '먹다'의 높임말인 '잡수다', '들다(드세요)'를 곁들여 "진지(아침) 드셨습니까",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라고 하는 게 정감도 묻어나고, 공손함도 잘 전해질 듯하다. ⓚ

분야별 석학들을 만나 학교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칼럼 「오늘의 학교」입니다.
교육에 대한 새로운 발상,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심도 있는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가면'을 벗고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컬럼비아대학교 버나드칼리지 심리학과 리사 손 교수

시험 날 아침, 교실 안에는 이러한 대화가 오간다. "나 어제 공부 하나도 못 했어." "너도? 나도 잠들어버렸는데, 어떡하지?"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노력을 숨겨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럼 시험 결과가 좋으면 '공부를 안 해도 시험을 잘 보는 천재'로 보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공부를 안 해서 시험을 못 본 것'으로 자신을 포장할 수 있다. 이처럼 아이들은 '노력한 나'도, '노력하지 않은 나'도 가면 속에 숨긴다. 그리고 가면 속에서 어른이 된다. 이제 가면을 벗을 시간이다. 메타인지(meta認知) 전문가 리사 손 교수가 우리에게 가면 벗는 법을 알려준다.

글 이성미 / **사진** 이용기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리사 손 교수의 '가면 증후군' 이야기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메타인지 학습 방법'을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 모든 인터뷰 및 사진 촬영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진행했습니다.

가면 속 아이들은 늘 불안하다

리사 손 교수가 가면 증후군에 대한 책 「임포스터」를 출간했다. 「메타인지 학습법」 출간 후 2년 6개월여 만이다. 2019년 그가 한국에서 방문 교수로 지내면서 쓴 「메타인지 학습법」은 속도와 결과만을 좇는 한국 부모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리고 마음의 힘이 강한 아이, 행복한 아이로 자라게 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했다.

2022년, 리사 손 교수가 이번에는 '임포스터(impostor)'를 이야기한다. 임포스터란, 직역하면 '사기꾼', '남을 사칭하는 사람'으로, 심리학에서 자신의 성공을 노력이 아니라 운으로 얻은 것이라고 믿고 사람들을 속여왔다고 생각하면서 불안해하는 현상인 '가면 증후군'을 말한다. 가면 증후군에 빠진 사람은 자기의 노력과 성공을 낮추며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힌다.

한국에서는 '겸손은 미덕'이라는 말로 가면 쓰기를 문제 삼지 않는다. 경쟁적이고 결과 지향적인 사회 분위기도 가면 쓰기를 부추긴다. 어릴 때부터 가면을 쓴 부모는 자신과 같은 가면을 아이들에게 물려준다. 리사 손 교수가 이런 현상을 우려하면서 "가면을 벗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가면 증후군이 다양한 부작용을 낳기 때문이다.

첫째, 고립감이다. 가면을 쓴 사람은 진짜 내 모습을 들킬 수 있다는 불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진짜 내가 아니라는 자기 부정 때문에 점점 고립감에 시달린다. 어려운 일이 닥쳐도 타인에게 도움을 청할 용기조차 내지 못한다. 사람은 타인과 계속 관계를 맺고 뒤엉켜 살아야 하는 사회적 동물임에도 점점 가면 속에서 혼자가 된다.

둘째, 포기다. 가면을 쓴 사람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남 앞에 무언가 해내 보이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 타인에게 완벽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실수할 상황을 완벽히 차단하는 것이다. "이것 좀 해볼까?" 하는 제안에 번번이 "아니야, 못 해"라고 거부하는 아이가 있다면, 단순히 겁이 많은 것이 아닌 가면 증후군일 수 있다. 매사에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는 아이도 안심할 수 없다. 마음이 건강한 아이는 진짜 내 생각을 말할 줄 알아야 한다.

「임포스터」는 나와 당신의 이야기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인정받는 사람도 가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리사 손 교수 역시 메타인지 권위자이지만 저서 「임포스터」에 대해 '고백록'이라고 말할 정도로 수많은 가면을 쓰며 살아왔다.

"가면은 단 하나만 존재하지 않아요. 천재인 척하는 가면, 타고난 척하는 가면, 겸손한 척하는 가면, 완벽한 아내이자 딸, 며느리, 교수인 척하는 가면 등 저 역시 '척'하는 가면을 계속 쓰고 벗으며 살아왔습니다. 실제로는 완벽하지 않은데 말이죠. 그리고 완벽하지 않은 내 모습을 들킬까 봐 불안해했어요. 이 책을 쓰면서 저도 가면 벗는 연습을 했고, 불안으로부터 조금은 해방된 것 같습니다."

리사 손 교수는 "내가 성장해온 환경은 가면 쓰기에 좋은 환경이었다"라고 회고한다. 미국에서 한국인으로 사는 내내 그는 '영어를 잘하는 척'해야 했고, '이해하는 척'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라고 스스로 다그쳐왔다. 완벽해 보이는 데 성공했고 바라던 대로 심리학과 교수가 되었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왜 그럴까?" 물어도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가면 쓰기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탓이었다. 그러나 메타인지를 연구하면서 리사 손 교수는 비로소 자신의 가면을 알아차렸다. 자신처럼 가면 속에서 불안하게 사는 사람들도 보였다. 가면 속에 사는 두 자녀가 보이고, 학생들이 보이고, 한국 아이와 부모들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다시 펜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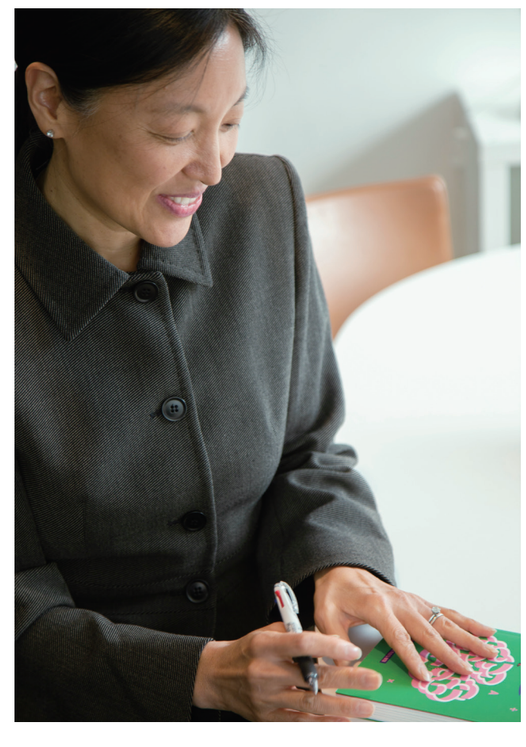
실수해도 괜찮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리사 손 교수는 가면 증후군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메타인지'를 제안한다. 메타인지란, 쉽게 말해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다. 나아가 메타인지 학습법이란, 내가 잘 이해하는지

부모특강-0.1%의 비밀 출연 모습 [출처: EBSCulture 공식유튜브]

못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공부해나갈 방향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메타인지적 학습은 가면을 벗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이의 가면을 벗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가면 속 진짜 자신의 모습을 일부러 들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나와 마주하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시험 전에 셀프 테스트를 하거나, 예고 없이 시험 방법을 바꾸면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실력을 들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본모습을 들키는 것을 더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과정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결과만을 보고 '넌 타고났어', '넌 천재야'라고 칭찬하기보다는 결과에 이르기까지 겪은 실패와 성공에 대해서도 인정해주는 것이죠. 앞서 말한 셀프 테스트를 치르고 나서도 결과에 대해 엄격하게 다그칠 필요 없어요. 잘한 것에 대해서는 '어려운 걸 잘 해냈구나', '나는 네가 열심히 했다는 걸 알아. 우리



더 노력해보자'라고 이야기하고, 틀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틀리지 않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너는 무엇을 더 배우고 싶니?' 묻고 개선해나가는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아이에게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세요. '과정이 중요하다', '과정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이들에게 "네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 더불어 아이들의 가면을 벗기기 위해선 어른이 먼저 가면을 벗어야 한다. 자신이 임포스터인지 점검해보는 것이 먼저다. 가장 쉬운 방법은 '불안감'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나의 모습이 자연스러운지 점검하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나 역시 실수를 한다"라고 고백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어른이 먼저 민낯을 드러내고 "완벽해야 한다"라는 분위기를 깰 때, 비로소 아이들도 가면을 벗을 수 있다.

"가면을 무조건 다 벗어던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메타인지를 통해 자신이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지, 나의 본모습은 어떠한지를 정확히 알고, 필요할 때 가면을 벗어 던질 줄 알아야 합니다. 힘든 것에 '힘들다'라고 말하세요. 동의하지 않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세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신을 믿으세요. 자신이 먼저 행복한 어른이 되고, 그다음 아이를 '과정'과 '노력'에 의미를 둘 줄 아는 건강한 어른으로 키워주세요. 당장은 완벽하지 않다고 불안해할 수도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배울 것이 남아 있는 학생입니다." Ⓚ

우리의 미래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제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를 겪으며 혁신적으로 변화 중인 우리 교육의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코너를 통해 함께 고민해 봅니다.

인공지능(AI) 교육이 가져야 할 '인간다움의 순간'

먼 미래의 기술로만 생각하던 인공지능이 이제는 학교 울타리 안에서도 배우기 시작한 필수 과목이 됐다. '주판알'을 튕기며 산수를 배운 세대로서는 그야말로 '상전벽해(桑田碧海)'라는 말을 실감한다.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이 벌어진 2016년에 이어 요즘엔 자율주행 자동차가 대세로 떠오르며 인공지능 등 첨단 교과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미 여러 대학들은 학문과 산업 수요에 발맞춰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라는 미래 지식에 관한 '큰 그림'을 그려왔다. 이제 곧 초·중·고 교실로 들어올 AI 수업에는 기술적 준비는 물론이고 아직 정체성이 자리 잡지 않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윤리적·도덕적 가치 전달과 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 AI 교육 현장에서 마주할지 모를 비인간성과 관련한 문제점을 예측해보고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AI 교육에 대해 함께 고민해본다.

글 김지윤 한겨레 '함께하는 교육' 기자

생활 속으로 들어온 AI, 이제는 학교 교육 차례

AI 기술을 활용해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사례는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다. 상품을 추천하는 쇼핑몰, 말을 알아듣는 챗봇, 운전을 도와주는 자율주행차 등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그 활용 분야는 산업 전반, 인류의 삶 전체로 확대되고 있고, 이 모든 기술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사람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결국 학교 교육의 AI 활용은 예정된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컴퓨터는 사용자가 내린 명령만 수행하는 능력만 있다면 AI가 접목된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보다 복잡하고 빠른 연산이 가능해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것까지 찾을 수 있는 만큼 AI를 실제 학습에 적용한다면 학습 수준은 지금보다 더욱 높아질 수 있다.

AI 교육은 AI를 활용한 기반 교육과 AI 자체를 배우는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생들이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 어떤 과목과 분야를 잘하는지를 AI가 분석하고 맞춤형으로 교육하는 교사의 보조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AI 기반 교육이라면, 미래 AI 시대를 주도할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데이터·코딩·알고리즘 프로그램을 배우는 AI 교육이 있다.

현실 교육과정에 반영되는 'AI 교육'

2025년부터 초·중·고 새 교육과정에 AI 교육이 정식 도입된다. 정부는 현재 일부 학교 단위에서 시범 단계에 머물러 있는 AI 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학교 정규 교과목으로 공식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수학과 인공지능'이라는 교과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개발해 올해 1학기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적용한다. 'AI 기초', 'AI 수학' 같은 과목이 아이들의 정규 시간표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초·중·고 수업의 AI 교육 확대를 위해 관련 학습 자료를 개발했다. 유치원에서부터 놀이를 통한 AI 교육이 진행되고, 초·중·고교에는 2025년부터 적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AI 교육을 도입해 안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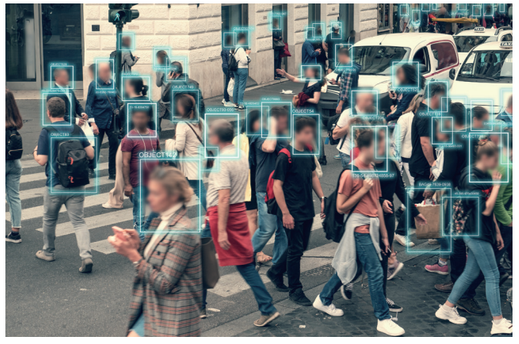
정부는 효과적인 AI 교육을 위해 5년간 5,000여 명의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AI 융합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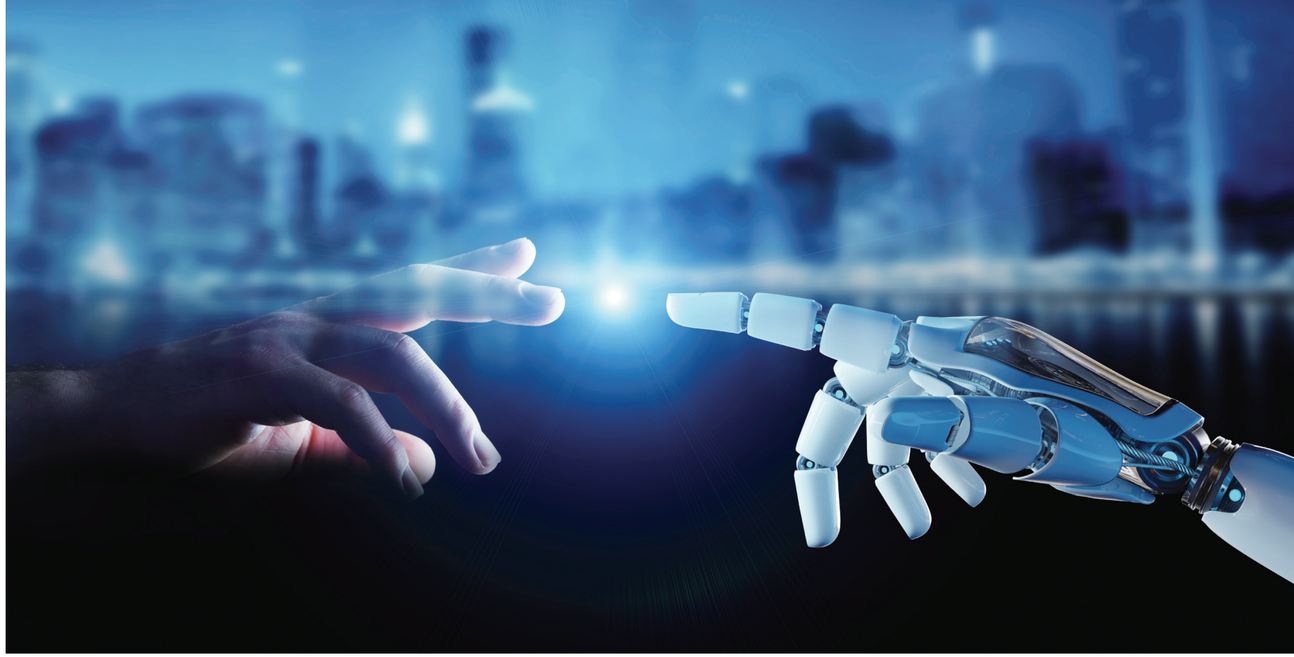
이에 교육 현장에서는 걱정부터 앞서는 게 사실이다. AI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공교육 현장에서 '놓친 아이들'이 많은 현 상황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급격하게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느라 교사들이 밤낮없이 공을 들이고 있는데, AI 교육까지 챙기려면 기술 정보 취득은 물론 실질적 교육에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교사가 수업에만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 예상된다. 쏟아지는 관련 공문과 처리해야 할 행정 업무는 또 얼마나 많겠는가.
또 AI 교육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무엇보다 사고력과 디지털 문해력,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부터 키워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AI를 단순 기술로만 활용하지 않고 문제 해결력을 키우기 위한 '멀티 교육'으로 확장하려면 읽고 쓰고 이해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교육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편견과 혐오를 배운 AI의 역습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최근 몇 년간 각 교육업체의 TV 광고를 통해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유명 연예인이 'AI 교육'을 말하며 '학습 격차'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당장 아이의 온라인 수업을 위해 필요한 태블릿 PC조차 없는 가정도 있을텐데 조금은 잔인한 광고라는 생각도 든다. 어찌 되었든 현재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수많은 교육 프로그램과 앱, 게임 대부분이 AI와 연결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난해 우리 사회가 '인공지능 윤리'에 관해 더욱 주목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 글로벌 AI 기업이 출시한 'AI 챗봇'이 인종차별, 장애인 혐오 발언 등을 하면서 AI 기술의 윤리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이 AI의 편향성,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AI 챗봇이 사용자와의 대화 중 장애인, 임산부, 흑인, 성소수자와 관련한 혐오 발언, 편향적 발언 등을 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전창배 이사장은 "AI 챗봇이 인간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뛰어난 대화 능력을 보여주었고, 사용자들은 이러한 AI와 대화하면서 부지불식간에 AI를 인간으로 감정이입을 하고 의식하게 된다"며 "특히 AI의 인간 유사성 정도가 뛰어날수록 해당 AI는 사고와 말, 행동 등 모든 면이 인간보다 완벽하다고 받아들여진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완벽한 존재'가 혐오와 차별, 편향성 발언을 하면 사용자들은 그런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은 그런 영향에 더욱더 쉽게 노출된다. 인간이 AI에 편견과 혐오를 가르친다면 그렇게 학습한 AI가 다시 사람에게 편견과 혐오, 편향을 심어주는 악순환에 빠진다는 이야기다.
전 이사장은 "편향성 문제는 AI의 악용 문제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AI 윤리 문제"라며 "2015년에 구글포토 서비스에서 흑인 여성 사진을 고릴라로 인식한 사건은 유명하다. 이 사건은 AI의 안면 인식 오류율





차이 때문인데 인종별, 성별 안면 인식 오류율에서 백인 남성 1%, 백인 여성 7%, 흑인 남성 12%, 흑인 여성 35%로 큰 차이를 보인다"라고 말했다. AI의 안면 인식 오류율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전 세계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사진 데이터의 양에서 인종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AI가 윤리적으로 편향을 갖지 않으려면 그만큼 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야 하는데 성별과 빈곤의 문제, 태어난 국가와 가정 형편 등에 따라 첨단 기술을 접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AI에게 학습받을 권리'조차 없어진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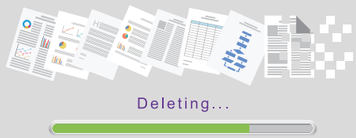
기술력 못지않게 중요한 철학을 담은 AI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학습이 확대되면서 원격 교육을 포함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했다. 디지털 전환의 중심에는 AI 교육이 있다. AI 프로그램을 탑재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고 다루는 능력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기기로부터 얻은 지식과 정보를 아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소화하고 처리할 것인지가 진정한 '디지털 시민성'이다.
경인교대 미디어리터러시연구소 정현선 교수는 "철학이 부재한 기술 편향적 AI 교육은 매우 위험하고 실효성도 없다"라고 말했다. 초연결성, 가상 물리 시스템, 빅데이터 등이 만들어내는 지능정보사회의 핵심 의제는 다른 무엇보다도 '시민성 교육'이 기반이 돼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론 없이 기술력 자체에만 집중한 편향적 AI 교육은 아이들에게 외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AI라는 기술 자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기술의 앞뒤 맥락을 파악하면서 모든 시민사회 구성원에게 공정한 기술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까지가 진정한 AI 교육의 본질이다.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은 AI 기술 자체이기도 하지만, 그 기술을 이용해 삶을 살아가는 '시민성'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진숙 작가의 「인간다움의 순간들 : 흔들리는 삶이 그림이 될 때」라는 책에는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예술가와 작품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르네상스 시기에 나타난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개인의 모습을 그린 '초상화'의 등장이라고 한다. 초상화를 통해 중세 종교 공동체와 자신을 온전히 분리해 '나', '개인', '독자적 존재'에 관한 인식을 비로소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신이 있는 하늘만 바라보던 이름조차 없는 한 인간이,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두 눈으로 직시하며 화폭에 담아낸 것이 바로 초상화다.
모두가 AI 기술이라는 '하늘'만 바라보는 이때, 'AI 윤리'라는 인간적 성찰에 관심을 두고 눈을 떠야 하지 않을까? 미래 세대를 위한 AI 교육 자체를 직시했을 때, 우리가 그려야 하는 '초상화'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때다. ⓚ

제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진로와 직업의 세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래 잡(job)자」는 직업 교육 전문가를 통해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 사회의 직업들을 살펴보고자 마련된 코너입니다.

잊고 싶은 온라인상 기억을 지워드립니다!

디지털 장의사



인터넷과 SNS는 전 세계인들을 연결하며 새로운 세상을 열고 무한한 정보와 성공의 기회를 주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이 소통의 세상은 악몽 그 자체이다. 자신의 개인 신상이나 감추고 싶은 과거의 영상이나 이미지, 글들이 인터넷상에서 마구 돌아다녀 고통받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SNS 채널에서 자신에게 가하는 비판이나 비난으로 상처 입은 사람도 늘고 있다. 이들은 이런 끔찍한 기록이나 기억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완벽한 삭제란 불가능에 가깝다. 이들을 위해 등장한 것이 인터넷상의 개인의 기록을 지워주는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이다.

글 한상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인터넷 공간에서 잊힐 권리

개인뿐 아니라 기업도 인터넷 기록을 삭제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기업은 회사에 대한 좋은 평판을 유지해야 하는데 사실과 거리가 먼 정보가 유통될 경우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기록이나 정보를 삭제하려고 한다. 기업은 개인 못지않게 디지털 장의사의 주요 고객이다.

온라인상 기록 삭제 여부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슈다. 2014년 EU 사법재판소는 검색 서비스의 링크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잊힐 권리'를 인정한 바 있다. 잊힐 권리는 인터넷을 비롯한 온라인상에서 자신과 관련한 정보의 삭제나 배포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온라인상 기록이나 정보를 삭제하는 일이 하나의 업으로 등장한 것은 본래 고인의 기록을 지우기 위한 것이었다. 2010년대 초 미국에서는 고인의 흔적을 지우는 전문 회사가 출현하였다. '잊힐 권리'와 '디지털 유언'이라는 이슈를 촉발시킨 최초의 사이트인 라이프인슈어드 닷컴은 온라인 상조회사를 표방하면서 살아생전 기록을 삭제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위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고인 계정으로 올라간 블로그나 SNS의 글을 지우는 일을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디지털 장의사를 표방하면서 활동하는 여러 회사가 등장하였다. 디지털 장의사의 서비스를 원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위해 인터넷 게시물, 사진과 동영상, SNS 계정 등의 삭제 업무를 하고 있다.

절망한 피해자들의 인격을 찾아주는 디지털 정보 전문가

디지털 장의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개인이 원하지 않는 인터넷 기록 및 정보를 삭제 또는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일을 한다. 정보 삭제를 원하는 고객을 위해 인터넷이나 SNS상에 기록된 정보를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자신과 관련한 정보를 삭제하기를 원하는 고객을 만나 상담을 하고 고객의 어려움과 정보의 유출 경위 등을 파악한다. 데이터 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해 온라인에 유출된 정보를 찾는다. 삭제할 정보 목록을 작성하고 해당 사이트의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한다. 삭제 여부를 확인하고 고객에게 알려준다. 이후 삭제된 정보가 다시 나타나지 않는지 지속해서 모니터링한다.

<디지털 기록 삭제 과정>

단계	내용
1. 상담	디지털 기록의 삭제를 원하는 고객과 상담
2. 데이터 수집	데이터 검색 프로그램으로 삭제 대상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
3. 게시물 분류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삭제 대상 정보 선별
4. 삭제 요청	해당 사이트에 디지털 기록 삭제 요청
5. 모니터링	삭제 완료 여부를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자료: 디지털 장의사 김호진 (산타크루즈컴퍼니 대표)의 인터뷰 자료 재구성

디지털 장의사는 최근에 등장한 직업으로 정해진 교육과정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온라인상 정보를 다루는 업무인 만큼 인터넷 서비스, 프로그래밍,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법과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활용해야 하는 직업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법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도움을 요청하는 개인은 특정 사이트에만 자신의 정보가 노출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분석을 하면 여러 사이트에 같은 내용이 올라간 경우가 적지 않다.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정보수집이 필요하기에 끈기와 인내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개인의 권리 지키고 선한 영향력 전파

디지털 장의사의 일은 앞으로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한국인의 인터넷 이용률은 91.9%(2020년 기준)에 달한다.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하는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이나 온라인상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다. 기업이나 기관에서도 온라인상 기록 삭제에 관심이 많고, 회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비방이 포함된 정보나 기록을 삭제하려는 회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상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강화하려는 제도적 움직임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EU처럼 잊힐 권리를 명시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개인의 권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정한 사람에게 해를 줄 수 있는 정보의 삭제와 검색 배제 등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안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변화하는 환경과 관련 제도의 강화로 앞으로 디지털 장의사의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 직업이 가진 특별한 의미는 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이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디지털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다는 점이다. ⓚ

「꿈 너머 꿈」은 현업 활동과 더불어 또 다른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열정 넘치는 회원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코너입니다.

목재의 감수성으로 '참교육'을 꿈꾸다

연천 대광중학교 **최창민** 기술교사

나무의 향기, 목재의 질감, 나무와 목재에 대한 정서…. 최창민 교사는 목재 특유의 감수성이 아이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라 믿는다. 오감으로 나무를 체험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이 목재 교육이기 때문이다. 전국창의목공교사모임을 꾸리고 '따로 또 같이' 활동해온 지 올해로 10년. 목재를 소재로 '참교육'을 꿈꾸는 최창민 교사를 만났다.

글 박현채 / **사진** 이용기

※ 모든 인터뷰 및 사진 촬영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진행했습니다.

목공으로 키우는 문제 해결 능력

'사랑방'이 따로 없다. 연천 대광중학교 3층에 자리한 창의공학실. 목공 수업 시간이 아니라도 이 공간엔 온종일 많은 사람이 드나든다. 학원에 가기 전까지 목공 작업을 하겠다는 학생, 나무로 된 펜이며 도마를 손수 만들고 싶어 하는 교사, 학부모 워크숍에 참여하려고 왔다가 목공의 매력에 빠진 학부모까지 수시로 드나들며 목재를 다듬는다. 최창민 교사는 모두에게 열린 이 공간의 호스트다. 이곳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약간의 도움을 줄 뿐, 각자 스스로 제품을 완성하며 저마다의 성취감을 누리고 간다.

"오늘이 대광중학교에서의 마지막 날이에요. 지난 3년간 목공을 매개로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이 공간에서 서로 따뜻이 어울렸어요. 오는 3월부터는 일산 목암중학교에서 근무합니다. 그 학교에 가서도 목재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갈 생각이에요."

그는 학교 현장에 목공 교육이 필요한 이유로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가장 먼저 꼽는다.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대로 제품을 만들어가다 보면 그 설계도에 오류가 있었음을 직면하게 되고, 그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발휘되는 까닭이다. 예컨대 나무 두께나 나뭇결 따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설계도를 그리는 것은 학생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다. 그 실수를 깨닫는 건 실제로 작업을 해나가면서다. 자신의 설계나 치수가 잘못됐음을 깨닫고 차근차근 다시 디자인해나가는 과정. 최창민 교사는 그 과정을 모두 기록하게 한다. 제품의 완성도보다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이 목공 교육의 '진수'이기 때문이다.

"목공을 하다 보면 공간지각 능력과 수학적 계산 능력이 자연스레 향상돼요. 설계한 것을 실제화하는 능력도, 끝까지 해내는 지구력도 저절로 좋아지고요. 진로 탐색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제품의 기획부터 디자인, 홍보,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해보면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일에 잘 맞는지 저절로 깨닫게 되니까요."

목재의 감수성으로 아이들의 변화를 이끌다

그게 끝이 아니다. 최창민 교사는 목공 교육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은 목재 특유의 '감수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나무의 향기, 색깔, 나무와 목재에 대한 정서…. 오감을 자극하는 모든 것이, 목재를 다루는 동안 아이들에게 치유와 긍정의 에너지를 선사하는 까닭이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겉돌거나 학업에 흥미를 갖지 못해 수행평가를 포기해버리는 학생들이 한 학급에 몇 명씩은 있어요. 그러던 친구들이 단지 목재를 자르거나 다듬는 경험만으로도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무를 만진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수업만큼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고 모두 끝까지 해내더라고요. 목공 수업이 끝났을 때 아이들이 저에게

'새로 만들어보고 싶은 게 생겼다'라고 말하곤 해요. 그럴 때 정말 기쁩니다."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그를 행복하게 한다. 대광중학교엔 '어머니 목공 동아리'가 있다. 이곳 창의공학실에서 각자 목재를 다듬다가 자연스레 아이들의 목공 수업을 참관하기도 한다. 동료 교사들이 이 공간에서 목재를 다듬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모습도 그를 흐뭇하게 한다. 목재라는 소재를 학교 안에 들였을 뿐인데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유대감이 놀랍도록 끈끈해졌다.

아이들과 함께 성장해가는 전국창의목공교사모임

최창민 교사와 목공의 인연은 첫 부임지였던 고양시 탄현중학교에서 시작됐다. 그 학교에 목공실이 있었다. 어려서부터 손으로 무언가 만들기를 좋아하던 그였기에 전반적인 목공 기술을 즐겁게 터득해나갔다. 재미있고 의미 있는 기술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전국기술교사모임에도 가입해 활동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기술 수업 콘텐츠로서의 목공을 떠올리지는 못했다. 그 무렵 가르치고 있는 기술 교과의 트렌드는 '정보화와 미래 사회'였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제작, 전기 자동차와 같은 것을 수업 콘텐츠로 활용했지만 기술 발전이 워낙 빨라 따라잡기가 만만치 않았다. 회의를 느끼는 순간 목공이 떠올랐다. 기술 교과의 한 부분으로 원래부터 존재하던 목공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한 번 해보고 싶었다.

"두 번째 부임지였던 일산중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되면서 목공을 수업 콘텐츠로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 학교에서 근무하는 동안 목재로 그네 의자를 만들었는데, 그게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학생은 물론 선생님들도 오며 가며 그 의자에서 쉬어 가곤 했죠. SNS에서도 화제가 됐어요. 제가 만든 그네 의자 사진을 보고 자기도 그런 걸 만들어보고 싶다는 댓글이 무수히 달렸습니다. 목공을 향한 교사들의 열망을 그때 처음 접했어요."

전국창의목공교사모임의 시작은 단출했다. 전국기술교사모임에서 만나 친분을 쌓아오던 윤성복 교사(청주 대성중학교)와 2012년 단둘이 모임을 시작한 것이다. 얼마 뒤 이대석 교사(충남삼성고등학교)가 합류해 모임의 꼴을 갖추게 됐고, 2015년 11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메이커 페스티벌에 전국창의목공교사모임 체험 부스를 마련하면서 제대로 된 운영진과 각 지역의 팀장이 구성됐다.

"저와 윤성복 교사, 이대석 교사가 모임을 꾸려가던 2013년 여름 '노작 교육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과정'이라는 교사 직무연수를 마련했어요. 교사 60명을 모집하는데, 사흘 만에 500여 명이 신청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후 우리가 만든 우드 스피커, 나무 도마 등이 SNS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그 사진들이 퍼지면서 회원이 빠르게 늘기 시작했어요."

2022년 1월 현재 네이버 밴드에서 활동하는 전국창의목공교사모임 회원은 1,200명이 조금 넘는다. 2명에서 1,200명으로 늘었으니 참으로 놀라운 성장이다. 나무는 어디서 구매하는지,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는지,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하려면 어떡해야 하는지…. 목공을 시작하려면 고려할 것이 한둘이 아니다. 아이들의 목공 교육을 위해 심리적, 물리적 장벽을 깨고자 노력해준 1,200여 명의 교사들이 그는 정말 한없이 고맙기만 하다.

"전국창의목공교사모임 교사들은 개인의 목공 실력 향상을 위해 활동하지 않아요. 오직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쓰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기에 서로 격려를 아끼지 않죠. 가령 목공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질문을 누군가가 올려 놓는다 하더라도 상세하고 친절한 설명이 댓글로 달립니다. 서로의 성장을 위해 본인의 시간과 노하우를 기꺼이 내어 주시는 분들이죠. 기술교사들의 축제를 만드는 게 오랜 꿈이었는데, 올해는 그 꿈을 실현해볼 계획이에요."

최창민 교사는 현재 목재문화진흥회 사외이사로도 활약 중이다. 목재문화진흥회는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목재 교육 활성화 및 목재 이용 촉진 등을 위해 설립된 단체다. 목재의 탄소 저장 기능을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목재 문화 발전과 목재 이용을 촉진해 국민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목표를 이루려면 올바른 목재 교육이 필수다. 그의 사명감이 갈수록 커지는 이유다.

"문득 돌이켜보니, 제가 꿈꿔온 교사로서의 이상향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더라고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속 키팅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거든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목공 수업을 통해 점점 더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재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장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소재예요. 그 장점을 눈 밝게 알아보고, 있는 힘껏 키워주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전국창의목공교사모임이 만들어진 지 올해로 꼭 10년이다. 10년 뒤 그와 그 주변이 어떤 모습일지 벌써 궁금해진다. ⓚ

전국창의목공교사모임 유동규 회원 작품[출처: '전국창의목공교사모임' 네이버 밴드]

'꿈 너머 꿈'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꿈 너머 꿈'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회원님들의 이야기를 담는 코너입니다. 회원님이라면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꿈을 향해 쉼 없는 도전을 하는 회원님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세요. 「The-K 매거진」이 회원님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thekmagazine@ktcu.or.kr)

생애주기 중 허리에 해당하는 연령대가 바로 4050세대입니다. 「고민 상담소」는 책임은 막중하나, 위로를 받기 어려운 4050세대들이 가진 가정·직장 내의 고민에 대해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퇴직증후군, 나를 알면 나아갈 길이 보인다

"앞만 보고 달렸는데 왠지 나만 뒤처진 것 같고, 아무도 모르는 마라토너가 된 느낌이에요."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이 흔히 고백하는 감정 중 하나다. 이 같은 불안은 왜 생기는 것일까? 연차가 높아지면서 회사에서 달라진 자신의 효용 가치 혹은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기 모습에 불안감은 지속된다. 더 깊이 파고들면 은퇴 후 무엇을 하며 여생을 살아야 할지, 가족을 어떻게 부양해야 할지 등으로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해 공포심을 갖게 된다. 매일 아침 출근길이 부담스럽고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 채 퇴근 시간만 기다린 적이 있다면 내면이 전하는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누구나 한번은 겪게 되는 은퇴, 퇴직의 압박을 현명하게 넘길 방법은 없을까?

글 강일수 두디스 코칭 대표

퇴직에 대한 두려움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퇴직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가질 수 있다. 누군가에게 퇴직은 지금과는 다른 삶을 꿈꾸게 하고 설렘의 감정을 가져다준다. 하지만 과연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퇴직을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다수의 사람은 퇴직 후 현재보다 더 우울한 삶을 살게 될 것으로 예견하거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퇴직이 두려움으로 연결되는 원인에 대해 먼저 생각해보자.

퇴직 후 느끼는 감정은 불안이나 초조에서 시작해 좌절과 혼란을 겪거나, 때로는 분노의 감정도 솟구치게 된다. 그야말로 복잡한 심리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명확한 설계도, 모아놓은 노후 자금도 넉넉지 않다는 현실이 두려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감정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감정의 소유자'에게 있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생기는지, 즉 언제 기쁘고 언제 슬픈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에 분노하고 혐오하는지 알아차린다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감정은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다.

퇴직이라는 큰 사건에 대해서도 자신의 감정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감정을 구분하고, 그런 감정이 생기는 이유를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나의 감정을 관찰하고 즐거운 방향으로 이끌기

당장 정답을 얻으려 하지 말고 나의 감정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즐거워지는지 찾고 그것을 잘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감정 발생의 근본 원인은 감정 소유자의 욕구와 기대 수준에 달려 있다.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는 기쁨이나 흥분, 안도감, 즐거움 같은 '유쾌한 감정'이 발생하고, 그렇지 못하면 불안이나 긴장감, 수치심, 절망감 같은 '불쾌한 감정'이 생긴다.

감정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의 하나는 '모든 감정은 자신에게 이롭다'라고 이해하고, 그 감정을 관찰하는 '생각의 초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생각의 초점을 제대로 관리함으로써 우리는 매 순간 마음 한편에서 떠오르는 감정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다. 감정을 충분히 느끼면서도 그 감정에 매몰되거나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내가 누구인데'라는 자만심과 허영심도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보고 과거의 명함에 집착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려는 감정 조절을 해나가야 한다.

자신의 감정이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흔히 퇴직 후 배우자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해 불행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에게 자신의 현재 감정 상태를 솔직히 이야기하고 공감대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은 필수다.

과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는 이유

내면에 각인된 과거의 기억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거가 행복했던 사람은 미래를 꽃길로 낙관하고, 과거가 불행했던 사람은 흙길로 비관하는 경향이 있다. 과거가 지나간 일로 그치지 않는 것이다. 퇴직에 대한 두려움을 현실적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면 자신의 역량과 주변의 도움을 통해 그 방법을 찾아내고 실행해나갈 수 있다. 하지만 대체로 이런 감정은 심리적 이유에서 비롯된다. 불행했다고 생각되는 과거의 기억은 희망이 느껴지지 않는 현재의 감정으로 이어지고, 이는 자신을 힘들게 할 뿐 아니라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두운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내는 것'이다. 과거 사건에 얽힌 부정적 감정을 날려버리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비결이다. 무언가를 시도했다가 실패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얻어내는 일만큼은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

나를 알면 나아갈 길이 보인다

우화 작가 라퐁텐은 "온 세상을 다 알아도 자기 자신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라고 했다. 중요한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다. 또 삶의 의미를 자문하며, 새로운 자극을 위한 에너지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현재 위치를 더 잘 파악하고, 또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원하는 인생을 창조할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된다.

나를 알면 나아갈 길이 보이는 법이다. ⓚ

「인생 이모작」은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후 제2의 삶을 알차게 설계하고, 행복을 찾는 퇴직 회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뷰파인더에 담긴 세상은 언제나 아름답다

재능 기부 사진작가 **정창완 회원**

카메라 렌즈를 통과한 풍경이 눈동자에 맺힌다. 분명 조금 전까지 보던 풍경인데, 금방 '작품'이란 옷을 입고 나타난 듯 달리 느껴진다. 평범해 보이던 사람도 렌즈를 통해 바라보면 표정 하나하나가 살아서 말을 거는 듯하다. 카메라를 들고 나서부터 터득한 마법이다.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서 정창완 회원의 삶도 뷰파인더 안으로 들어온 듯 더욱 특별해졌다.

글 이성미 / **사진** 이용기

정창완 회원 작품 <노을 속으로>, 1994

정창완 회원 작품 <등대>, 2019

카메라와 평생 친구가 되다

사진은 작가의 힘이 단 한 장으로 응축된 예술이다. 사진 한 장을 탄생시키기 위해 작가는 섭외 감독이 되었다가 촬영 감독이 되었다가 조명 감독이 되었다가 편집자가 된다. 그리고 평범한 피사체를 예술로 빚어낸다. 마치 연금술사처럼 말이다. 사람들이 사진작가를 동경하는 이유는 한 대의 카메라로 세상에 마법을 부릴 수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1979년 처음 카메라를 잡은 후 정창완 회원도 마법사가 되었다.

"40년도 넘은 옛날 이야기예요. 어느 날 산에 올랐는데 백발의 어르신이 카메라를 들고 서 계셨어요. 저는 그 순간을 마치 사진을 현상해놓은 것처럼 생생히 기억해요. 그때 '저거다'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콱 박혔거든요. 평생 카메라를 잡고 싶다는 바람도 생겼죠. 그런데 정말 제가 그때 본 어르신 나이가 되어 있네요."

운명적인 만남 후 정창완 회원은 '아사히 펜탁스 MX' 기종 카메라를 품에 안았다. 당시 그의 월급을 생각하면 고가였지만, 평생 친구라고 생각하니 값이 아깝지 않았다. 그러나 문제는 따로 있었다. 사진기는 있지만 사진 찍는 기술이 없었던 것이다. 당시만 해도 사진을 배우기 위해선 이름난 작가의 문하생으로 들어가야 했다. 그러나 교직에 있던 그에게 작가를 따라다닐 여력은 없었다. 유튜브는커녕 컴퓨터 있는 집도 몇 없던 시절이었으니 곁눈질할 데도 없었다.

타고나길 호기심 많고 도전하기를 좋아하던 정창완 회원 자신도 누군가에게 배워서 사진을 찍고 싶지는 않았다. 결국 모사나 학습이 아닌 철저히 경험, 즉 실패와 실수를 통해 사진을 배우기로 했다. 그러고는 주말만 되면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같은 풍경을 앞에 두고도 조리갯값과 셔터 속도를 달리해 찍으며 방법을 연구했다. 달 하나를 찍는 데에도 필름 세 통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사진을 찍고 나면 그날 이력을 기록하고 자신만의 노하우를 쌓았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생스러웠지만, 그 덕분에 전에 없는 정창완만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가 완성됐다.

렌즈를 통해 마음속으로 들어온 사람들

자신만의 색깔이 짙어지는 만큼 사진에 대한 애정도 깊어갔다. 이 좋은 것, 이 즐거운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1990년 서울 재현고등학교로 자리를 옮기자마자 정창완 회원은 사진부를 만들었다. 비슷한 시기 서울중등사진교육연구회도 창단해 같은 뜻, 같은 취미를 가진 교사들과 어울렸다.

"서울중등사진교육연구회 회원들과 '전국 오일장을 홍보하자'라는 목표를 두고 전국 시장을 누볐어요. 한참 시장을 돌아다니며 상인들과 어울리고 나면 생동감에 취해버리곤 했죠. 요즘은 초상권 때문에 '찍지 말라'는 사람이 많지만, 1990년대만 해도 카메라를 향하는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당시 회원을 기반으로 만든 '장터포토클럽'은 현재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요. 2019년 6월에도 회원들과 함께 세종문화회관에서 <장터와 풍경 사진展>을 열었고요."

정창완 회원의 렌즈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 보면, 거기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다. 연구회 회원 한 명이 "시골 어르신 장수 사진(영정사진)을 찍어보자"라고 제안하면서 그 방향은 더 올곧아졌다. 사비로 장만한 장비를 싣고 그들은 사람의 발길이 뜸한 시골 깊은 곳으로 갔다. 그러고는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에 곱게 화장을 해드리고 사진을 찍었다. 사진을 찍기 전에는 빼놓지 않고 어르신과 마음의 벽을 허물었다. 인생에서 가장 젊고 아름다운 사진을 남겨드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장수 사진을 찍는 일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진을 찍으러 다니던 것과는 만족감이 달랐다. 그 후로 정창완 회원은 사진이 필요한 사람, 사진이 있어야 할 곳을 찾아다녔다. 교내 사진부 학생들도 선생님의 뒤를 따랐다. 토요일 수업을 마치고 나면 정창완 회원은 학생들을 차에 태우고 지방 곳곳 봉사 활동을 다녔다.

"렌즈를 통해 사람을 바라보면 표정 하나하나 살아서 말을 거는 것처럼 느껴져요. 멀리 앉아있는 사람인데 마음이 맞닿은 기분이 들죠. 오직 사진 찍는 사람만이 아는 감정입니다. 아이들에게도 그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덕분에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사진학과 진학을 결정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렌즈를 통해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발견한 아이들을 보면 정말 뿌듯했어요."

취미에 의미를 더해 더욱 행복한 인생 2막

정창완 회원은 퇴직 후 사진과 더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히 그는 서울 내 지역 예술 단체와 시니어 및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센터를 기반으로 활동하면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꾸준히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행복한 노후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취미가 같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행복한 노후가 더 행복해집니다. 취미 생활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생활이 시작되니까요."

특히 정창완 회원은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 나눔사진연구회와 함께 독거노인 장수 사진, 다문화 가족 사진, 보육원 아이들 생일 축하 사진 등을 촬영해 전달하는 봉사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북부교육지원청 문해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졸업 사진도 찍는다. 지난해에는 그간 평생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취미에 의미를 더하니 금상첨화인 셈이다.

코로나19 이후 봉사, 전시 등 활동에 제약이 많지만, 사진이 필요한 곳이라면 그는 언제든 달려갈 생각이다.

"앞으로 계속 다큐멘터리 사진을 찍고 싶어요. 우리 삶과 맞닿은 풍경을 찍고 싶거든요. 골목 상회, 재래시장, 아파트 재건축 현장 등 흥망이 있는 서울 풍경도 기록사진으로 남기고 싶고요. 그렇게 계속 사진의 쓰임을 생각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목표는 나이가 들어서도 처음 카메라를 잡았을 때의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사진작가 로버트 프랭크는 "작가는 사진에 자기 삶의 무게를 표현하게 된다. 예술과 생활은 불가분의 관계다"라고 했다. 정창완 회원의 사진이 가볍지 않되 따뜻한 이유는 찍는 이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학생들을 바른길로 인도하는 교사의 숙명이 무거운 만큼 정창완 회원의 삶도 분명 가벼웠을 리 없다. 앞으로도 정창완 회원은 자신을 닮은 사진과 손을 맞잡고 곧은 방향으로 계속 걸어갈 것이다. ⓚ

'인생 이모작'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재능을 기부하며 역동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회원님들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의미 있는 인생 이모작을 실현하고 있는 회원님을 추천해주셔도 좋습니다. 「The-K 매거진」 지면에 담아 많은 회원님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를 전해드리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thekmagazine@ktcu.or.kr)

「방방곡곡 숨은 명소」에서는 여행이 간절하기만 요즘, 익숙하다고 생각한 여행지에서 뜻하지 않게 만나는 숨은 명소와 식도락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소개합니다.

따스한 남녘 바닷가에서 봄을 기다리다
낭만의 해양 도시 여수

산 너머 남녘 바닷가 고장 여수에는 벌써 문밖에 봄이 온 듯 온화하다. 오동도에 피어난 붉은 동백과 고소동 언덕의 카페 창가를 두드리는 햇살, 그리고 돌산대교를 건너는 자동차들의 경쾌한 움직임에서 이제 곧 모습을 드러낼 계절의 변화가 느껴진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해상 국립공원 두 곳이 있는 미항(美港) 여수에서 새봄을 기다려본다.

글/사진 우인재 여행작가

우인재 작가는 10여 년간 출판사에서 여행 콘텐츠 기획 및 취재를 담당했다. 아시아나항공 기내 가이드북 로스앤젤레스 편을 비롯해 대한생명, 교보생명, 외환은행 등 보험·금융사 고객용 여행 가이드북을 기획 및 제작했다. 또 월간 「DOVE」, 「모터트렌드」 등의 매체를 비롯해 인천공항공사, 롯데백화점, 조달청, 롯데제이티비, LS전선 등 기업체 사보에 여행, 드라이브 원고를 기고했다. 현재 프리랜서 여행작가로 활동하며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다.

화양조발대교 풍경

오동도 붉은 동백과 함께 맞이하는 이른 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2개의 해상 국립공원(한려해상국립공원,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을 품은 여수는 그 명성에 걸맞게 유난히 물빛이 아름다운 도시다. 전망이 좋아 예쁜 카페가 몰려 있는 여수시 고소동의 언덕에서 굽어보면, 해협 사이로 흘러가는 바닷물이 마치 터키석을 갈아 만든 청록색 물감이라도 풀어놓은 듯 오묘한 빛깔을 머금고 있다. 그 때문일까. 여수반도를 둘러싼 바다 빛이 어찌나 고운지 옛 사람들은 이 바닷가 고장의 이름에 특별히 '고울 려(麗)'를 넣어 여수(麗水)라고 불렀다고 한다. 문헌에 처음 '여수'라는 명칭이 기록된 때가 고려 창건 이후인 940년이라 알려졌으니 벌써 1,000년이 넘는 장구한 세월 동안 이토록 수려한 바다를 간직하고 있던 셈이 아닌가.

여수에서 가장 먼저 들러야 할 곳은 동백꽃 군락지인 오동도다. 여수시 수정동에 속한 이 섬은 길이 1.2km가량의 방파제로 육지와 연결되어 있는데, 하늘에서 보면 오동잎 모양을 닮아 '오동도'라는 지명이 붙었다. 과거에는 오동나무가 아주 많았다고 전해지지만, 현재는 신이대나무, 후박나무, 광나무 등 사계절 푸른 상록수와 함께 동백나무로 가득한 초록의 낙원이다. 나무길로 조성된 탐방로를 따라 울창한 숲을 거닐면 섬 주변을 따라 아찔한 기암절벽과 동굴을 볼 수 있으며, 섬 남단에 이르면 새하얀 등대도 만나게 된다.

물론 여행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오동도의 '최애' 포인트는 섬 전체에 고루 분포하는 동백나무와 붉은 동백꽃 군락지다. 동백꽃은 보통 11월부터 개화해 이듬해 4월까지 수개월에 걸쳐 피고 지기 때문에 아직 겨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2월에도 꽃 나들이를 할 수 있는 만큼 더욱 인기가 좋은 여행 테마로 꼽힌다. 특히 햇살이 비스듬히 숲 사이를 파고드는 아침 혹은 늦은 오후에 오동도를 찾는다면 지저귀는 새소리, 파도 소리와 함께 겨울 끝자락 아련한 봄의 감성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오동도 동백꽃

오동도 동백숲

오동도

고소동 벽화마을, 골목길 산책하며 카페 즐기기

두 번째로 들를 곳은 요즘 예쁜 카페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고소동 천사벽화마을이다. 거미줄처럼 얽힌 골목길의 전망 좋은 장소마다 특색 있는 카페가 계속 들어서고 있는 고소동은 높이 117m의 나지막한 언덕 위에 펼쳐진 산동네다. 이순신대교, 하멜등대, 낭만포차거리, 장군도, 돌산대교 등 여수의 주요 명소가 모두 시야에 들어올 만큼 조망이 훌륭해 조선 시대에는 수군의 포루(砲樓)나 장대(將臺)가 위치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수팔경의 하나인 고소대(姑蘇臺)의 유적이 바로 이곳 고소동에 남아 있으며,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수군을 지휘하던 장소라고 전해진다. 현재는 언덕 정상에 여수기상대가 자리한다.

고소동 카페 청수당

고소동 벽화마을

고소동 벽화마을

고소동을 방문할 때는 되도록 임시 공영주차장(고소동 56-9)에 차를 세워놓고 걸어서 돌아보기를 추천한다. 길이 비좁기도 하거니와 일방 통행로에 가로막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담벼락에 그려진 알록달록한 벽화가 오래된 잿빛 골목을 환하게 밝히고 있으니 산책하기에도 더없이 좋다. '모카힐', '와이드커피스탠드', '낭만카페', '청수당' 등 SNS에 자주 등장하는 카페에 들어서면 대부분 통유리로 된 커다란 창밖으로 에메랄드빛 여수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특권을 준다.

고소동 벽화마을 전경

해상케이블카와 거북선대교

돌산대교 전망대와 해상케이블카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와 함께 새로이 거북선대교가 들어섰지만, 외지인들이 사진 촬영을 위해 즐겨 찾는 명물은 여전히 돌산대교다. 1984년 완공된 이후 30년이 넘도록 여수 최고의 명소로 꼽히고 있는 돌산대교는 낮에도 아름답지만 경관 조명이 불을 밝히는 저녁에 방문하면 더욱 예쁘다. 해 질 무렵 호수처럼 잔잔한 바다는 마치 동백꽃처럼 붉게 물든다. 사진가들이 '매직 아워(magic hour)'라고 부르는 일몰이 끝나갈 무렵 하늘이 보랏빛으로 어두워지면 경관 조명이 점등되며 돌산대교가 오색으로 채색되기 시작한다. 대교 위를 오가는 자동차의 불빛과 어우러진 야경은 환상적인 추억을 남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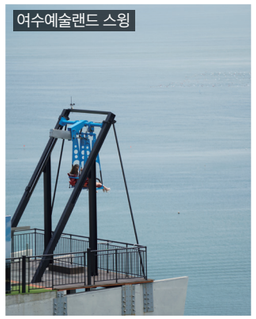
이런 돌산대교를 제대로 감상하려면 고소동을 기준으로 돌산대교 너머에 위치하는 돌산공원을 찾아가야 한다. 돌산대교 준공기념탑 바로 아래 조성된 나무길 전망로가 감상을 위한 최적 포인트. 새초롬하게 꽃을 피워 올린 동백나무도 몇 그루 있어 인증샷을 남기기에도 좋다.

여수해상케이블카(061-664-7301, www.yeosucablecar.com)를 탑승하는 것은 어떨까. 돌산공원에 위치한 여수해상케이블카 탑승장에서 케이블카에 오르면 돌산도와 여수반도 사이의 바다를 가로질러 이동하는 공중 산책을 체험할 수 있다. 장군도, 거북선대교, 오동도 그리고 여수세계박람회 행사장 등 여수의 명소가 수십 미터 발아래로 펼쳐지는 아찔하지만 환상적인 경험을 해보자.

돌산대교 황혼

여수예술랜드 미다스의 손

여수예술랜드 조각공원


여수예술랜드 스윙

향일암 관음상

향일암

돌산도 드라이브 길 끝에 만나는 향일암

시간이 넉넉하다면 돌산도 드라이브를 즐겨도 좋다. 과거 돌산도는 향일암 외에 들를 만한 관광지가 거의 없다시피 했던 섬이다. 그러나 이곳 역시 세계박람회와 함께 리조트와 호텔, 펜션이 들어서며 여행 인프라가 좋아졌을 뿐 아니라 여수예술랜드 같은 복합 문화 공간이 조성되면서 지금은 많은 여행자가 즐겨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여수예술랜드 리조트(061-665-0000, www.alr.co.kr)는 개장 당시 '미다스의 손' 때문에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여러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거대한 손 모양의 전망대인 미다스의 손은 내치도·외치도·혈도·죽도 등 돌산도 동쪽의 작은 섬들 너머로 펼쳐지는 다도해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조망 포인트다. 전망대뿐 아니라 카트, 짚 코스터, 스윙, 오션 스카이워크 등 레저 체험 시설과 미디어아트 조각공원, 인피니티 풀, 카페 그리고 숙박 시설까지 갖춘 여수시 유일의 복합 리조트다. 지난해 3월 오픈한 바다 전망 카페 라피끄는 벌써 인스타그램 인증샷 장소로 유명하다.

돌산도 전통의 명소는 뭐니 뭐니 해도 향일암(061-644-4742, www.hyangiram.or.kr)이다. 여수반도 남쪽 끝자락의 금오산(해발 320.9m) 자락에 자리를 잡은 향일암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매년 일출제가 열리던 장소로 남해 보리암, 양양 낙산사 홍련암, 강화도 보문사와 함께 우리나라 4대 관음 성지로 불린다. 기왕 찾아왔다면 호랑이의 해인 임인년을 맞아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자는 의미에서 일출을 감상하는 것도 좋겠다. 2월에 방문했다면 늦어도 오전 7시에는 향일암에 올라야 일출을 맞이할 수 있다.

풍성한 상차림, 남도 미각 나들이

서대회무침과 갈치 튀김

가자미, 넙치의 사촌쯤 되는 서대 혹은 서대기는 여수10미 중 하나로 꼽히는 생선으로, 정약용의 형 정약전이 저술한 「자산어보」에는 접어(鰈魚)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수 사람들은 여수와 고흥 사이의 여자만에서 주로 잡히는 서대를 무침으로 즐겨 먹는다. 막걸리로 발효시킨 식초를 초고추장과 섞어 만든 특제 양념에 얇게 썬 서대회를 넣고 무친 서대회무침은 긴긴 겨울을 나는 동안 잃었던 입맛을 되살리는 별미다. 서대회무침을 잘하기로 소문난 식당은 고소동과 자산공원 사이 옛 여수항 인근에 있는 삼학집(여수시 이순신광장로 200-3 1층)이다. 삼학집에서 서대회무침을 주문할 때는 반드시 갈치 튀김을 추가하기를 권한다. 달콤한 서대회무침과 겉은 바삭하고 속살은 부드러운 갈치 튀김이 어우러져 먹는 재미가 그만이다.

삼치 선어회와 싱싱한 해산물

바닷가 고장에 왔다면 응당 싱싱한 바다 먹거리를 맛봐야 하지 않을까. 제철 생선회와 함께 다양한 해물을 곁들여 먹으면 겨울 끝자락의 여정이 더욱 행복해진다. 활어회를 주로 맛보았다면 생선을 숙성시켜 먹는 선어회에 도전해보자. 선어회는 활어를 손질해 얼음과 함께 저온 숙성시킨다. 특히 삼치 선어회는 두툼하면서도 숙성된 생선 살 특유의 깊은 맛으로 미식가들이 즐겨 찾는다. 삼치를 구이로만 접해 본 사람이라면 그 독특한 맛에 빠져들지도 모를 일이다. 겨울철에는 대방어가 제철이므로 삼치와 대방어를 반씩 섞어도 좋다. 선어회만으로 조금 부족하다면 가리비, 전복, 멍게, 꾸죽 등으로 구성된 해물 모둠을 곁들인다. '꾸죽'은 뿔소라의 지역 방언이다.

30년 전통의 뚝배기 매운 갈비찜

여수에는 다른 도시에서는 없는 독특한 갈비찜이 있다. 여수시 신기동 골목에 자리한 '원조40번'에서 맛볼 수 있다. 30년간 대를 이어온 원조40번의 갈비찜은 뚝배기에 마치 탑처럼 높이 쌓아 올린 담음새부터 눈길을 잡아끈다. 창업주가 직접 고안한 양념을 이용해 닭강정처럼 바삭한 식감은 살리고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을 추가한 매운 갈비찜은 식도락가들을 불러 모으는 마력의 메뉴다. 매운 음식에 약한 사람이라면 달걀찜으로 매운맛을 중화시켜보자. 양도 푸짐해 갈비 몇 점이면 밥 한 공기를 뚝딱 해치우게 되지만, 추가로 주문한 공깃밥을 남은 양념에 비벼 먹는 사람도 부지기수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과식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

뛰는 장바구니 물가, '스크루플레이션 리스크'

코로나19 사태로 '웨비나(web과 seminar의 합성어로, 온라인상에서 세미나를 하는 것)'로 진행되던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는 2022년 한국 경제에 대해 '스크루플레이션(Screwflation)'을 최대 화두로 던졌다. 스크루플레이션이란 쥐어짠다는 의미의 '스크루(screw)'와 물가가 오르는 것을 말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스크루플레이션은 스태그플레이션과 구별된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거시경제 차원에서 경기가 침체하면서 지표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지만, 스크루플레이션은 미시적인 가계경제 차원에서 쥐어짜야 할 만큼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체감 물가, 즉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말한다. 국민 입장에서는 전자가 나타나면 후자보다 더 힘겨운 상황을 맞는다. 주목해야 할 것은 상당수 경제 예측 기관이 신정부가 출범하는 2022년에 한국 경제가 스크루플레이션을 겪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21년 3분기 기준부터 가계부채 규모는 1,800조 원을 넘어 빚 부담이 급증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될 정도로 성장 기반은 약화하는 추세다. 우리 국민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뛰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높은 물가 상승률이 예상된다.

글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미국 콜로라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으로서 지난 20년 동안 국내외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을 분석해왔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외교부 등 여러 정부 부처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KBS, MBC, SBS, YTN 등 주요 방송사의 뉴스, 대담, 토론에서 자주 볼 수 있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와 기회에 대해 이야기하는 「제로 이코노미」라는 책을 발간했다.

힘겨운 살림살이를 우려하는 경제 용어 '스크루플레이션'

스크루플레이션이라는 용어는 2011년 미국 헤지펀드 업체 시브리즈파트너스의 더글러스 카스 대표가 미국 경제 상황을 표현하면서 처음 사용되었다. 실질임금이 감소하면서 쥐어짜듯이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는 스크루 상황과 물가가 오르면서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는 인플레이션 상황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미국 경제가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음을 표현하면서 쓴 말이다. 이 용어를 처음 소개한 더글러스 카스가 주목한 부분은 중산층의 가처분소득 감소였다. 미국 역사상 두터운 중산층의 소득 및 소비 증가는 미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소비가 늘어 기업의 매출이 늘면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일자리와 임금이 늘어난 가계가 소비를 다시 늘림으로써 경제가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선순환이 달성된다. 카스가 우려한 것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어 소비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당시 카스는 중산층 가처분소득 감소의 요인으로 실질임금 감소, 물가 상승과 함께 주택 가격 하락, 주가 정체, 임시직 증가 등을 들었다.

서민의 체감경기와 밀접한 '경제 고통지수'

스크루플레이션은 체감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 같은 거시경제 지표가 개선되면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쉽다. 하지만 미시적으로 개별 가계가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세금, 대출금 이자 등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부분을 제하고 남는 소득인 가처분소득이 줄어든다면, 그리고 공교롭게 이런 상황에서 전반적인 물가까지 올라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난다면 아무리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더라도 가계가 체감하는 경제 상황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스크루플레이션이 초래하는 경제적 고통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경제 고통지수'다. '실업률+물가상승률-낮은 경제성장률'로 측정되는 경제고통지수는 스크루플레이션 상황이 심화할수록 높아진다. 실업률이 높아져 일자리를 잃음으로써 소득이 줄어드는 가계가 많아질수록, 물가가 올라 가계의 지출이 늘어날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져 경기가 악화할수록 경제 고통지수는 커지기 때문이다.

스크루플레이션을 경계해야 하는 한국 경제

향후 예상되는 한국 경제의 상황은 스크루플레이션을 우려하게 한다. 경제 성장세는 낮아지지만 물가 상승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고, 급증한 가계부채 부담 속에 금리는 상승해 가계가 지불해야 하는 이자 부담은 늘어 가처분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21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4%에 근접한 것으로 보이지만, 2022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3%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전반적인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내구재 소비 급증으로 호조세를 나타내던 수출 증가세가 둔화할 전망이다. 2021년 20%대에 달하던 수출 증가율은 2022년 한 자릿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가 살아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 이후의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 소비 회복세가 경제성장을 견인할 정도로 강하지는 못할 전망이다. 특히 코로나19 특수 및 생산 병목 현상을 겪으며 급증했던 기업 투자가 급격히 둔화하면서 전년 대비 투자는 거의 늘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에 물가 상승률은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쉽사리 낮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2021년 4분기 3%를 크게 상회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상반기 중에도 한국은행의 관리 목표 수준인 2%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제 원유 가격에 영향을 받는 휘발유 등 에너지류 가격, 농수산물 및 외식비 등 먹거리 가격이 높은 상승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가계가 체감하는 물가상승률이 공식적인 지표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상황이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에너지 가격, 먹거리 가격 등 가계가 반드시 지출해야 하고 자주 지출하게 되는 품목의 가격이 오를수록 가계는 물가가 더욱 크게 올랐다고 체감하게 되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이율 상승 등 실물경제 위기에 대비해야

가계부채는 크게 늘었다. 비록 강화된 대출 규제 속에 월별 증가액이 9월 6.4조 원, 10월 5.2조 원, 11월 3조 원으로 감소 중이지만 은행 가계대출은 2021년 11월 말 기준 1,061조 원으로 전년대비 72조 원이나 증가했다. 은행권뿐 아니라 비은행권까지 포함한 가계에 대한 신용공여액인 가계신용액은 2021년 3분기 말 기준 1,845조 원 규모까지 늘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둔화했다고 하더라도 부채 규모 자체가 많이 늘어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올해 두 차례 정도, 각각 0.25%P씩 인상되어 1.5%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통화 긴축 전환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 연준은 2022년 3월에 양적 완화를 종료하고 6월경에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12월 미 연준 FOMC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올해 0.25%P씩 세 차례, 0.75%P 정도의 금리 인상이 적정하다는 것이 미 연준 이사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앞선 미국의 통화 긴축 전환 당시 테이퍼링 개시 이후 금리 인상 개시까지 약 2년이 소요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 미국의 통화 긴축 전환 속도는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다. 한국의 스크루플레이션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에 대비할 때다. ⓚ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마음을 돌아보는 일을 쉬이 미루기 마련입니다. 「마음쉼」은 놓치기 쉬운 우리 마음이 보내는 적신호를 발견하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 보듬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는 코너입니다.

새학기를 앞둔 나의 마음 살피기

겨울방학이 한창인 2월, 새학기 준비를 하느라 마음이 분주합니다. 3월이 다가올수록 왠지 모를 부담과 두려움도 스멀스멀 마음에 차오릅니다. 이처럼 '새로움'이 누군가에게는 '설렘'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안'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일상적인 일에도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느낀다면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감당할 수 없는 심리적인 압박으로 이어지기 전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편안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학기를 앞둔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고 스스로의 마음을 챙기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글 (주)다인

나의 스트레스는 유스트레스(Eustress)? 디스트레스(Distress)?

스트레스란 단어는 시대별로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건강과 연관이 있는 단어로 주로 쓰이는데, 스트레스는 진짜 건강에 그렇게 해로운 것일까요?

원래 스트레스라는 단어는 15세기 물리학에서 '외부로부터 물체에 가해지는 압력'이라는 뜻으로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17세기에는 좀 더 일반화되어 '역경'이나 '곤란'이라는 의미로 사용됐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오늘날 쓰이는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뜻이 확대되었습니다.

20세기 생리학자였던 캐논은 스트레스가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고, 이는 우리 몸의 항상성을 저해해 질병을 일으킨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스트레스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스트레스인 '유스트레스(Eustress)'와 부정적인 스트레스인 '디스트레스(Distress)'로 나뉩니다. 유스트레스는 질병 저항력을 높여 건강증진을 돕는 반면, 디스트레스는 질병 저항력을 낮춰 건강을 해칩니다. 유스트레스는 오히려 건강에 필요한 셈이지요.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지각 역시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기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지지만, 대처능력이 뛰어나면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학기가 시작되면 학기가 끝날 때까지 쉼 없이 지속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교직원 여러분들의 심리적 부담감과, 외부에서 일어나는 자극들로 인해 나타나는 스트레스는 어떤 스트레스인지 알아차리고, 지각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챙겨주는 '웃음'의 효능

지금 여러분의 표정은 어떤가요? 주변을 돌아보면 자신의 역할을 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리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어딘지 잔뜩 찌푸린 표정, 굳어진 표정이 역력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얼굴은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의 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많이 웃으면 그만큼 마음의 긴장감이 줄고 스트레스 지수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에 미소와 웃음이 가득할 방법은 없을까요?

어두운 표정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의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감을 느끼려면 내가 먼저 나를 돌봐야 합니다.

미소, 웃음의 꽃은 바로 '마음 챙김'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은 몸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 자리 잡은 마음과 영혼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고 그것이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근원입니다. 미소, 웃음의 꽃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현상으로 드러나는 입가의 미소는 결국 내면의 정신적인 행복이 함께 해야 비로소 온전한 웃음의 꽃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으로 나를 찾는다

그렇다면 마음 챙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온전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음속의 거울로 나를 마주 봅니다. 내가 가진 불안과 스트레스는 무엇이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마음챙김의 시작입니다. The-K 마음쉼은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몸·마음·영혼의 불균형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마음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을 돕습니다.

접근성을 높여, 인근 지역 대면상담 진행과 근무 특성상 상담센터에 내방이 어려운 교직원 여러분들을 위해 전화와 화상상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시간대에 자택에서도 상담전문가와의 일대일 상담이 가능합니다.

둘째, 자기 이해 및 자기 통찰의 시간을 갖습니다. 나를 살피고, 타인과의 관계를 이해합니다.

자기 이해 및 자기 통찰의 시간을 갖는 The-K 마음쉼의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대인관계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 이해와 더불어 동료를 이해함으로써 효과적인 업무소통과 조직 내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고, 학생 이해 프로그램을 통해 학급 내 다양한 성격을 가진 학생들을 이해하며, 학급 내 심리적인 상호작용 파악 및 학생을 위한 성격유형별 소통기술을 향상합니다. 심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가 경험할 수 있는 학급 내 다양한 문제 상황을 학생의 기질 차원에서 이해하고 적절하게 지도하는 방법을 익힐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동료 지지 프로그램을 통해 교직 중 다양한 원인의 심리적 소진에 대하여 동료와 함께 나누고, 긍정 자원을 파악하여 자아존중감과 효능감을 향상합니다. ⓚ

♥ 「The-K 마음쉼」 이용 안내 ♥

- **상담 대상**
  한국교직원공제회 일반 회원
- **상담 신청**
  The-K 마음쉼 전용 홈페이지 (www.ktcu-hue.com)에서 회원 인증(회원 번호, 이름 입력 및 휴대폰 인증) 후 이용 가능, 전화(080-080-5988)
- **상담 횟수**
  2년(22~23년도) 내 개별상담 1인당 5회, 집단상담(6인 이내) 4회 무료 이용 가능
- **상담 시간**
  평일, 토요일 오전 9시~오후 9시 (일요일, 공휴일은 상담사와 사전 협의)
- **상담 방법**
  1 : 1 상담(대면·전화·화상·이메일 상담) 및 집단 상담(6인 이내)

마음쉼 홈페이지 ▶

※ 모든 상담 내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에 의해 철저히 비밀 보장되며, 소속기관 및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상담 내용을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The-K 예방의학」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일상의 식습관, 운동 처방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시즌별, 연령대별로 알고 있으면 좋은 건강 상식도 배워보는 코너입니다.

감기 몸살로 오해하기 쉬운 대상포진

추운 겨울철이면 으슬으슬한 몸살과 피로감을 호소하며 감기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많다. 실제 감기 초기 증상일 수 있지만, 어릴 적 수두를 앓은 적이 있다면 감기가 아닌 대상포진일 수도 있다. 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Varicella Zoster Virus:VZV)가 몸에 잠복하고 있다가 면역력이 저하되면 다시 활동해 피부 발진, 염증, 근육통 등을 일으키는 질환인데, 초기 증상이 감기 몸살과 비슷하다. 하지만 대상포진의 합병증은 감기보다 더 무섭다. 안구에 대상포진이 생기면 만성 안질환, 시력 상실 등으로 발전할 수 있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피부 병변이 호전돼도 통증이 계속되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생길 수 있으며, 걸리기만 해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마비,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 발병 위험도 커진다. 대상포진에 걸렸다면 최대한 빨리 치료해야 하고, 걸리지 않았다면 예방법을 숙지해놓는 것이 좋다.

글 이슬비 헬스조선 기자

온도 변화, 스트레스… 면역력 떨어뜨려

수두 바이러스(VZV)는 처음 노출됐을 때 발진이 가장 심했던 부위의 신경절에 평생 숨어 있다. 그러다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바로 신경을 침범해 면역체계를 교란시킨다. 결국 대상포진 발병의 주요 원인은 '면역력 저하'인 것이다. 겨울철에는 따뜻한 실내와 차가운 실외의 온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에너지를 평소보다 많이 써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다.

감정적 스트레스, 불안 등도 면역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종양도 연관이 있는데, 특히 암 환자의 경우 암은 물론 치료제가 면역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상포진이 생기는지 평소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루푸스, 류머티즘 등 자가면역질환이 있는 환자와 당뇨, 고혈압 등 기저질환 환자도 대상포진 고위험군이다.

감기 증상과 함께 물집 생기면 대상포진 의심해야

대상포진 초기에는 감기 증상이나 단순 포진 말고는 뚜렷한 증상이 없어 다른 질환으로 착각하기 쉬우므로 증상을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먼저 온몸이 떨리고 발열, 기침, 결막충혈, 눈의 이물감,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후 신체 특정 부위에 감각이 이상해지거나 통증이 발생한다. 쿡쿡 쑤시거나 칼에 베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림프절 부기, 고열, 근육통 등이 동반될 수 있다. 수일 뒤 붉은 반점과 물집 등 발진이 신경절을 따라 띠 모양으로 올라오면서 통증이 악화한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한데, 캐나다 맥길 의대에서 만든 통증 척도에 따르면 대상포진으로 인한 통증은 출산이나 수술 후 통증보다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발진은 보통 신체 한쪽에만 생긴다. 정중앙을 넘어 양측으로 생겼다면 다른 질환을 의심해봐야 한다. 물집이 생긴 지 3일 뒤 고름이 보이다가 10일쯤 지나면 딱지가 생긴다. 2~3주에 걸쳐 딱지도 없어진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보통 한 달 이내에 통증, 피부 병변 모두 회복되지만 60대 이상 고령이거나, 초기 극심한 통증이 있었거나, 피부 물집 병변이 광범위하게 퍼졌거나, 눈을 침범했다면 완치 이후에도 통증이 남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겪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후유증 예방법은 빠른 조치다. 발진이 생긴 후 72시간 안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면 발진, 통증의 회복 속도를 높이고, 대상포진 후 신경통 등 합병증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감기 증상이 일주일 넘게 지속하고 피부에 물집과 함께 발진이 발생하면 바로 전문의를 찾아 진단받는 것이 좋다. ⓚ

대상포진 예방법

1. 대상포진을 예방하려면 백신을 맞는다.

대상포진 백신은 수두 바이러스에 대항하던 면역 상태를 기억하는 'T세포 면역'을 자극하고 강화해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지 않도록 막는다.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률을 조사한 결과, 백신을 맞으면 대상포진 발병률이 51.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포진을 앓더라도 가볍게 지나갈 가능성이 크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과 대상포진 재발 예방 효과도 볼 수 있다. 면역력이 약한 60세 이상 고령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백신을 맞는 것을 권장한다.

2. 일상 속 면역력 관리도 중요하다.

적절한 영양 섭취, 운동, 규칙적인 생활, 긍정적인 마음가짐 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운동하면 근육에서 면역력을 조절하는 물질이 분비돼 면역 기능이 강화된다. 스트레스로 긴장된다면 심호흡 등을 통해 스트레스 수준을 낮춰야 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내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량이 늘어나는데, 이는 초기 면역 반응과 백혈구 활동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3. 충분한 숙면도 면역력 강화에 필수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낮에 활동하며 쌓인 피로를 풀고 기력과 에너지를 재충전하는데,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면 피로가 해소되지 않아 면역력이 저하된다. 적정 수면 시간은 하루 7~8시간이다. 밤잠을 설쳤다면 30분 미만의 짧은 낮잠도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된다.

「건강한 집밥」은 냉장고에 있는 일상적인 재료와 제철 식재료만으로도 특별한 한 끼 상차림을 만들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높은 요리법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명절 음식의 대변신!

남은 설음식으로 만드는 별미 요리

명절 분위기를 내기에 푸짐한 음식만 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명절이 끝나고 나면 이미 기름진 음식에 물려 남은 명절 음식은 냉동실 한구석을 차지하기에 십상인데요. 하지만 남은 음식을 약간만 다시 조리하면 새로운 요리가 됩니다. 그뿐 아니라 식자재를 아끼는 일등 공신이 될 수 있지요. 설 연휴 먹고 남은 음식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글 편집실 / 사진 쿠켄

온 가족이 함께하는 민족 대명절, 설날

예로부터 음력 1월 1일을 '설날'이라고 부릅니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 첫 아침을 맞는 우리나라 최대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날에는 각지에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과 친척들도 한자리에 모여 차례를 지내고, 덕담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설날에 꼭 해야 하는 다양한 풍습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세배'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아침 일찍 차례를 지내고, 친척이나 웃어른에게 세배를 합니다. 세배는 웃어른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새해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서로 덕담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또 설날에는 모두가 새 옷을 차려입습니다. 이를 '세장'이라고 하는데, 이때 갈아입는 옷을 '설빔'이라고 부릅니다. 새 옷을 사 입기 어려운 시절의 조상들은 섣달그믐 이전에 색깔이 있는 화려한 옷을 마련하여 대체로 대보름까지 입었다고 합니다. 복조리 역시 1년의 복을 기원하는 설날 풍습이었습니다. '조리'는 쌀을 이는 기구라, 그해의 행운을 조리로 일어 취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설날의 풍습은 많이 생략되고 사라졌지만, 온 가족이 함께 새해를 맞이하며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하는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설날에 먹는 세찬과 세주

잔치에 맛 좋은 음식이 빠질 수 없습니다. 집안의 종교나 가풍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푸짐한 음식을 준비해 차례를 지내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이를 위해 준비한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고, 술은 '세주(歲酒)'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세찬으로는 떡국, 족편, 편육, 각종 전과 나물, 정과, 갈비찜, 식혜, 햇김치 등이 있습니다. 세주는 도소주(屠蘇酒)라 부르기도 하는데 '사악한 기운을 잡는 술' 또는 '악한 기운을 몰아내는 술'이라는 뜻입니다.

남은 설음식 보관법

명절 음식은 평소보다 넉넉히 준비하기 마련이라, 남은 식자재와 음식이 명절 연휴가 지나면 골칫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명절 후 남은 음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세균이 번식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보관하기 까다로운 음식이 전과 나물입니다. 대표 명절 음식인 전은 비닐백이나 일반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 수분이 빠져나가 맛도 떨어지고, 기름이 공기와 닿으면서 산패하기 때문에 쉽사리 상하기도 합니다. 전은 산패하기 전에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해야 합니다. 나물은 수분이 많아 금방 물러지고 쉽게 상하기에, 일주일 내에 먹을 수 없다면 팬에 한 번 더 볶은 뒤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해야 세균 번식 없이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종류의 나물을 한꺼번에 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칸칸이 나뉜 용기 등을 활용해 종류별로 따로 보관해야 본연의 맛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바로 먹는 것입니다. 만약 그대로 먹는 것이 물린다면, 색다른 방식으로 조리해보면 어떨까요? 소스 재료를 조금만 추가해도 한국 전통 음식에서 양식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

나물 케사디야

Quesadillas

케사디야는 멕시코 요리 중 하나로, 밀가루나 옥수수로 만든 토르티야에 치즈와 다른 재료를 넣고 채워 반달 모양으로 접어 먹는 음식입니다. 명절에 먹고 남은 고사리를 잘게 썰어 넣으면 꼭 고기를 씹는것 같은 식감이 느껴집니다. 여기에 취향에 따라 핫소스를 더하면 느끼함을 잡아줘 나물을 색다르게 즐길 수 있습니다.

- **주재료** 토르티야 2장, 고사리나물 100g, 시금치나물 100g
- **부재료** 모차렐라 치즈 1컵
- **양념/소스** 데리야키 소스 1큰술, 핫소스 1작은술

* 토르티야를 반으로 잘라 나물과 치즈를 넣고 반을 접어 조리하면 먹기 편해요..

*** 만드는 방법**

❶ 준비한 나물을 4cm 정도 길이로 잘라 준비한다.

❷ 토르티야 1장 위에 모차렐라 치즈를 고루 뿌리고 그 위에 나물을 올린 뒤 다시 모차렐라 치즈를 뿌린다.

❸ 데리야키 소스를 뿌린 뒤 나머지 토르티야 1장으로 덮는다.

❹ 200℃로 예열한 오븐에 10분 정도 구운 뒤 핫소스를 곁들인다.

전 피자
pizza

설음식 중 남는 단골 메뉴인 전을 토핑으로 사용하면 훌륭한 피자가 완성됩니다. 밀가루 도우(dough) 대신 밥을 사용해 간편하고 특별한 피자를 만들어볼까요? 평소 한식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도 즐겨 먹을 수 있습니다.

- **주재료** 각종 전, 밥 200g
- **부재료** 모차렐라 치즈 1컵
- **양념/소스** 핫소스 1큰술, 식용유 약간

* 오븐이 없다면 팬을 사용해도 됩니다. 구운 밥에 전과 치즈 토핑을 올려 뚜껑을 닫고 약한 불로 조리해 치즈를 녹여야 합니다.

*** 만드는 방법**

❶ 팬에 식용유를 조금 두르고, 밥을 얇게 펴 노릇하게 굽는다.

❷ 오븐 용기에 식용유를 조금 바르고 구운 밥을 옮긴다.

❸ ②에 핫소스를 뿌린 뒤 각종 전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고루 얹는다.

❹ ③에 모차렐라 치즈를 뿌리고, 180℃로 예열한 오븐에 치즈가 녹을 때까지 5~10분 정도 굽는다.

가래떡 알리오 올리오
aglio e olio

설날에 남은 가래떡과 부재료를 활용해 알리오 올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늘 향과 고소한 올리브유 향이 어우러진 쫄깃한 가래떡의 맛이 일품인데요.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를 좋아하는 이들도 전혀 다른 식감에 만족할 겁니다.

- **주재료** 가래떡 300g
- **부재료** 양파 150g, 버섯 120g
- **양념/소스** 페페론치노 7개, 다진 마늘 2큰술, 올리브유 0.5컵(100ml), 소금·후추 약간씩, 파슬리 약간

* 떡을 볶을 때 너무 고온에서 조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세요.

*** 만드는 방법**

❶ 가래떡과 버섯은 적당한 크기로 썰고, 양파는 채 썬다.

❷ 달군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다진 마늘, 양파, 페페론치노를 넣어 볶는다.

❸ ②에 떡을 넣어 볶다가 버섯을 넣고 조금 더 볶는다.

❹ 떡이 익으면 소금, 후추, 파슬리를 뿌리고 불을 끈다.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의 시작이 바로 재활용입니다. 「DIY 리사이클링」 코너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집에서 직접 따라 해볼 수 있는 활용법도 꼼꼼히 알려드립니다.

'힙(Hip)한 친환경', 쓰레기에 담긴 철학

폐플라스틱, 옥수수로 만드는 지속 가능한 패션

입지 않는 옷, 필요한 소품으로 재활용하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0%가 패션 산업에서 나옵니다. 직물 생산만 따져도 매년 12억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한 친환경 패션 기업, 패션 신생기업 브랜드의 의미 있는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페트병 등을 재활용한 의류, 옥수수 등 자연으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소재로 만든 의류, 버려진 트럭 천막을 이용해 만든 방수 가방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며 지속 가능 패션의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MZ세대의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은 기업들이 친환경 마케팅을 하는 데 중요한 판매 전략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업들의 친환경 전략을 통해 지속 가능한 패션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 알아보고, 입지 않는 의류를 활용해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보면 좋은 패션 소품 아이템도 소개합니다.

글 허나리 패션 스타일리스트

폐플라스틱, 옥수수로 만든 친환경 신소재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양의 의류가 생산될까요? 매년 제작되는 의류는 1,000억 벌, 하루에 무려 2억2,000만 벌의 옷이 새로 제작된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의류는 재활용이 힘든 품목으로 꼽힙니다. 면 소재 100%로 제작된 티셔츠일지라도 폴리에스터 같은 재료로 된 라벨이나 봉제실 등이 포함되는데, 재활용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수작업으로 일일이 제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버려진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만든 리사이클 원사, 재활용 섬유입니다. 리사이클 소재의 이름 자체가 유명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해변에 버려진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해 만든 '팔리 오션 플라스틱'입니다.

▲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로 제작한 러닝화 [사진 출처 : 팔리]

세계적인 해양 환경보호 단체인 팔리(Parley)는 플라스틱 폐기물로 만든 합성 소재 대체재를 개발해 전 세계 브랜드의 러브콜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는 이 소재로 팔리 컬렉션을 펼쳤습니다.

옥수수나 사탕수수 등 젖산을 발효해 만든 생분해성 플라스틱 PLA(Poly Lactic Acid)는 토양 속 박테리아에 쉽게 분해돼 매립에 따른 환경호르몬 침출을 비롯해 미세 플라스틱, 대기오염 물질 발생 등의 문제가 대부분 해결됩니다. 이 덕분에 친환경 전환을 시도하는 제조업체들이 가장 먼저 찾는 소재로도 유명합니다. 옥수수가 신발, 양말, 티셔츠를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단 하나밖에 없는 명품으로 변신한 쓰레기

물론 옷 자체를 재활용하려는 노력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옷이나 이미 사용된 원단에 창의력을 더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제품이 그것입니다. 트럭 방수 천, 자동차의 안전띠, 폐자전거의 고무 튜브 등 산업 폐기물에서 나온 재활용 소재로 가방을 만드는 스위스 브랜드 '프라이탁(Freitag)'은 업사이클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대표적인 친환경 브랜드입니다. 버려진 원단으로 가방을 제작하다 보니 매년 30만여 개씩 제작되는 가방 중 같은 디자인은 하나도 없으며,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방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로 고가에도 젊은 층에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폐교복을 재활용해 가방, 필통 등을 만드는 '리버드'와 폐방화복으로 액세서리를 제작하는 '119레오', 소각 예정된 옷을 이용해 새로운 의류를 만드는 '래코드' 등의 브랜드가 업사이클 상품을 제작·판매하고 있습니다.

▲ 재활용 방수원단을 재단하는 디자이너 [출처 : 프라이탁]

MZ세대에게 '친환경=힙환경=必(필)환경'

MZ세대의 50% 이상은 '나는 착한 소비를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오픈서베이 트렌드 리포트, 2021)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텀블러 챌린지' 등을 유행시키듯 환경 캠페인에 적극적·직접적으로 참여하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가성비만이 아닌 사용된 소재와 생산, 유통 과정 등을 꼼꼼히 따져 이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소비합니다. 친환경, 리사이클, 공정무역 같은 윤리적 소비에 관심을 두고 이것이 유행이며 힙한 소비라고 외칩니다. 패피(fashion people)들의 옷 고르는 기준이 플렉스(flex, 과시)에서 친환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힙환경(환경을 지키는 것이 힙하다는 의미)' 또는 필수라는 의미의 '필(必)환경'이라고 표현하며 무턱대고 비싼 명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비가 지구에 얼마나 해를 끼치는지, 이왕이면 더 좋은 선택은 없는지 고민하고 소비합니다.

필요하지 않다면 사지 마세요

미국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Patagnia)'는 실제로 '이 재킷을 사지 마세요(Don't buy This Jacket)!'라는 광고 카피를 사용해 화제가 됐습니다. 재킷 한 벌을 만드는 데 물(135L)을 소비해서 목화를 생산하고 탄소(20파운드)가 배출되면서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다면 굳이 옷을 사지 말라고 광고한 것입니다.

이처럼 패션 기업은 의류 소재뿐 아니라 제조 과정, 디스플레이, 패션쇼 등 의류를 만드는 전 과정에 그린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소비자의 환경 감성에 부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늬만 친환경이고 녹색으로 포장하기에 급급한 일부 기업의 상술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지속해서 진정성 있게 지구와 인류의 미래 환경을 위해 고민하는 기업을 찾아내려는 소비자들의 현명한 판단도 요구됩니다. 중요한 것은 윤리적 소비자들이 기업을 움직이고, 이것이 패션 산업 전체의 패러다임에 영향을 미치며 지속 가능한 미래에 희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뉴욕타임스에 게재된 파타고니아의 광고 이미지[출처 : 파타고니아]

입지 않는 의류로 소품 만들기

수면양말 인형

❶ 양말을 뒤집어 일자로 평평하게 펼쳐준 후 인형의 머리, 몸통, 양팔, 꼬리 패턴을 그려주고 모양대로 재단해 주세요.

❷ 솜 넣을 부분을 제외하고 박음질을 꼼꼼히 한 후 뒤집고 얼굴이 될 부분에 굵은 털실로 눈, 코를 수놓아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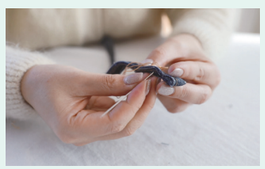
❸ 모든 양말 조각에 솜을 채워 봉제해주고 몸통을 중심으로 얼굴, 양팔, 꼬리를 연결해줍니다.

❹ 리본, 단추 등으로 장식해 마무리하면 부드러운 수면양말 인형이 완성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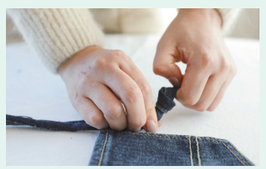
청바지 포켓 미니가방

❶ 청바지 뒤쪽 포켓, 벨트 고리 두 개와 함께 가방 줄은 안쪽 봉제선 양옆을 5cm 너비로 길게 잘라 준비합니다.

❷ 포켓 두 장을 겹쳐준 후 준비해 둔 고리를 양쪽 끝에 달아 바느질해 고정합니다.



❸ 가방 줄로 활용할 원단의 한쪽 시접 부분을 말아서 올이 풀리지 않도록 바느질해주세요.



❹ 포켓의 고리 안쪽에 끈을 넣어 매듭을 지어 고정해주면 가방이 완성입니다.

QR 코드를 스캔하면 수면양말로 인형을 재단하는 과정, 청바지 포켓 미니가방을 만드는 모습, 티셔츠 에코백의 프린지 제작과정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바지 포켓을 사용해 만든 가방

장바구니로, 수납 가방으로 OK! 티셔츠 에코백

재활용할 티셔츠를 뒤집어 놓고 목라인을 둥글고 깊게 재단해주세요. 소매와 겨드랑이 부분은 봉제선 안쪽으로 조금 더 들여서 잘라줍니다. 에코백 길이를 정해 아랫단에 라인 테이프로 표시한 후 프린지*로 재단해주고 재단된 아랫단 프린지가 풀리지 않도록 두 번씩 매듭지어 묶어준 후 티셔츠를 뒤집어주면 에코백이 완성됩니다.

* 프린지 (Fringe) : 스카프나 옷의 가장자리에 달아 장식하는 술

공제회와 함께 시작한 인연, 연금형 제도로 끝까지 든든하게

Q&A로 만나는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퇴직생활급여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교육 가족의 노후자금을 퇴직 이후에도 공제회와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평생 복지' 실현을 위해 마련된 제도,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과 '퇴직생활급여'를 소개합니다. 퇴직 후 이 제도에 가입하시면 특별회원님으로서 현직 회원님과 동일하게 각종 복지 혜택을 그대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교육 가족 여러분 중 퇴직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소중한 은퇴자금 관리를 계획중이신 회원님을 위해 분할급여금 & 퇴직생활급여에 대해 그동안 가장 많이 질문하신 문항을 선정해 소개해드립니다. 특히 2월 1일부터 퇴직생활급여 상한 구좌 수를 확대하고, 오는 3월 1일부터는 분할급여금을 수령 중이신 퇴직회원님도 분할급여대여를 이용하실 수 있다는 소식과 함께 실제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메시지까지 모아 전해드립니다.

교육 가족의 평생 행복을 위한 금융·복지 서비스의 시작 "장기저축급여"

공제회의 설립 목적은 교직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제제도를 개발하고 국내 유일의 교직원 복지기관으로서 교직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에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공제제도가 바로 '장기저축급여'.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높은 급여율(이자율) 연복리 3.74%(변동금리, 2019. 9. 1. 기준)를 적용하여 설계된 국내 최장기 저축상품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가입 자격을 갖춘 교육 가족이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하면 회원 자격을 부여받으실 수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퇴직 이후에도 든든하게, 안정적 노후 생활의 동반자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안정적 현금 흐름을 통한 행복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마련해드리기 위해 연금형 제도인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을 2015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직 중 장기저축급여를 통해 적금 형식으로 마련한 노후자금인 퇴직급여금 중 일정 금액을 퇴직 후 정해진 기간 분할하여 수령하실 수 있는 연금형 제도입니다. 퇴직 후 분할급여금을 수령하는 기간에 추가로 발생하는 부가금에 대해서도 회원님의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에 적용된 세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각종 운용수수료 역시 부과하지 않습니다. 특히 연복리 2.99%(변동금리, 2018. 3. 1. 기준)의 높은 이자율과 0~3%대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할급여금은 퇴직 시 단 한 번, 퇴직일 기준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하며, 퇴직급여금 수령 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자주 하시는 질문

Q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제도의 가입 자격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회원으로서 정년·명예·임기 만료·상병·만 50세 이상으로 퇴직한 교직원만 가능하며, 세후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내에서 최저 500만 원부터 100만 원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2015년 2월 3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퇴직 시점에 퇴직급여금 분할지급 신청 및 수령자에게 저율과세가 적용되므로, 탈퇴 또는 퇴직하여 장기저축급여금을 전부 찾은 뒤에는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 신청이 불가합니다.(※ 퇴직급여금 청구 시 단 한 번만 신청 가능)

Q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제도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2.99%(변동금리, 2018. 3. 1. 기준)의 높은 이율 및 낮은 세율(0~3%)▲중도해약 수수료를 비롯한 일체의 비용 부과 없음 ▲기금의 안정성 부분에 큰 강점이 있습니다. 특히, 발생 이자에 대해 저율과세(0~3%대)될 뿐 아니라 중도해약 수수료를 비롯해 일체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높습니다. 또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3조에 따라 급여금의 안정성이 보장되므로 회원님의 소중한 자산을 안심하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0원 중도해약 수수료 | 0원 원금운용 수수료 | 0원 기타 모집 수수료

Q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세금 혜택도 궁금합니다.

A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 계산) 제3항 제3호에 따라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분리과세)됩니다. 또 회원님 본인의 퇴직급여금에 적용된 세율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저율과세 0~3%대)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 ③ 다음 각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 3. 제129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Q 분할급여대여 제도는 무엇이고, 확대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A 분할급여대여 제도는 퇴직 시점 대여 잔액이 세후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의 60% 이내인 회원님들께서 대여 잔액을 상계하지 않고, 퇴직 후에도 대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에도 필요자금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분할급여금을 신청하고 퇴직 시점에 대여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님만 이용할 수 있었던 분할급여대여 제도를, 2022년 3월부터는 분할급여금을 수령 중이신 퇴직회원님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합니다. 확대되는 분할급여대여의 한도는 잔여 분할 부담원금의 60%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한도 내에서 재대여가 가능합니다. 상환 기간은 연 단위로, 최장 10년(거치 기간 설정 불가), [분할급여금 잔여 지급 기간-1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재대여: 대여 기간 중 기존 대여 원리금을 상계하고 신규 대여를 신청하는 방식의 대여

Q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신청 및 청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본부 및 시·도 지부로 내방·우편 신청 또는 공제회 홈페이지(www.ktcu.or.kr) 공동인증 전자서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 및 청구 가능 시간은 오전 8시~오후 10시입니다.

Q 퇴직하면 1억 원 정도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이 나올 것 같은데 금액 전부를 신청하고 가입 기간을 10년 동안, 매월 지급받는 것으로 한다면 매월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A 말씀하신 대로 신청 금액 1억 원, 가입 기간 10년, 매월 지급으로 가입한다면 **매월 세전 금액** 963,36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리금 지급 예시(*1억 원 예탁 시) (단위: 원)

지급 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세전급여금(매월)	1,794,760	963,360	688,210	552,120	471,630	418,930
세전급여금(매년)	21,829,220	11,717,060	8,370,590	6,715,350	5,736,380	5,095,330

※ 2018. 3. 1. 기준: 연 2.99% 급여율(변동금리, 세전) / 상기 금액은 가입일, 지급일, 지급 회차별 원리금 차이 및 저율과세 적용 시 이자소득세 공제로 실지급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평생의 삶이 곧 신용으로, 노후 생활을 위한 듬직한 보장 "퇴직생활급여"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이외에도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위한 저축제도 '퇴직생활급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퇴직 시 수령한 각종 연금이나 공제회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등을 위탁받아 높은 급여율(이자율)로 운용하는 노후 생활 보장제도입니다. 1987년 4월부터 시행해온 역사를 가진 퇴직생활급여는 현재 부가금형·확정연금형·적립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희망하시는 자금 운용 계획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는 다양성을 드리는 회원 중심형 노후 생활 보장제도입니다.

퇴직생활급여 자주 하시는 질문

Q 퇴직생활급여 제도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 퇴직생활급여는 ▲자금 활용 목적에 따라 가입 종류(저축유형) 선택 가능 ▲높은 급여율(이자율) ▲기금의 안정성 부분에 큰 강점이 있습니다. 또 1년 이상 유지 후 해약 시 불이익이 없고(단, 적립형은 만기 전 해약 시 해약수수료 발생), 부가금형은 500만 원 단위로 부분 해약이 가능하기에 ▲중도해지 시 불이익이 적다는 것도 강점입니다. 또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3조에 따라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Q 퇴직생활급여 제도의 가입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회원으로서 정년·명예·임기 만료·상병·만 50세 이상으로 퇴직한 교직원 및 장기저축급여에 10년 이상 가입 후 퇴직하여 만 50세 이상에 달한 교직원만 가능합니다.

Q 퇴직생활급여는 최대 가입 구좌가 어떻게 되나요?

A 퇴직회원님의 은퇴자금을 높은 급여율로 운용해드리는 퇴직생활급여의 상한 구좌 수를 2022년 2월부터 60구좌(3억 원)에서 100구좌(5억 원)로 확대합니다. 부가금형과 확정연금형을 합산하여 최대 5억 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확정연금형은 최대 3억 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생활급여 적립형은 가입 한도가 3년제 277만 원, 5년제 166만 원까지로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Q 최근 명예퇴직한 회원입니다. 목돈을 예탁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A 먼저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거나 퇴직생활급여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은행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우편으로 보내신 후 CMS용(농협·국민·외환·우리·부산은행) 무통장 입금하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퇴직생활급여 가입 신청서와 입금이 확인되면 퇴직생활급여 약정서를 자택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또 본회(여의도) 또는 각 시·도 지부를 직접 방문하여 퇴직생활급여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당일 입금하실 경우 당일 퇴직생활급여 약정서를 발급해드립니다.

Q 퇴직생활급여 가입자인데 추가 가입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서류를 또 내야 할까요?

A 추가로 입금하실 때마다 가입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 참고로 기존의 이자 수령 통장 외 다른 통장으로 수령을 원하실 경우 회원님 명의의 다른 은행 통장 사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Q 퇴직생활급여에 가입하여 매월 이자를 받고 있는 회원입니다. 추가 금액에 대해 이자 지급일은 다른 날로 할 수 있나요?

A 가입하실 때마다 이자 지급일을 5일·15일·25일 중에서 하나를 지정하실 수 있고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자 지급일 변경은 구두나 전화상으로는 안 되며 직접 내방 또는 우편으로 퇴직생활급여 지정(변경) 신고서 1부와 주민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 퇴직생활급여의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입 연도에 따라 다르면 자세히 알려주세요.

A 퇴직생활급여 이자소득세 부과는 1999년 1월 1일 이자 발생 부분부터 시행하였으며 1999년 1월 1일 이후 24.2%를, 2000년 1월 1일부터 22%, 2001년 1월 1일부터는 16.5%, 2005년 1월 1일부터는 15.4%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실제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분할급여금 & 퇴직생활급여 이야기

자유로운 가입 금액, 높은 급여율, 연복리라는 특장점 그리고 퇴직 후 분할급여금으로 전환해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다는 장기저축급여는 신입 회원이나 기존 회원에게 퇴직 후 수령액의 기분 좋은 상상을 하게 해줍니다. 급여에서 꼬박꼬박 공제되는 '장기저축급여'를 퇴직 시 연금처럼 매월 분할급여금으로 받으면 버킷 리스트를 하나하나 실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기대가 큽니다. - 성창미 회원님

곧 퇴직하려는 나에게 공제회는 든든한 친구인 은빛동행,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등은 퇴직 후 나의 친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바로미터. 퇴직 후에도 계속 만나기 바랍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 강준호 회원님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퇴직 후 분할급여금이나 퇴직생활급여에 가입한 특별회원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7년째 'The-K 은빛동행'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퇴직 후 무료한 일상에 단비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참석한 회원들로부터 열렬한 지지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서비스에 감사드리며 교직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퇴직 이후의 삶도 기대해 봅니다. - 서성균 회원님

분할급여금에 대해 접하고 나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해 매우 유익했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니 퇴직 후에도 이 제도를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좋은 제도와 상품을 설계해 교직원에게 도움이 되는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 이주호 회원님

장기저축급여만 있는 줄 알았는데 퇴직생활급여도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퇴직이 얼마 안 남은 요즘 최대 관심사는 역시 퇴직 이후의 안정된 삶이죠. 어느 것을 선택해야 더 노후를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지 비교·분석해 좋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한종림 회원님

장기저축급여를 꾸준히 납입해오면서 이제 퇴직이 가까워지니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과 퇴직생활급여를 생각하는 나이가 되어갑니다. 퇴직 후에도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영원히 함께 해야겠습니다. - 용석훈 회원님

공제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 영예롭게 퇴임하시는 회원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회원님들의 알차고 풍성한 삶을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퇴직 후에도 공제회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세요. 시작부터 끝까지, 품격 있는 노후로 나아가는 길을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최고의 금융·복지 파트너로서 변함없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

한국교직원공제회가 2022년 2월 말 퇴직 예정 회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정년·명예퇴직 회원님 2명 중 1명 이상이 선택하신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청구 시 분할급여금과 퇴직생활급여 동시 자동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인터넷 청구 시 분할급여금만 전환 가능)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2월말 정년·명예퇴직 회원님을 위한 장기저축급여 온라인 청구 이벤트도 2월 27일까지 시행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퇴직일 이후로는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에 대한 부가금(이자)은 계산되지 않으니 퇴직일 이전에 청구해주세요!
※ 문의: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콜센터 1577-3400

"교육 가족을 위해 우리가 간다!"

The-K 크리에이터의 새로운 시작과 빛나는 도전, 지난 2년 동안의 특별했던 이야기

한국교직원공제회 'The-K 크리에이터'는 교육 가족 여러분과 가까이 소통하며 공제회의 다양한 소식과 제도, 각종 혜택, 교육·업무 현장과 관련된 알찬 소식을 글로, 사진으로, 영상으로 보기 쉽게 제작해 알려주실 다양한 연령대·지역·소속의 실제 공제회 회원 18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20년 3월 첫 활동을 시작해 종료를 앞둔 2022년 2월, 약 2년간 특별한 열정과 남다른 아이디어, 깊은 현장 경험으로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빛나는 흔적과 기록을 남겨주신 1기 크리에이터 회원님들의 아름다운 활동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2년간 공제회와 함께할 이야기를 교육 가족들에게 더 가까이 들려주시며 활약해주실 2기 크리에이터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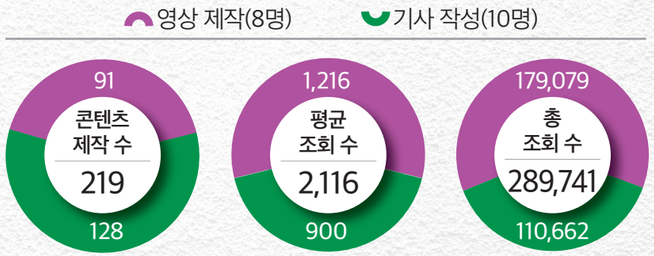
2020년 3월, The-K 크리에이터 1기의 힘찬 출범

다양한 지역·연령·소속의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18명으로 구성된 'The-K 크리에이터'. 2012년부터 교육 가족과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매년 운영해온 'The-K SNS 기자단'이 2020년부터 가지게 된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끈끈한 유대감과 더불어 공제회와 교육 가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활동 기간을 10개월에서 2년으로 크게 확대했고, 무엇보다 영상 매체의 규모 확대에 맞춰 기사 집필뿐 아니라 영상 제작이 가능하신 선생님도 새롭게 모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시대 흐름을 읽고 보폭을 맞춰 매월 교육·업무 현장과 공제회의 발 빠른 변화를 전하는 데 열정적인 The-K 크리에이터들의 활약은 2년간 교육 가족을 더욱 단단히 연결해주는 소중한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오늘을 전하는 The-K 크리에이터의 열정 가득한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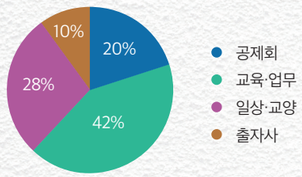
지난 2년간 The-K 크리에이터 선생님들께서 총 219건의 기사,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주셨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소중한 **지혜**와 경험을 담은 **전문성** 그리고 아름답고 유쾌한 **현장**을 생생히 전하고 있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에서는 매월 The-K 크리에이터의 기록이 차곡차곡 쌓여 언제 어디서나 'The-K 크리에이터'를 검색하시면 멋지고 다양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습니다.

[2022. 1. 13. 추정 기준, 단위 : 건,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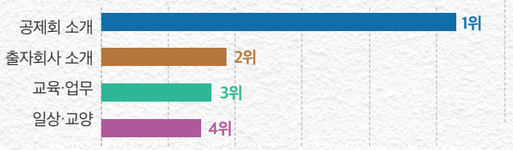


특히 '교육' 부문과 '일상·교양' 부문, 그리고 '공제회와 출자회사 제도·혜택·서비스' 등의 다양한 주제로 알차고 유익한 콘텐츠를 제작해주셨습니다. 자유로운 주제 제출이었음에도 교육 가족에게 더 알찬 정보 전달을 위해 밤낮없이 고민해 유익한 콘텐츠들을 매월 제출해주셨고, 공제회 온·오프라인 채널에 대해서도 회원님들을 대표하여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The-K 크리에이터 콘텐츠 주제 유형]



[소재별 인기 순위]



2020년 3월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맞는 첫 개학이었기에 혼란스럽고 바빴던 치열한 교육 현장의 모습과 새로운 교육 방법, 다양한 학교 이야기를 통해 교육 가족의 관심을 이끌어주셨고, 공제회의 각종 소식, 제도와 직영 호텔 등 출자회사에 대한 회원님들의 인지도와 이해도를 높여주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실제 복지 혜택 사용 방법, 후기 소개 등을 통해 모든 콘텐츠를 종합해 무려 2년간 29만 여 회라는 높은 조회 수를 달성했고, 특히 조회 수가 가장 높은 주제는 '공제회 제도' 소개였습니다. 그 외 출자회사 소식, 그리고 교육 부문이 순서대로 조회 수 순위를 기록했는데요, 기사 작성, 영상 제작 분야별로 가장 많이 사랑해주신 The-K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를 아래와 같이 소개해드립니다.

기사

공제회_복지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어렵지 않아요!
(feat. 가입축하기념선물)

기사

공제회_복지

일상 속 소소하고 든든한 행복을 위한
교직원복지카드 100% 활용법!

기사

교육

다.우.소('다'재다능 '우'리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2 옥효진 선생님

영상

공제회_제도

멀리 발령 난 신규 교사의
새집 구하기 꿀팁

영상

출자회사

제주 라마다프라자 호텔
이용후기

영상

교육·업무

행정업무 시간 줄이는
꿀팁 2가지!

한국교직원공제회와 함께할 The-K 크리에이터 2기를 기다립니다.

실제 공제회 회원이자 교직원으로서 현장을 담아낸 생생한 글과 영상으로 교육 가족을 위해 유익한 소식을 제공해주시는 'The-K 크리에이터'. 2022년 4월부터 2기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솔직한 공제회의 각종 금융 제도와 복지서비스, The-K호텔 이용 후기 뿐 아니라 교육·업무 현장 속 진심 가득한 노력과 소통력을 공제회 운영진과 함께 널리 발휘하시고, 다양하고 알찬 정보를 한데 모아 소개해주실 회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에서 The-K 크리에이터 2기 지원서와 모집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기사 집필과 영상 제작에 관심이 있고, 열정 가득한 회원이시라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지원자격**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일반, 특별(퇴직)회원 모두 가능)
- **모집인원** 총 20명 이내(기사 작성 분야, 영상 제작 분야로 구분하여 모집)
- **모집기간** **2022. 1. 28.(금) ~2. 27.(일)**
- **선발방법** 지원 동기 및 활동 계획, 콘텐츠 제작 능력 등을 토대로 서류 심사 후 전화면접 진행
- **활동기간** 2022. 4. 1.~2024. 3. 31.
- **활동내용** 콘텐츠 기획 및 제작, 공제회 미디어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콘텐츠 관련 자문위원회 활동
- **활동혜택** 한국교직원공제회 문화 행사 취재 기회, 복지서비스 체험 기회 제공
  제작·활동비 및 취재비, 교육비 지원
  매월 우수 콘텐츠 크리에이터 선정 및 포상, 중간 평가시 우수 활동자 선정 및 포상
- **지원방법**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 및 블로그 모집공고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접수처: thekcreator2@ktcu.or.kr
- **선정발표** **2022. 3. 18.(금) 예정**
  - 지원서에 기재하신 개별 연락처 통해 안내
  - 문의: 한국교직원공제회 홍보소통부 미디어소통팀(☎ 02-767-0133)

교육 가족을 연결하는 공제회 대표 소식지

회원님과 함께 만든 「The-K 매거진」

「The-K 매거진」지난호 보러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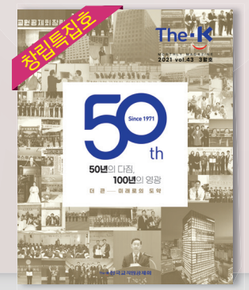
「The-K 매거진」은 2017년 9월 창간해 한국교직원공제회와 회원님을 연결하는 공제회의 대표 커뮤니케이션 채널로서 함께 소통하고 교감하는 고품격 라이프 스타일 매거진입니다. 교육 가족의 하루하루가 더욱더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를 담고, 다양한 이야기를 기획해 더 큰 공감을 끌어낼뿐더러 행복한 일상과 가치를 공유하는 장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개선하고, 혁신하고, 매년 진화하여 지금의 모습으로 매월 독자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The-K 매거진」 창간 5주년인 2022년을 맞아, 공제회 창립 50주년이었던 2021년의 노력을 한데 모아보았습니다. 창립 특집호 제작부터 9월 대대적인 개편, 신규 코너 신설, 정기구독 시스템 마련, 그리고 회원님들께서 특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분야별 기사와 이벤트 소개까지. 2022년에도 「The-K 매거진」은 교육 가족의 일상을 더 행복하게, 미래를 더 든든하게 만들어드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더 큰 변화와 혁신을 함께 이루어가겠습니다. ⓚ

2021년 1월호

'2021년 맞이 21명 교육 가족의 새해 버킷리스트 모집'에 총 2,521명의 교육 가족이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하고, 'The-K 50주년 로고를 찾아라', 'GOGOGO 이벤트' 온라인 이벤트를 신설했습니다. '2021년 복지서비스 올가이드'도 알차게 담아 큰 도움을 받으셨다는 성원의 메시지가 쇄도했습니다.

2021년 2월호

더욱더 귀 기울여 고품격 라이프 스타일 매거진으로 찾아뵙기 위한 'The-K 매거진 만족도 조사'에 총 1만731명의 교육 가족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공제회 창립 50주년 기념 '하이-파이브 온라인 콘텐츠 공모전'과 2월 퇴직 예정 회원님을 위해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과 퇴직 생활급여 제도를 소개했습니다.



2021년 3월호

공제회 창립 50주년 특집호를 제작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공제회 역사, 2030 중·장기 미래 비전부터 회원으로서 50여 년간 함께해주신 The-K 크리에이터 인터뷰, 그리고 총 2,756명의 교육 가족이 일상에서 숫자 '50'을 찾아 함께 보내주신 창립 50주년 축하 메시지까지, 다짐과 결실의 이야기를 가득 담았습니다.

2021년 4월호

회원님들과 함께 한 방향으로 이룬 빛나는 운용 실적을 기록한 공제회 2020년 결산과 함께 창립 50주년 기념식 현장 스케치, 그리고 제주에서 멋진 인생 이모작을 시작한 강명실 회원님의 이야기까지. 여기에 지친 마음을 다독여드리기 위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한소원 교수의 명사 인터뷰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1년 5월호

대한민국 교수자들의 인생 멘토인 조벽 석좌교수의 진심 어린 인터뷰와 총 1,674명의 교육 가족이 보내주신 스승의 날 감사 메시지, 회원 중심·지역 밀착 경영을 기반으로 한 전국 17개 지역별 대의원 간담회 현장까지. 회원님들이 직접 제작하신 '하이-파이브' 온라인 콘텐츠 공모전 우수작도 같이 수록했습니다.

2021년 6월호

제도 출시 50주년을 맞이한 공제회 대표 저축 제도 '장기저축급여'의 변천사와 함께 오직 퇴직회원님을 위한 The-K 은빛동행 연간 행사, 제10회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자들의 열정과 헌신이 담긴 공적을 소개했습니다. 여기에 모두의 소중한 건강을 위한 올바른 '걷기', 혼자 먹어도 든든한 '건강한 밥상'도 함께 담았습니다.

2021년 7월호

생사의 갈림길에 선 현장,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 김민경 파트장, 경영전략 전문가 세종대학교 황용식 교수 인터뷰와 함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고,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경영, The-K ESG 이야기와 다음 세대를 위한 초록빛 미션, 더케이숲·교실숲 조성 캠페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2021년 8월호

교육 가족의 든든한 행복 파트너로 도약하기 위한 공제회 서비스 품질우수기관(SQ) 인증 소식과 함께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박미랑 교수에게 듣는 '범죄를 이기는 연결의 힘' 이야기, 쉼과 힐링의 시간을 위한 공제회 공식 포스트 채널의 재테크·문화 분야 고품격 전문가 칼럼 시리즈까지 다양한 주제들을 모아 소개했습니다.

2021년 9월호

사칙연산을 주요 컨셉으로 변경된 카테고리와 The-K를 형상화한 새로운 표지 디자인, 더 많은 회원님의 이야기와 웹(앱)진 개편, 정기구독 신청까지! 더욱더 알차고 새로워진 「The-K 매거진」을 소개하고 창간 4돌 기념으로 교육 가족들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과 사진으로 다채롭게 페이지를 채웠습니다.

2021년 10월호

교육 연극으로 아이들과 교감하는 교사연극모임 '연노랑' 선생님들의 열정 가득한 이야기, 나무를 심으며 희망을 꽃피우는 김방섭 회원의 감동 인터뷰, 교육 가족의 평생 동반자 『공제회 50년사』 발간·구성 & 직원 인터뷰와 함께 회원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준비한 '건강검진 통합 서비스' 소개 등을 알차게 담았습니다.

2021년 11월호

전 국민 애송 시 '풀꽃'의 나태주 시인이 독자들에게 보내는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 교육을 향한 40년 열정을 스마트폰에 담는 교육용 프로그램 개발자 권남진 회원 이야기, 약 6만여 회원님이 직접 보내주신 공제회 창립 50주년·자산 50조 원 돌파를 축하하는 귀중한 사연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한데 모았습니다.

2021년 12월호

미래 세대와 교육 현장을 위해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공제회 사회공헌 이야기, 2021년을 보내며 그리움·고마움·따뜻함을 담은 회원님들의 진솔한 마음들, 자연의 말을 받아쓰는 '섬진강'의 김용택 시인 인터뷰, 재활용품으로 특별한 크리스마스 장식품을 만드는 리사이클링 방법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BEST ARTICLE

'회원 의견' 창구로 가장 많은 의견을 보내주신 코너 Top 5

설레는 마음으로 매달 1일을 기다려주시는 회원님들, 「The-K 매거진」도 설레는 마음으로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월 이메일, 웹(앱)진을 통해 보내주시는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양방향 소통 창구로 활용하고, 더 사랑받는 매거진을 꿈꾸며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인상 깊었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보내주신 코너는 7월호 「The-K Focus」였습니다. 해당 코너에 실린 기사는 미래 세대를 위한 ESG 경영. 더케이숲·교실숲 조성 캠페인, The-K 크리에이터 직영호텔 이용후기 소개 편이었는데요, 특히 앞으로도 바른 환경 경영에 앞장서 달라는 귀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여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리 여행의 설렘을 안겨드린 「지금 여기」 코너, 냉장고에 있는 남은 음식을 세련되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한 집밥」 코너가 뒤를 이었습니다.

1위 「The-K Focus」	2위 「지금, 여기」	3위 「건강한 밥상」	4위 「역사 이야기」	5위 「좋은 사람 좋은 생각」
7월호 The-K의 ESG, 더케이숲 캠페인, The-K 크리에이터 직영호텔 이용후기	10월호 함안, 환하게 피어난 가을날의 꿈	6월호 혼자 먹어도 든든하게! 나를 위한 소중한 한 끼	9월호 불꽃처럼 살다간 농촌계몽 운동가 '최용신 선생'	11월호 '시로 위로하고 시로 살아가다' 나태주 시인

BEST CLICK

매월호 발간 안내 '이메일 뉴스레터'에서 가장 많이 클릭하신 기사

매월 초 이메일 수신 동의를 하신 58만여 명의 회원님께 「The-K 매거진」 주요 콘텐츠를 선별해 이메일 뉴스레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콘텐츠를 클릭하시면 웹진의 해당 기사로 빠르고 간편하게 연결되는데요, 2021년간 회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클릭하신 기사는 5월호의 '하이-파이브' 온라인 미디어 공모전 우수작 소개였습니다. 그 뒤로는 6월호 '제도 출시 50년 맞은 장기저축급여' 기사가 높은 클릭 수를 기록해 공제회 관련 기사에 대한 회원님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1월호	늘 회원의 곁을 지키는 '2021년 공제회 복지서비스 올가이드'- 공제회 금융·복지서비스 한번에 모아보기
2월호	「꿈 너머 꿈」 '나는 춤춘다, 그리고 다시 꿈꾼다.'- 힙(Hip)하게 춤추는 선생님. 대전동화중학교 정재웅 교사
3월호	'창립 50주년 맞은 한국교직원공제회' 50년의 다짐, 100년의 영광 & 사진으로 만나는 공제회 50년 발자취
4월호	늘 하고 싶었던 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스승의 날,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5월호	함께해온 50년의 사랑, '하이-파이브'로 빛나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창립 50주년 기념 온라인 미디어 공모전 회원 수상작 소개
6월호	교육 가족의 내일이 시작되는 첫걸음 2021년 6월, 제도 출시 50년 맞은 장기저축급여-교육 가족의 내일이 시작되는 첫걸음
7월호	'밤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언제나 환자 곁을 지킵니다.'-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 김민경 파트장
8월호	「인생 이모작」 '광주를 잘 아는 도시 이야기꾼' - 문화해설사로 인생 2막을 연 역사 전문가 박종윤 & 김영희 부부
9월호	스쿨 오브 樂! 아이들의 마음을 노래하는 8집 가수 교장 선생님 - 서울시교육청 학생교육원 방승호 교육연구관
10월호	교육 가족의 평생 동반자,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반세기 역사를 만나다 -『한국교직원공제회 50년사』 회원님과 함께 읽고, 함께 기록합니다.
11월호	「좋은 사람 좋은 생각」 시로 위로하고 시로 살아가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 '풀꽃'의 나태주 시인
12월호	「방방곡곡 숨은 명소」 얼음 바람 물리치는 따뜻한 울진 여행, 덕구 온천과 동해안 드라이브

BEST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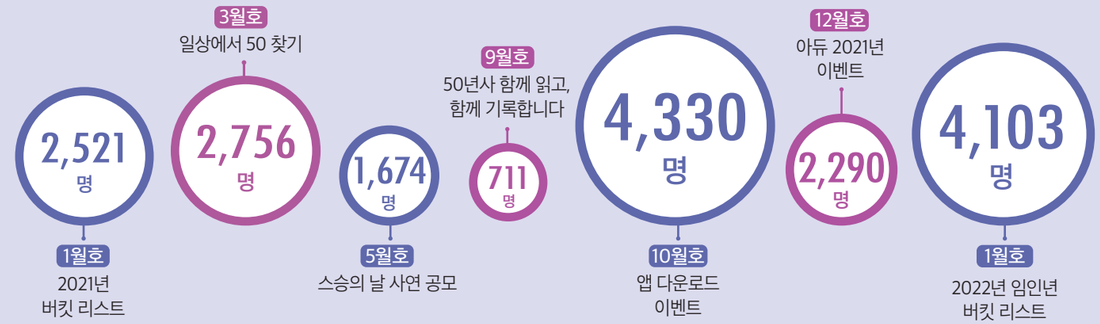
「The-K 매거진」 웹진에서 가장 많이 열어보신 월간호

「The-K 매거진」 웹(앱)진은 구독자의 성원에 힘입어 월평균 124만8,986회 페이지뷰 수, 월평균 27만여 명의 방문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6월호는 월 조회 수 152만 회, 31만여 명의 방문자 수를 기록하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셨습니다. 공제회 대표 저축제도인 장기저축급여의 50년 역사(왼쪽 사진), The-K 은빛동행 연간 행사 일정, 라이프 연구소의 건강을 위한 올바른 걷는 방법 소개 등 두고두고 볼 만한 좋은 기사가 많다는 다수 회원님들의 의견이 그 이유에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공제회 보험 소개, 포스트 채널의 전문가 칼럼, 울릉도/독도 여행을 엮어 소개해드린 8월호는 월 조회 수 146만 회, 29만여 명, 스승의 날 특집호인 5월호는 그 뒤를 이어 월 조회 수 144만 회, 방문자 수 28만여 명을 기록하였습니다.

Special EVENT

「The-K 매거진」 특별 기획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구독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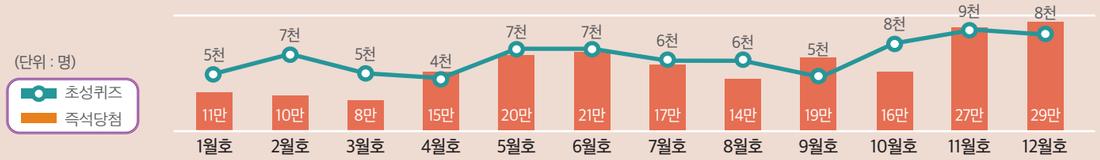
「The-K 매거진」은 매월 구독자들과 함께 즐겁고 재미있게 기사를 소개해드리며 소통하기 위한 정기 이벤트뿐 아니라 특별 기획 이벤트를 마련하여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진행한 특별 기획 이벤트 중 가장 많이 참여해주신 이벤트는 2021년 9월 「The-K 매거진」 웹(앱)진 개편 이후 새로운 앱을 설치해주시며 4,330명이 참여해주신 '앱 다운로드 이벤트'였습니다. 그 뒤로는 2022년을 맞아 희망을 그리는 '임인년' 삼행시 버킷리스트에 4,100여 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2월에 진행된 「The-K 매거진」 만족도 조사에서는 무려 1만700여 명이 참여해 솔직하고 의미 있는 의견을 들려주셨습니다.



Monthly EVENT

「The-K 매거진」 정기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구독자 수

「The-K 매거진」 은 매월 웹(앱)진에 방문해주시는 회원님을 위한 '즉석당첨 이벤트'와 기사를 읽고, 쉽고 재미있게 접하실 수 있도록 기사 내용과 연결된 '초성퀴즈 이벤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초성퀴즈 이벤트는 월평균 6,500여 명이 참여해주셨고, 즉석 당첨 이벤트는 월평균 17만여 명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즉석당첨 이벤트에 선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응모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고 있어 당첨 횟수를 매월 상품별 1회로, 공제회 회원으로만 한정하고 당첨자 리스트를 투명하게 공개한 뒤 규모를 확대해 더욱 많은 분이 소소한 행복을 누리실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 중입니다. 해당 정기 이벤트뿐 아니라 신규 이벤트를 추가해 관심을 두고 자주 찾아주시는 회원님들께 새로운 재미를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VENT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The-K 매거진」 만족도 조사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모든 회원님을 대상으로 「The-K 매거진」 만족도 조사를 진행합니다. 2월 1일부터 18일까지 하단의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웹진 배너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0분 정도 귀한 시간을 내 참여해주신 회원님 중 추첨을 통해 총 1,000명의 회원님께 CU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1만 원권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만족도 조사를 통해 「The-K 매거진」 기획 및 편집 시 회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입니다. ⓚ

- **응모 기간** : 2022. 2. 1. ~ 2. 18.
- **응모 방법** : 「The-K 매거진」 웹진 '만족도 조사' 배너를 통해 참여해주세요!
- **선정 대상** :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1,000명에게 CU편의점 모바일 상품권(1만 원) 증정
- **선정 발표** : 2022. 4. 1. 이후 「The-K 매거진」 웹진 '이벤트 당첨자 리스트' 공지

1,000명

▶ 만족도 조사 참여하기

EVENT

「The-K 매거진」이 사랑과 응원을 담아 커피 트럭과 함께 달려갑니다.

응모기간 : 2022년 2월 1일 ~ 2월 22일

2022년, 「The-K 매거진」 창간 5주년을 맞아 더 많은 교육 가족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The-K 매거진」을 실은 커피 트럭을 보내드립니다.
힘이 되어주고 싶은 사랑하는 선후배, 동료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소중한 사연을 보내주시면
우리 학교, 직장, 현장에 응원 메시지와 함께 따뜻한 커피 한잔, 그달의 「The-K 매거진」 인쇄 책자 1부를 드리러 달려가겠습니다!

참가 대상 각 지역 시·도 교육청 및 소속 임직원 80명 이상인 교육·의료기관(공제회 현직 회원 10명 이상)에 재직 중인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응모 방법 「The-K 매거진」 웹진 '커피 트럭 이벤트' 배너 혹은 편집실 이메일 (thekmagazine@ktcu.or.kr)을 통해 소중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 사연과 보내시는 분의 성함, 소속기관, 회원여부,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보내주세요.

▲이벤트 응모하기

공지사항
- 선정된 회원님께는 개별 연락 및 상담을 통해 2022년 연내 구체적인 일정 조율, 장소 협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이 아닌 경우 최종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자가 개인 사정으로 취소를 원하시면 사전 안내 후 차순위로 선정되신 회원님께 본 혜택을 양도합니다.
- 커피 트럭을 통한 음료는 총 100잔 이상, 최대 500잔 이하로 무료 제공하며 준비한 음료가 소진되기 전까지 준비가 완료된 시점부터 3~5시간 이내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 안전하게 커피 트럭을 주차하고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장소가 확보된 곳이고, 행사 당일에 지원이 가능해야 합니다.
- 커피 트럭 이용 시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안전하게 간격을 두고 음료를 수령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호 초성QUIZ

이번 호 「The-K 매거진」을 잘 읽어보셨나요?
아래 퀴즈의 정답을 모두 적어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400명에게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5천 원)을 드립니다.

▲ 초성퀴즈 바로가기

- **참가 대상** :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 **보내실 곳**: thekmagazine@ktcu.or.kr (The-K 매거진 편집실)
  - 정답과 보내시는 분의 성함,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보내주세요.
- **응모 기간** : 2022.2.1. ~ 2.28.
- **당첨자 발표 및 경품 발송** : 2022.4.1. 이후

1월호 퀴즈 정답

QUIZ 1. 차미리사
QUIZ 2. 디지털 헤리티지
QUIZ 3. 퇴직생활

매월호 퀴즈 및
회원 의견 선정자는 웹진
(www. Thekmagzine.co.kr)
혹은 QR 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되었으며, 대한광복군 정부의 대표로 일제강점기에 국권 회복을 위해 활동한 독립운동가이자, 근대 수학 교육을 우리나라에 정착시킨 '한국 근대 수학의 아버지'는?

ㅇㅅㅅ 선생 (P.14~17 - 「역사 속 숨은 영웅」 참고)

2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개인이 원하지 않는 인터넷 기록 및 정보를 삭제 또는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일을 하는 디지털 정보 전문가의 명칭은?

ㄷㅈㅌㅈㅇㅅ (P.30~31 - 「미래 잡(job)자」 참고)

3 공제회 회원이 재직 중 장기저축급여를 통해 적금 형식으로 마련한 노후자금인 퇴직급여금 중 일정 금액을 퇴직 후 정해진 기간 분할하여 수령할 수 있는 연금형 제도의 이름은?

장기저축급여 ㅂㅎㄱㅇㄱ (P.62~65 「The-K Focus」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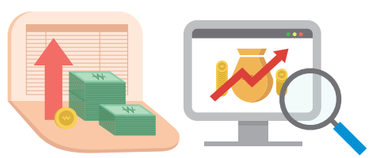
공제회 주요 소식 & 이벤트

한국교직원공제회 목돈급여, 퇴직생활급여 급여율(이율) 인상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월 1일부터 '목돈급여'와 '퇴직생활급여(부가금형·적립형)'의 급여율을 연 2.30%에서 연 2.60%로 인상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인상 이후 3개월 만에 추가 인상하는 것이다.
교직원공제회 목돈급여는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일반회원의 여유자금을 높은 급여율로 운용해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려는 제도다. 목돈급여는 자금 운용 계획에 따라 목돈 납입 후 가입 기간 동안 이자를 분할 지급하고 청구 시 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부가금형', 목돈 납입 후 청구 시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받을 수 있는 '예탁형',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고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받을 수 있는 '적립형' 중 선택할 수 있다.
한편, 교직원공제회의 퇴직회원을 위한 제도에는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외에도 퇴직회원의 노후 자금을 높은 이율로 운용할 수 있는 퇴직생활급여가 있다. 퇴직생활급여는 자금 활용 목적에 따라 목돈 납입 후 가입 기간 동안 이자를 받다가 청구 시 원금을 돌려받는 '부가금형', 목돈 납입 후 가입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나눠 받는 '확정연금형', 매월 일정 금액 납입 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받는 '적립형'으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 참조. (문의: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콜센터 ☎ 1577-3400)

법인예탁급여 급여율(이율) 인상

한국교직원공제회 법인회원을 위한 법인예탁급여의 급여율도 2월 1일부터 연 2.10%에서 연 2.40%로 인상된다. 법인예탁급여는 안정적 자산운용을 위한 법인회원 전용 상품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등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금액은 1억 원 단위로 법인별 최고 300억 원까지 가입 가능하며, 가입 기간은 1년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법인 홈페이지 참조.
(문의: 한국교직원공제회 법인회원 전용 상담 ☎ 02-767-0678)



2월 말 퇴직예정회원 급여 청구 안내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22년 2월 말 정년·명예 퇴직 예정인 공제회원을 대상으로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청구를 접수한다.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장기저축급여 청구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으로 접수하거나, 시·도지부 회원 상담 창구에 내방해 접수할 수 있다. 퇴직일 이후에는 부가금(이자)이 발생하지 않으며, 목돈급여에 가입한 회원은 목돈급여를 우선 청구한 뒤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청구 시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혹은 퇴직생활급여를 신청해 특별회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 참조.
(문의: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콜센터 ☎ 1577-3400)
※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퇴직생활급여와 관련한 내용은 「The-K 매거진」 이번 호 기사(p.62~65) 참고.

회원님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The-K 매거진」 만족도 조사, 2월 1일~18일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The-K 매거진」 만족도 조사를 한다. 2월 1일부터 18일까지 공제회 홈페이지 및 「The-K 매거진」 웹진 또는 앱진 배너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회원 중 추첨을 통해 총 1,000명에게 CU편의점 모바일 상품권(1만 원)을 증정한다. 당첨자 발표는 4월 1일 이후 「The-K 매거진」 웹진 '이벤트 당첨자 리스트'에 공지할 예정이며, 이번 만족도 조사를 통해 매거진 기획 및 편집 시 회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만족도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 및 웹진 이벤트 배너 참조.

퇴직급여금 청구, 안전한 온라인으로!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온라인 청구 이벤트 2월 4일~27일 응모

공제회는 2022년 2월 말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이 예정된 회원을 대상으로 장기저축급여 온라인 청구 이벤트를 2월 4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다. 공제회 홈페이지(PC, 모바일)를 통해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을 청구하는 공제회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700명에게 스타벅스 모바일 쿠폰(아메리카노 Tall 사이즈)을 1인 2매씩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 참조.

2022년 복지부조금 제도 신설 및 새로운 기념품 선정

공제회는 회원님의 결혼·출산·퇴직 등 생애주기에 맞춰 기념품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 부조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회원님께 드리는 복지부조금 혜택을 1월부터 더욱 확대해 '20년유지회원 감사기념품'과 '퇴직기념품' 제도를 신설했다. 기념품은 매년 회원 설문 및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 선정해 제공한다. 제도별 상세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 참조.

- **신규 가입·재가입 축하기념품**: 멀티 그릴, 스텐 팩 밀폐 용기, 냄비 세트, 핸드 블렌더 중 1종 선택
- **특별회원·결혼기념품**: 냄비 세트, 에어프라이어, 전기 그릴 팬 중 1종 선택
- **퇴직기념품**: 밀폐 용기, 가마솥 2인 세트, 커피 드립 포트, 찜·전골 냄비 및 요리 핀셋, 와플 메이커 중 1종 선택
- **20년유지회원 감사기념품**: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3월경 공지 예정

한국교직원공제회 경영지원이사 · 기금운용총괄이사 선임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신임 경영지원이사에 곽재환 경영전략기획실장(사진 왼쪽)을, 신임 기금운용총괄이사에 박만수 금융투자부장을 각각 선임했다. 임기는 1월 17일부터 3년간이다. 곽재환 이사는 1967년생으로 미래전략실 대외협력팀장, 법무지원팀장, 경영전략기획실장 등을 역임했고, 박만수 이사는 1965년생으로 개발사업부 해외사업팀장, 대체투자부 부동산투자팀장, 사업운영부장, 대체투자부장, 금융투자부장 등을 역임했다.

책과 함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북&JOY 도서 증정 행사, 2월 14일~ 27일 응모

공제회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북&JOY 도서 증정 행사가 2월에도 찾아온다. 국내 대표 서점의 베스트셀러 20종과 스테디셀러 10종, 매월 선정되는 테마 도서 10종으로 총 40종의 다양한 장르의 도서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 응모할 수 있다.
2월 14일부터 27일까지 응모한 회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5,500명에게 희망 도서 1인 1권을 증정하며, 당첨 발표일은 3월 3일이다. 선정된 회원에게는 응모 시 입력한 주소로 3월 중 순차 배송할 예정이다.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 참조.

회원님께 듣습니다, 회원님께 묻습니다
문화·복지서비스 온라인 회원 패널 모집 2월 24일~3월 9일 응모

회원과 소통하고, 회원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공제회의 문화·복지서비스 온라인 패널단이 구성된다. 회원 패널은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하며, 성별·연령·지역 등을 반영해 균등 추첨 방식으로 총 550명을 선발한다.
패널단 활동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이고, ▲문화·복지 서비스 관련 정책(아이디어, 인식, 만족도, 요구 사항 등) ▲문화복지 행사 관련 선호도(운영 형태, 장르, 상품 종류, 콘셉트 등) ▲기타 회원 복지 및 문화 복지 관련 사항과 관련한 설문조사 문항에 응답하며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설문조사(총 6회 예정)에 참여한 패널에게는 문화상품권 1만 원(회차별 문항 수에 따라 차등 지급 가능)을 각각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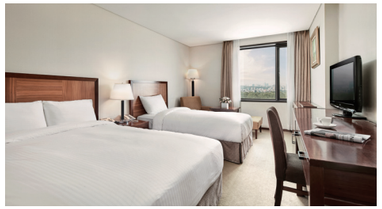
심리 상담 서비스, The-K 마음쉼
공제회 일반회원 무료 이용 가능

공제회 일반회원이라면 일상의 모든 고민을 전문가에게 상담·코칭받을 수 있는 'The-K 마음쉼'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The-K 마음쉼을 통해 개별 심리상담 13,489건, 작년 7월에 오픈한 집단상담 서비스는 114건을 이용했다. 상담효과 조사 결과, 심리적 위험도가 10.09점 하락하는 등 회원의 심리적 위험도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 중 개별상담은 4.87점, 집단상담은 4.92점으로 이용회원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제회 일반회원이라면 누구나 사업기간 2년 내(22~23년) 개별상담은 1인당 5회, 집단상담(6인 이내) 4회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전용 홈페이지(www.ktcu-hue.com), 모바일 앱, 전화(080-080-5988)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든 상담 내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에 의해 회사 및 타인에게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 참조.

The-K 출자회사 2월 소식

The-K호텔서울

특급 호텔에서 '도심 속 진정한 휴식' 객실 스페셜 프로모션 진행



The-K호텔서울은 도심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객실 스페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우선 2월부터 3월 31일까지 **'객실 초특가 이벤트'**를 펼친다. 이벤트 객실은 ▲디럭스 트윈이며, 회원 특별가로 ▲주중(일~목)은 7만 원, 주말(금~토)은 8만 원에 이용할 수 있다.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윈터 패키지'**는 ▲일반실 1박, 조식 뷔페 2인 구성, 회원 할인가로 ▲주중(일~목) 11만5천원, 주말(금~토) 12만5천원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2월 28일까지 진행한다. 금액은 최저가 기준으로 투숙일 및 예약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조식 뷔페 미운영 시 한조식(반상) 또는 우거지 해장국&커피로 대체될 수 있다. 패키지를 이용하면 우첼로와 더파크, 더케이델리에서 식음료 1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헬스&사우나 일일 입장 5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조용하고 편안한 호텔 객실에서 업무와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워크 스테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객실은 ▲비즈니스 더블이며, 오전 9시 체크인, 당일 오후 7시 체크아웃이다. 커피와 차, 어메니티를 제공하며, 생수 2병을 무료 제공한다. 회원 특별가로 7만 원에 이용할 수 있다. 또 진정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휴스테이 힐링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객실은 ▲디럭스 트윈으로 한 달 휴스테이 투숙 시 회원 특별가 ▲1박 기준 5만5천원, 2주 휴스테이 투숙 시 ▲1박 기준 6만6천원에 이용할 수 있다. 장기 투숙 회원에게는 레스토랑 우첼로, 더파크, 델리의 식·음료류 10%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피트니스 이용 시 50%, 골프 연습장 일일 입장 3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The-K호텔서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02-571-8100(The-K호텔서울)

매일매일 엄선한 최상의 식자재로 즐기는 최고의 만찬

The-K호텔 서울×소피아그린C.C '레스토랑' 오픈 기념 프로모션

The-K호텔서울 특급 셰프의 차별화된 맛과 서비스로 새로워진 소피아그린C.C의 클럽하우스를 만나보세요. 공제회 회원을 위한 The-K호텔서울 레스토랑 오픈 기념 프로모션을 4월 30일까지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피아그린C.C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소피아그린C.C 홈페이지 바로가기

Event 1

레스토랑 특별 가격 할인(조식한정)

- 조갯살 시금치국 14,000원 → 9,900원
- 사골 우거지 해장국 15,000원 → 9,900원
- 전복 미역국 15,000원 → 12,000원
- 미국식 아침 식사 15,000원 → 12,000원

Event 2

레스토랑 식사 이용 고객

- 커피 2,000원 할인

※ 이벤트 내용은 영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031-887-8009

The-K호텔경주

자연의 아름다운 운치와 맑은 공기를 누리는 '겨울사랑 패키지'

The-K호텔경주는 2월 **'겨울사랑 패키지'**를 진행 중이다. 운영 기간은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패키지 구성은 ▲스탠다드 객실 1실, 조식 2인 이용권 구성이며, 이용금액은 요일에 따라 다르나 최저 10만 원부터 시작된다.(단, 설 연휴 기간 1월 29일~2월 1일 제외) 불국사, 첨성대, 동궁과 월지(안압지), 국립경주박물관, 황리단길에서 신라의 향기를 느끼며 경주로 추억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여행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The-K호텔경주의 온천 사우나는 지하 630m에서 용출되는 알칼리성 100% 온천수로, 우거진 자연 숲속에 노천탕이 위치해 운치가 매우 뛰어나다. 뜨거운 야외 온천수에 몸을 담그고 차가운 바깥 공기에 얼굴을 내맡기면 어느새 기분이 상쾌해진다. 기타 문의 및 예약은 대표 번호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054-745-8100(The-K호텔경주)

The-K지리산가족호텔

'구례 섬진강에 야생화가 피었습니다' 인증 사진 이벤트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남 구례 섬진강 변에 야생화가 활짝 피었다. 두꺼비 다리로 유명한 구례군 문척면 마고실 쉼터에서 섬진강 가에 핀 야생화를 사진으로 담아 뽀리뱅이꽃(사진) 등 100여 종의 꽃 사진을 번갈아가며 2월 말까지 전시회를 개최한다. 추억 속 아름다운 야생화를 보면서 지친 심신을 달래보면 어떨까. The-K지리산가족호텔은 공제회 회원을 위해 2월 특별 이벤트로 **'구례 섬진강에 야생화가 피었습니다' 인증 사진 이벤트**를 준비했다. ▲섬진강 변을 배경으로 야생화 사진과 함께 인증 사진 1장, 마음에 드는 야생화 사진 2장을 찍어 총 3장을 입실 시 프런트에 제시한 후 호텔 공식 이메일 주소로 보내면 된다.(jirisan8100@naver.com) 확인 후 ▲커피숍 2인 이용권 혹은 조식 1인 이용권을 증정한다.(1회 이용) 본 이벤트는 2월 한 달간 선착순 주중 2팀, 주말 5팀에 한해 진행되며, 인증 사진은 체크인, 체크아웃 날짜를 기준으로 개인 고객에 한해 한 객실당 1인만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The-K지리산가족호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061-783-8100(The-K지리산가족호텔)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오직 회원만을 위한 겨울 특가 및 특전 서비스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에게 남은 겨울 연휴 즐거운 제주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특가 및 특전 서비스'**를 준비했다. 공제회원으로 예약하면 ▲산 전망 스탠다드 객실 1박, 조식 2인 및 수영장 2인 이용권을 포함한 구성으로 ▲주중 기준 회원가 14만 원부터 이용할 수 있다. **'패밀리 윈터 패키지'**는 ▲산 전망 패밀리 트윈 객실 1박, 조식 3인 및 수영장 3인 이용권을 포함한 구성으로 ▲주중 기준 회원가 17만 원부터 이용할 수 있다. 겨울 시즌 회원 특가는 주중, 주말 그리고 객실 타입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며 2월 28일까지 운영한다.

또 올해부터 공제회원 본인 투숙 시 특전을 준다. ▲재방문 10회 이상, 결혼기념일 및 생일자 방문 시에는 웰컴 쿠키 세트도 증정한다. 특히 ▲허니문 공제회원의 경우 호텔-공항 픽업 차량을 지원(차량 예약이 가능한 경우)하며 웰컴 과일을 제공한다. 본 허니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청첩장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차량 사정에 따라 제공이 어려울 수 있다.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은 제주공항에서 10분 내외, 제주항에서 5분 내외로 도착이 가능하고, 제주시에 위치하는 만큼 제주도 어디든지 편히 갈 수 있다. 그리고 바다 전망 객실에 투숙 시에는 공항을 오가는 비행기와 멋진 뷰가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준다. 회원의 편안한 제주 여행을 위해 여행지, 맛집을 컨시어지에서 상세히 안내해주는 등 5성급 호텔 서비스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세한 내용 및 예약 문의는 홈페이지 또는 호텔 대표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64-729-8100(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귀 기울여 소통하고 함께합니다
회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The-K 매거진」

지난 호를 읽고 보내주신 회원님들의 의견 중 더 많은 회원님과 공감하며 나누고 싶은 의견을 소개합니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총 670분의 회원님께서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달에는 특히 지난 한 해 「The-K 매거진」을 통해 큰 위안과 위로를 받고 새로운 희망을 얻었다는 회원님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 동료 간 소통 창구로,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업 자료로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 역시 소중했고, 회원님들의 기대에 걸맞는 더 의미있고 새로운 기획을 마련해야겠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자란 부분은 따뜻한 조언으로, 좋았던 부분은 아낌없는 칭찬으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신 회원님들 덕분에 작은 보폭이지만 나날이 발전하는 「The-K 매거진」이 될 수 있었습니다. 늘 한결같이 지켜봐 주시는 회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더 큰 열정으로 더 유익하고 알찬 「The-K 매거진」이 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 본문에 게재된 내용은 전체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소개된 26명 회원님을 포함해 선정되신 50분에게는 온라인 문화상품권(2만 원)을 보내드립니다.

김진현 회원 김해봉황초등학교

길고도 짧았던 2021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아듀 2021년'으로 꾸며주신 내용을 읽으면서 정말 올해의 마지막을 실감했습니다. 회원들의 사연을 읽으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하고, '그래도 여전히 감사하고 따뜻한 세상이구나!' 생각도 했습니다.
「The-K 매거진」 편집실 여러분, 1년 동안 기획하고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코로나19 속에서도 앎의 즐거움, 사람 사는 이야기, 역사, 멋진 풍경과 음식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많이 접하고 느꼈습니다. 저에게 「The-K 매거진」은 저만의 '유퀴즈'입니다. 매달 내주시는 퀴즈, 선물 당첨의 기회도 감사해요! 2022년도 덕분에 편안하게 즐기고 참여할게요. 「The-K 매거진」을 통해 공제회에 소속된 제가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느껴집니다. 2022년도 힘내주세요!

김진웅 회원 前 경덕초등학교

매월 「The-K 매거진」을 만나며 참신하고 다양한 기획에 놀랍니다. 특히 12월호는 더 알차고 유익했습니다. '아듀 2021', '에세이'도 유익했고, 특히 '좋은 사람 좋은 생각'은 아주 감명 깊었습니다. 또 '이렇게 바꿔요'를 읽고 새로운 단어도 배우고, 우리말의 소중함과 활용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토시'가 일본어의 잔재인 줄 알았는데 아름다운 우리말이었더군요. '컵 홀더'를 '컵 토시'로 사용해야겠다는 것도 새롭게 배웠습니다. '배움 더하기', '행복 곱하기' 등 여러 항목이 하나하나가 이름처럼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매달 「The-K 매거진」이 올 때만 기다립니다. 교육 가족의 행복을 위한 50년의 걸음이 미래를 위한 100년의 거름이 되리라 굳게 믿으며 참신하고 알차게 기획하고 편집해 발행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송성혜 회원 대구와룡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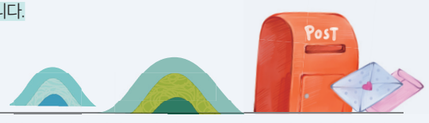
「The-K 매거진」를 만날 생각에 항상 매월 1일이 기다려집니다. 다달이 유익하고 힐링 되는 기사가 많아 꼼꼼하게 읽다 보면 저절로 고개를 끄덕끄덕하기도 하고 미소를 짓기도 합니다. 언제나 더케이 'The-K Focus' 기사를 보며 미래 세대와 교육 현장을 위한 한국교직원공제회 실행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일상과 꿈을 지원하는 학습비, 진학축하금, 크리스마스 선물 후원, 장애인 교원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보조기기 지원,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학습 기기 지원 등은 교직원공제회에 대한 존경심이 느껴지는 기사였습니다. 특히 '더케이숲', '교실숲'은 더케이에서 시작한 나비효과로 다른 기업체에서도 사업을 시작했지요. 올해 우리 학교가 교실숲 조성 사업에 당첨되어 화분을 2,000여 개 기증받았고, 덕분에 아이들이 푸른 교실에서 코로나19를 잘 견뎠습니다. 12월호를 통해 「The-K 매거진」이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고 있음에 감사함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정해빈 회원 이우고등학교

디지털 학습 기기 지원 기사, 잘 보았습니다. 실제로 학습 현장에서 온라인 수업을 할 때 기기 하나 변변치 못해 고민하고 상처받는 아이들이 있을 텐데 정말 좋은 지원을 하고 계신 것 같아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은 사업의 다변화 속에서도 당분간 계속 유지되면 좋겠고, 후속 내용도 기사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이상상 회원 포항영신중학교

「The-K 매거진」은 어떤 매거진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내용이 많습니다. 직종, 취향 구분 없이 즐겨 읽을 수 있는 소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목차부터 신선한 느낌을 받습니다. 한 가지 바람이라면 '소득 재테크' 관련 내용도 소개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용희 회원 부산가동초등학교

코로나19가 2년 넘게 이어지면서 다른 해보다 더 지치고 힘들게 느껴졌던 2021년. 이런 상황에서도 쉬지 않고 계속 활동해준 교직원공제회, 참 고맙습니다. 12월호에 한 해 동안 진행해온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등을 위한 지원 사업, 봉사단 활동, 기부, 더케이숲 등 다양한 캠페인을 보기 좋게 정리해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 교직원공제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널리 알리는 것은 꼭 필요한 일 같습니다.
생각 나누기, 배움 더하기, 행복 곱하기에서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언제나 더케이' 코너를 통해 회원으로서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서연 회원 솔뫼초등학교

네이버 뉴스는 잘 안 보지만 「The-K 매거진」은 꼼꼼히 읽고 있어요. 같은 고민이 있는 교육자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회적으로 교육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기도 하고요. 갈수록 디자인과 글 배치 방식이 발전하는 것 같아요! 가독성이 좋아서 자주 보게 되네요.

석동분 회원 한사랑학교

매번 느끼지만 참 알차고 속이 깊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이 실하고 읽을거리가 풍성해 다방면으로 두루 지식을 넓힐 수 있는 안성맞춤형 매거진입니다. 이번 호는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 궁금하고 기다려지는 게 로맨스 소설보다 더 재미있고 과학 잡지보다 더 유익한 메거진이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The-K 매거진」을 읽어볼 수 있다는 자체로 영광입니다. 앞으로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 부탁드립니다.

박기남 회원 새너울중학교

'이번에는 어떤 소식으로 기쁨을 주실까?' 하는 마음으로 「The-K 매거진」을 기다립니다. 어느새 「The-K 매거진」과 함께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매월 소개해주시는 소중한 글들은 저와 우리 가족에게 좋은 추억으로 쌓이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연말연시가 우울한 감도 있었지만 「The-K 매거진」 12월호 덕분에 오늘은 가족 외식도 했습니다.
모든 기사가 보석같이 빛났지만, 그중에서도 저에게는 '아듀 2021'의 메시지가 가슴에 오래도록 와닿았습니다. 응원과 희망이 더 필요했던 시기였던 만큼 모두 건강히 함께할 수 있었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기에 더욱 감사하고 사랑이 가득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모든 것도 「The-K 매거진」이 있어서 가능했겠지요.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더욱더 감동적이면서 다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주옥같은 이야기로 매월 큰 행복을 느끼고 싶습니다. 제 주변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앞으로도 「The-K 매거진」의 무궁한 발전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홍은주 회원 도림초등학교

길어진 코로나19로 부쩍 인상 쓰고 예민해졌습니다. 그렇게 2021년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다가 메일함에서 「The-K 매거진」에 담긴 회원님들의 감사 메시지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말랑해졌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문자로나마 보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날카롭고 예민했던 마음도 조금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요즘 준말이나 외국어 사용이 잦은데 '이렇게 바꿔요'를 읽고 반성했습니다. 앞으로는 '컵 홀더' 대신 '컵 토시'라는 말로 바꿔 사용해야겠습니다.

최명숙 회원 전주신흥중학교

코로나19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The-K 매거진」은 우리 회원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생활 속 지혜가 되어주는 여러 가지 꿀팁과 시대를 앞서가는 최신 정보, 그리고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시와 사진, 자세하고 유익한 여행 정보, 영양 가득한 음식 이야기까지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는 소중한 기사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애독자로서 「The-K 매거진」에 한없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임인년 새해도 함께할게요.

박종출 회원 前 목포대연초등학교

달마다 받아 보는 「The-K 매거진」 덕분에 퇴직한 저로서는 교육계의 트렌드와 금융, 경제 동향도 알 수 있고, 회원들의 여러 가지 사연과 소식을 들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숨은 명소를 찾아 안내해주고 또 그 지역 맛있는 먹거리를 소개해주는 '방방곡곡 숨은 명소'는 정말 우리 삶을 여유롭게 해주고 힐링해주는 코너인 것 같습니다. 12월 호에 실린 울진 여행 소개도 특히 좋았습니다. 동해안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덕구온천과 동해안 드라이브 코스는 물론 제철 맞은 바다 먹거리 울진 대게, '귀한 몸'이라 불리며 잔칫상에 오르는 문어, 시원하고 칼칼해 해장하기 좋은 곰칫국 등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보니 이번 겨울에 꼭 울진에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임인년 새해 해맞이를 동해안 울진에서 하려고 합니다.
「The-K 매거진」 교육 가족 여러분! 2022년 임인년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영 회원 전주풍남중학교

한 해의 끝을 맞이하면서 「The-K 매거진」의 송년 기사를 보니 코로나19로 물든 세상에서 그래도 건강하게 한 해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12월호 여는 글의 제목처럼 '수고했어, 올해도!'라고 나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매월 다양한 기획으로 아름답게 꾸며준 「The-K 매거진」 덕분에 한 달이 가고 나면 또 다음 한 달을 기다리며 한 해를 잘 보냈습니다. '생각 나누기'의 여러 글을 읽으며 12월의 의미를 다시 되새길 수 있었고, 언제나 다정한 친구의 이야기 같은 다양한 기획 기사를 읽으면서 삶을 재충전했습니다. 기획하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The-K 매거진」 구독자이신 공제회 회원님들 모두 2022년 건승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김선영 회원 대구장기초등학교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메일을 열어 소식지를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2021년 마지막 달 12월이기도 해서 한번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소식지를 읽었습니다. 이렇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이 많았는데 왜 지금껏 안 봤을까 하는 아쉬움에 지난 호까지 챙겨 읽었습니다. 앞으로는 매달 1일에 찾아오는 「The-K 매거진」 메일을 기대하며 지낼 것 같아요. 2021년 12월은 「The-K 매거진」을 읽으면서 내 생활의 쉼표를 찾고, 마침표까지 제대로 잘 찍어 한 해 마무리를 잘하고 싶습니다. 고마워요~ 「The-K 매거진」♥

황진수 회원 울산두서초등학교

공제회 주요 뉴스 및 이벤트 등 공제회 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어 편리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도록 각종 이벤트를 정리해줘 고맙습니다. 문화예술 전시회나 공연 정보도 좋은데, 서울과 수도권 외에 더 많은 지역에서도 공연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은 회원 서울개봉초등학교

12월은 뭔가 항상 특별한 느낌을 주는 시기입니다. 학교 일로 너무 바빠 이번 달에는 조금 늦게 만나게 된 「The-K 매거진」 여유를 찾고 매거진을 읽어보면 항상 교직 생활에 더욱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선배님들과 같이 먼 미래까지 함께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올해까지 많은 변화와 수많은 난관으로 교직에 대한 고민도 많고, 스스로 걱정하기도 하면서 복잡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The-K 매거진」에 등장하는 많은 회원님들의 일상 이야기를 보며 그 속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저 역시 에너지를 얻고 힐링합니다. 나의 삶과 가장 가까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The-K 매거진」과 2021년 마무리를 잘했다고 느껴집니다. 2022년에도 항상 만나고 소통해요~^^

이영미 회원 서울신천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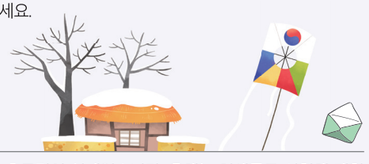
항상 많은 정보와 훈훈한 감동, 신선한 자극을 주는 「The-K 매거진」은 올해 퇴직을 한 저에게 정말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시간을 들여 꼼꼼하게 기사 하나하나를 읽어보면서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것을 배우고 공감하는 즐거움을 얻고 있습니다. 12월 호에서도 여러 분야의 기사에 많은 도움과 기쁨을 얻었고, 특히 현봉학 선생을 새로이 알게 되어 참 좋았습니다. 편집자분들의 정성스러운 수고와 성실한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The-K 매거진」을 통해 더 많이 배우고 더욱 마음이 풍성한 삶을 채워가고 싶습니다. 좋은 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재 회원 한양대학교병원

서울한양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물리치료사로 13년째 근무 중입니다. 매번 아픈 환자들을 봐야 하는 직업이기에 때로는 힘들고 정신적으로 지칠 때도 있었지만 「The-K 마음쉼」에서 대화의 기술을 읽고 좀 더 여유 있게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승복 회원 양산교육지원청

한 달 한 달 새로운 정보와 여러 분야의 회원님들 이야기를 듣는 것은 이제 제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모르는 것을 알아가고, 아는 것도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되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The-K 매거진」은 코로나19로 지친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그동안 관심 없던 경제나 역사 분야를 이렇게 쉽고 잘 알아듣게 알려주시니 정말 좋습니다. 임인년에는 「The-K 매거진」을 통해 상식이 풍부해지는 저를 기대해 봅니다. 공제회 회원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방미경 회원 용신초등학교

2021학년도를 「The-K 매거진」과 함께하며 아침 출근길이 설레었습니다. 올해는 인쇄물도 신청해 매월 초에 우편물을 기다리는 것도 좋았습니다. 기다리는 우편물이 있다는 기쁨을 느끼게 해준 한 해였습니다.
출근길 버스 안에서 「The-K 매거진」을 읽으며 혼자 미소 짓기도 하고, 여러 사연에 울컥하기도 하고, 공감하기도 한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출근길이 조금 힘든 날에도 「The-K 매거진」의 다양한 이야기와 예쁜 그림들 덕분에 기분 좋게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꼭 만나고 싶었던 나태주 시인, 김용택 시인을 「The-K 매거진」에서 만나게 되어 특히 이번 겨울이 참 따뜻했습니다. 공제회 가족 여러분이 꼭 만나고 싶은 멘토를 조사해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좋은 사람 좋은 생각' 코너가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1년 참 다양한 소식을 전해주신 편집실에 감사드립니다.

박진영 회원 부산성동초등학교

어느덧 2021년의 마지막 「The-K 매거진」을 받으니 시간의 빠름을 다시 한번 느꼈고, 1년 동안 매달 「The-K 매거진」을 읽는 재미가 쏠쏠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벤트 참여로 따라오는 사은품으로 즐거운 한때를 보내기도 했고요.
관심 있는 콘텐츠, 필요한 정보만 모아 '쏘옥' 담아둔 「The-K 매거진」 주변에도 적극 홍보 중입니다. 열심히 읽고 아껴주시는 분이 많겠지만, 아직 열어보지 않은 분들이 있기에 "여기 보세요~ 정말 유익한 정보가 많습니다!" 알리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저의 「The-K 매거진」 사랑은 쭉 계속될 거예요. 2021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처럼 유익한 정보와 콘텐츠로 찾아와 주세요!

김종욱 회원 남양주샛별초등학교

「The-K 매거진」은 여행·상담·문학·건강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 읽을수록 흥미롭습니다. 은퇴 후 삶을 소개해주셔서 미리 준비하는 마음도 갖게 되고, 재주 많은 선생님들 소개로 저 자신을 계발해야겠다는 동기도 얻게 됩니다. 다만 다양한 금융이나 재테크 정보를 좀 더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직원공제회의 금융 정보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만, 그 밖의 금융 정보도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요즘에는 부동산에 관심이 생겼는데, 부동산 정보가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중 회원 하남도서관

항상 모든 기사가 재미있지만, 이번 12월호에선 '거북이는 오늘도 달린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에세이를 읽고 나니 우리 사회가 너무 토끼만을 원하고, 토끼처럼 되라고 가르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아이들에게 더욱 더요. 일란성 쌍둥이여도 서로 다른 점이 있는데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거북이가 느리지만 포기하지 않고 달려서 토끼를 이긴 것처럼 '거북이여도 괜찮다! 힘내서 가다 보면 언젠가는 도착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해준 좋은 글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세상 모든 거북이 힘냅시다!

전은경 회원 서울구암초등학교

2021년의 마지막 「The-K 매거진」을 받아보게 되어 12월호는 더욱 설레고 기대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딱 맞는 매거진의 디자인 덕분에 연말 분위기를 물씬 느꼈습니다. 이번 12월호에서 가장 좋았던 콘텐츠를 꼽으라면 '생각 나누기'에 실린 회원들의 진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저의 사연이 실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회원분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읽어보며 저까지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거진에서 항상 빼놓지 않고 읽는 부분이 '배움 더하기'의 「고민 상담소」입니다.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 증후군'이라는 개념을 처음 알게 되었고 제가 느꼈던 막연한 불안감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깨달았습니다. 2022년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어제의 나보다 한 걸음 더 성장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말 시즌에 맞게 2021년을 돌아보게 하고 울림이 있는 글들을 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연이 회원 前 서울창일초등학교

「The-K 매거진」이 달라진 모습으로 회원들 앞에 다가왔습니다. 읽을거리도 풍부하고 긴장감 있는 이벤트도 있지요. 어려운 문제는 온 가족이 모여 정답을 찾기도 합니다.
그동안 발전해온 「The-K 매거진」을 아직 회원이 아닌 동창들에게 알리고 권장하기도 합니다. 건강·여행·요리는 꼭 메모해놓습니다. 얼마나 좋고 유익한 내용이 많은지 글자 한 자 빼놓지 않고 탐독하려면 며칠이 걸립니다. 수고하시는 편집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양다권 회원 부암초등학교

「The-K 매거진」을 볼 때마다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를 보면서 감동이 밀려옵니다. 호기심으로 읽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팬이 되었습니다. 보는 내내 기분 좋은 소식과 희망찬 내용을 보면서 저도 좋은 기운을 얻고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글도 좋고, 짧은 영상이나 이벤트, 웹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해주셔서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더욱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좋은 소식과 희망찬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저 또한 멀리서나마 늘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유익하고 따뜻한 메시지에 감사합니다.

회원님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The-K 매거진>
설레는 마음으로 매달 1일을 기다려주시는 회원님들,
「The-K 매거진」도 설레는 마음으로
회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매월 많은 회원분께서 「The-K 매거진」을 읽으신 후 따뜻한 조언과 진심 어린 의견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정성스러운 회원 여러분의 관심은 「The-K 매거진」을 알차고 풍성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고 있는데요. 때로는 지면을 채워주는 아이디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숨어 있는 보석 같은 이야기를 찾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회원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는 「The-K 매거진」을 더욱 가치 있는 매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원천이라는 점에 감사의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늘 한결같이 지켜봐 주시는 회원님들의 기대를 알기에 더 큰 노력으로 더 큰 행복감을 드리는 「The-K 매거진」이 되겠습니다. Ⓚ

매월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신 회원님들께 더욱 보답하기 위해 50분을 선정해 온라인 문화상품권(2만 원)을 보내드리고, 매거진에 소개해드립니다. 회원님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더욱 성장하는 「The-K 매거진」이 되겠습니다.

▲ 회원 의견 신청 바로가기

회원 의견 보내는 방법

1. 「The-K 매거진」 웹진 '회원 의견' 배너를 통해 의견을 적어 보내주세요.
2. 이메일로 의견을 보내주세요.

★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thekmagazine@ktcu.or.kr)

* 메일을 보내실 때는 보내시는 분의 성함, 분회명(현재 혹은 퇴직하신 소속 기관명), 휴대전화 번호를 남겨주세요.

「The-K 매거진」 회원님들을 위한

온라인 선물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1

떠 있는 The-K 로고 속 숨은 글자를 조합해 주세요!

◀ 이벤트 바로가기

「The-K 매거진」 웹진에 접속해 기사 속에 숨겨져 있는
4개의 The-K 로고 배너를 찾아서 클릭해주세요!
4가지 글자를 조합해 만든 하나의 단어를
'숨은 글자 맞추기' 배너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 총 300명에게
온라인 문화상품권(5천 원)을 드립니다.

- **참가 대상** :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 **응모 기간** : 2022. 2. 1. ~ 2022. 2. 28.
- **응모 방법** : 「The-K 매거진」 웹진(PC·모바일)에 접속해 숨겨진 로고를 찾아 클릭 ▶ 숨겨진 4글자 찾기 ▶ 단어를 조합해 이벤트 배너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당첨자 발표 및 경품 발송** : 2022. 4. 1. 이후

2

'GOGOGO 이벤트'

영상보고(GO) 댓글달고(GO) 선물받고(GO)

한국교직원공제회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달의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총 200명에게 온라인 문화상품권(5천 원)을 드립니다.

- **참가 대상** :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 **응모 기간** : 2022. 2. 1. ~ 2022. 2. 20.
- **응모 방법** : 한국교직원공제회 유튜브에 접속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The-K 매거진」 2월호 '오늘의 학교'나, 'DIY 리사이클링' 영상에 댓글을 달아 주시면 응모가 완료됩니다.
- **당첨자 발표** : 2022. 3. 1. 이후
- **경품 발송** : 2022. 4. 1. 이후

「오늘의 학교」

「DIY 리사이클링」

* GOGOGO 이벤트는 당첨자 정보를 별도로 입력해야 경품이 발송됩니다.
* 각 이벤트의 당첨자 명단은 「The-K 매거진」 웹진 하단의 이벤트 당첨자 배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he-K 매거진」 2월 즉석 당첨 이벤트

2022년에는 모든 소망을 이루세요~

The-K가 준비한 설 명절 선물 왔어흥!

설 명절, 소중한 사람들과 덕담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응모기간 : 2022년 2월 1일 ~ 2월 28일

600개 이디야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

GS25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600개

참가 대상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응모 방법	경품 옆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www.thekmagazine.co.kr에 접속, '즉석 당첨 이벤트' 클릭 ▶ 원하는 경품 선택 ▶ 참여 및 당첨 여부 확인 ▶ 당첨 확인 후 인적사항 기입
당첨 발표	응모와 동시에 확인 가능
경품 발송	2022. 4. 1. 이후(회원이 아닌 경우, 당첨되어도 경품 발송을 하지 않음)
유의 사항	• 당첨은 경품별 매월 1인 1회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 • 개인정보를 정확히 입력 후 응모해야 하며, 오기재 또는 미기입으로 인한 발송 오류는 책임지지 않음 • 당첨시 입력하는 성명과 연락처는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정보와 동일해야만 경품이 발송됨 •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 정보로 참여 시 당첨이 취소되며, 참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 • 이벤트 관련 문의 : 하나로애드컴 (Tel. 02-3443-8005)